



마음을
품은
한옥

2022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2022 Korea Hanok Competition

진행과정

공모 공고

2022년 4월 20일(수)

참가등록 및 작품접수

2022년 8월 1일(월) 09시 ~ 8월 2일(화)

심사

준공 한옥부문

1차: 2022년 8월 17일(수) / 2차: 2022년 9월 13일(화)

학생 공모전부문

1차: 2022년 8월 17일(수) / 2차: 2022년 9월 17일(토)

사진부문

1차: 2022년 8월 12일(금) / 2차: 2022년 8월 31일(수)

영상부문

1차: 2022년 8월 12일(금) / 2차: 2022년 8월 31일(수)

시상식

2022년 11월 29일 (화) 건축공간연구원 대회의실

전시회

1차: 2022년 10월 6일(목) ~ 10월 10일(월), 용산공원 부분 개방

2차: 2022년 11월 3일(목) ~ 11월 6일(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 및 심사위원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류성룡 교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건축공학전공 김기주 교수

스마트건축사사무소

김건철 대표

월간 SPACE

윤준환 작가

월간 DECO

여인우 작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추덕담 프로듀서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박기범 과장

건축공간연구원

신치후 국가한옥센터장

기획의도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건축공간연구원 국가한옥센터
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마음을 품은 한옥”

한옥(韓屋)은 과연 어떤 건축인가?

한옥(韓屋)이라는 말은 우리 땅에 들어온 서구 스타일의 집, 즉 양옥(洋屋)에 대비되는 의미로 시작되었다. 문화강국의 국격(國格)을 보여주는 한류(韓流)의 주역으로 삼으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K-Architecture)이 되어 전 세계에 소개되고 있다. 한옥은 1인당 국민소득 35,000달러의 수준에 걸맞는 좋은 재료와 치밀한 디테일, 세련된 분위기를 가미했고, 탁월한 기능과 최고 수준의 외관도 갖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옥과 그 주변 환경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보인다. 과연 한옥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한옥(韓屋)은 과연 누구의 건축인가?

수천 년 지켜올 수 있었던 한옥의 힘은 무엇이었을까? 한옥을 지켜왔던 힘이 건축가의 기술과 능력 때문인지 전통을 고수하면서 불편을 감수해 왔던 집주인의 노력 때문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축전문가들이 현대건축을 평가할 때 건축가의 창의력과 기술력을 찾으려고 애쓴다. 그러나 한옥을 볼 때는 집주인의 인품과 삶의 태도를 들여다본다. 새롭게 만든 한옥을 심사하고 시상할 때 보면 수상의 영광이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면 현대 한옥과 전통 한옥에 기대하는 가치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마음을 품은 한옥(韓屋)의 모습은?

한옥의 강한 생명력은 건축가의 창의력과 기술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시간을 품고 오랜 세월동안 전통을 지키고자 분투하는 ‘사람’, 그곳 터를 일구면서 겹겹의 찰나를 살아온 ‘사람’에 있다. 현재 우리는 한옥에 누구의 마음을 담고 있는가? 우리 한옥에 어떤 마음을 담아야 하는가? 한옥의 강한 생명력의 출발이 그것을 짓고 지켜왔던 사람이었음을 인정한다면, 우리 한옥에 누구의 마음, 어떤 마음을 담아야 할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차례

진행과정 / 운영 및 심사위원	2
기획의도 / 차례	3
심사위원장 심사평	4

준공 한옥부문

올해의 한옥상	8
올해의 한옥공공건축물상	14

사진부문

일반인	대상	22
	금상	24
	은상	26
	동상	28
	입선	30
청소년	금상	38
	은상	40
	동상	42
	입선	44

학생 공모전부문

대상	48
특별상	52
금상	56
은상	60
동상	68
입선	74

영상부문

대상	92
금상	94
은상	96
동상	98
입선	100

심사위원장 심사평



올해의 한옥공모전 주제는 ‘마음을 품은 한옥’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역사와 오롯이 함께 해왔던 한옥의 강한 생명력이 무엇 때문이었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것은 건축가의 창의력과 기술력에 있지 않습니다. 한옥의 강한 생명력의 출발이 우리의 땅에 그것을 짓고 지켜왔던 사람이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우리 한옥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학생공모전부문, 준공부문, 사진부문(일반/청소년), 영상부문의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되었으며, 2022년 4월 11일 공고가 이루어졌고 2022년 8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공모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학생공모전부문은 한옥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설계공모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준공부문은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경과한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건축주, 설계자, 시공사 또는 대목장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진부문과 영상부문은 한옥에 관련된 자유주제로 직접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출품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진부문의 경우는 일반부문과 청소년부문에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학생공모전과 준공한옥부문의 심사위원은 고려대학교 류성룡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 김기주 교수, 스마트건축사사무소 김건철 소장, 건축공간연구원 국가한옥센터 신치후 센터장 등 4인이 참여하였고, 사진과 영상부문의 심사위원으로는 위원 월간 SPACE 윤준환 작가, 월간 DECO 저널 여인우 작가, EBS 추덕담 PD, 국토교통부 박기범 과장, 국가한옥센터 신치후 센터장이 참여하였습니다.

학생공모전부문에는 총 37개 작품이 접수되었고, 1차 심사에서는 심사위원별로 서류심사를 통해 우수작품을 선별한 후 2차 심사대상 21작품을 선정했습니다. 2차 심사는 2022년 9월 17일에 작품별

모형 설명을 포함한 10분 내외 프리젠테이션과 질의응답을 진행하였고 위원별로 평가점수 종합(계획의 완성도, 대지에 대한 이해도, 한옥 구조와 공간의 이해도, 창의성) 및 토론을 거쳐 최종 수상작으로 본상 8작품 및 입선 8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학생공모전부문의 작품들은 건축가의 관점을 근간으로 하면서 제시한 주제를 감안하여 주민과 사용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장소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를 사용하는 수준 높은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올해의 계획부문 대상 ‘맑고 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원도심에 늘상 있는 지역의 문제를 찬찬히 들여다보는 작업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방향의 분석과 목표 위주의 해결책 제안이라는 딱딱한 태도에서 벗어나서 현재 프로그램의 이용상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주민과 사용자들에게 점진적이고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을 통해 전면적 신축 또는 개발을 지양하는 태도가 돋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계획부문 특별상‘조각을 잇다’는 대지 분석에 있어서 현재 시점의 주민 이용 행태뿐만 아니라 역사적 장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치를 설계 작업의 출발로 삼아 한옥의 배치, 입면, 구조 등에 연결시키는 자연스러운 전개과정을 통해 건축공모전의 발전적 모델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계획부분 금상은 ‘공공기와 - 기와로 기억심기’입니다. 원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존과 활용이 접점을 이루는 대지에서 현대건축과 한옥건축이 만나게 되는 사례를 어렵게 보기보다 오히려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기회로 삼는 과감성이 돋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은상을 받은 ‘-um’, ‘泰·掇·所·한옥’ 그리고 동상을 받은 ‘遇禳宇(우영우) : 만나서 어우러지는 지붕’, ‘복촌 잇-길’, ‘어서(誦)오계(繼)’ 등은 작품 이름의 창의성과 함께 신선한 건축적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들이었습니다. 공모전의 작품들을 통해 학생들의 주변 사람들과 도시 환경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깊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준공부분은 현장심사를 거쳐 올해의 한옥상과 올해의 공공건축물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올해의 한옥상은 '예맥당'이 수상하였는데, 자칫 건축가가 최고 전문가라는 우월감에서 벗어나서 의뢰인이 왜 한옥에 살고 싶어하는지 이유를 잘 듣고 의견을 반영하여 수요자의 취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어렵지 않은 일처리가 한옥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알려주었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올해의 한옥공공건축물상은 2021년 신설되어 2회를 맞게 되는데 '남한산성 119안전센터'가 수상하였습니다. 화재를 진압해야 하는 소방서 건물에 화재에 취약하다는 선입견을 갖게 하는 목재를 사용한 역설적 접근 방식은 단순한 재미를 벗어나서 목재의 친정서적, 친환경적 장점을 이용함으로써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 공사비 내에서 건축가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은 또 다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부문은 총 496건으로 일반인 469건, 청소년 27건의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심사과정은 서류심사를 거쳐 1차로 작품을 선별하였고, 8월 31일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습니다. 사진 일반부문에서는 본상 6작품과 입선 15작품이 선정되었고, 청소년부문은 본상 5작품과 입선 3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의 사진부문 대상 '지붕선의 미학'은 한옥에 대한 높은 수준의 안목이 드러난 작품으로, '집'이라는 일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구성과 선택이 탁월하였습니다. 일반인 부문의 금상 '심소정의 여름'은 한옥의 구조로부터 연유한 공간의 중첩과 목조 특유의 질감과 색을 미학적인 관점에서 훌륭하게 해석한 작품이었으며, 청소년 부문의 금상 '비 내리는 창덕궁'은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시선을 낮추고

바라본 시도는 기존 한옥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신선하고 파격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영상부문은 총 1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심사과정은 사진부문과 같이 서류심사를 거쳐 1차로 작품을 선별하였고, 8월 31일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인 본상 6건과 입선 2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영상부문 대상인 "우리의 한옥"은 한옥의 전통과 역사가 현대에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세련된 촬영과 편집으로 구현하였으며, 특히 다양한 촬영 기법과 로케이션에 공을 들여 영상의 품질을 높여 준 작품이었습니다. 금상 "나의 하루, 나만의 한옥에서"는 다양한 일상 활동의 공간 배경이 되는 한옥을 자연스러운 영상으로 구현하여 건축 유물이 아닌 현실에서 즐길 수 있는 집으로서의 한옥의 가치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의 수상작들은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한옥의 우수성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알리기 위하여 '2022 건축의 날'과 '2022 한옥문화박람회'에 전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선된 상황과 환경이 주어진다면 한옥공모전의 비약적인 발전과 높은 수준이 일반인들에게 큰 반향을 미칠 것으로 의심치 않습니다. COVID-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 심사에 참여해주신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옥의 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고 기획하고 후원하는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 국가한옥센터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심사위원장 류성룡
고려대학교 교수



준공한옥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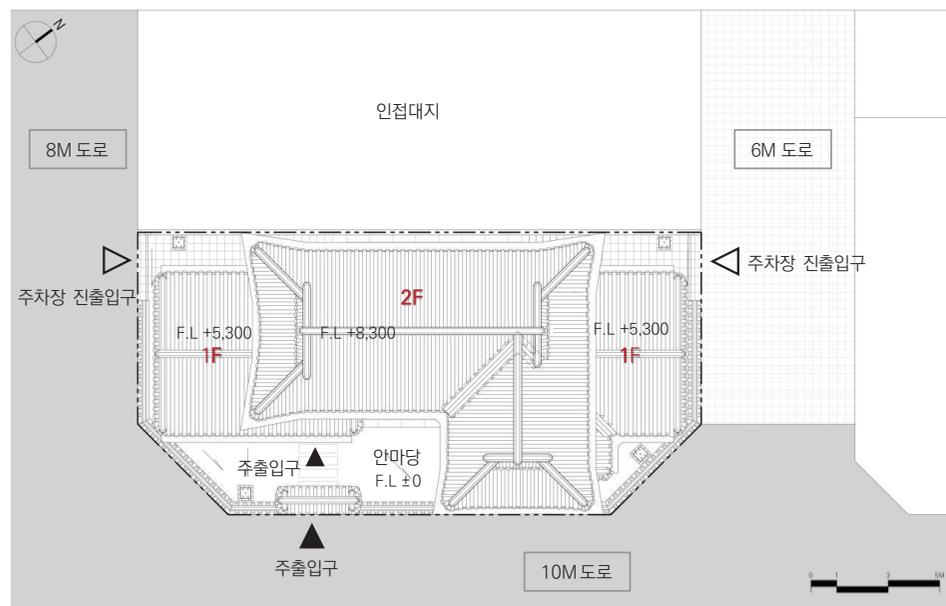


예맥당(藝脈堂)은 도시형 한옥의 새로운 전형으로 제안한 2층 한옥이다.

한옥 고유의 구법과 비례, 공간적 특징을 존중하면서 이 시대의 보편 타당한 집으로 작동하기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기존 한옥의 단순한 재현에 머무르지 않고, 전통적 가치에 시대적 요구사항과 기술을 보완하여 보편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진화하는 도시형 한옥을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배치도



예맥당(藝脈堂)

예맥당은 3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1블럭 끝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다. 도로를 따라 세장한 형태의 필지가 펼쳐지고, 도로 모서리 2곳은 가각전체가 되어 있는 직사각형의 특이한 대지이다. 출입구와 현관의 위치, 마당을 향해 돌출된 식당 매스 등 공간과 동선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세장하고 모서리가 있는 대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전면으로 마당을 최대한 확보하고, 거실을 중심으로 침실과 주방, 식당 및 서재 등을 순차적으로 배치하였다. 인접대지를 면한 배면으로 화장실과 계단실, 주차장 등을 배치하여 전용공간을 서브하도록 하였다. 1,2층 식당 부분이 전면 마당을 2개의 영역으로 구분하는데, 작은 마당은 침실에서 즐길 수 있도록 좀 더 사적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택지개발로 필지가 구획되는 현장에서 사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장한 필지들이 등장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예맥당은 세장형 필지에서 한옥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한 한옥이다.

예맥당은 요즘은 보기 드문 3대가 함께 사는 한옥이다. 1층은 건축주 부부, 2층은 건축주 자녀와 손녀의 생활공간으로 구성되는데 층별 분리를 통해 세대별 독립성을 확보하고, 1층 대청과 지하층에서 가족구성원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조닝하였다.

또한 예맥당도 다른 은평한옥과 마찬가지로 복층한옥인데, 2층을 기억자로 배치하였다. 1층과 연결되는 부분은 계자난간을 설치하였고, 1층 뒷마루 상부는 테라스로 계획하였다. 계자난간과 테라스의 수평적 요소로 복층한옥의 비례감이 좋아졌고, 아름다운 조형성도 얻게 되었다. 예맥당을 통해 1,2층의 적절한 비례와 활용 가능한 충분한 면적, 한옥이 주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조형성, 1층 뒷마루와 2층 테라스의 활용 등 현대한옥으로 충분히 작동 가능한 공간시스템을 완성하게 되었다.

예맥당은 북한산으로의 아름다운 전망을 가지고 있다. 초기단계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요소 중 하나로, 거실과 식당 등 공용공간에서 북한산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2층 식당은 팔작지붕의 연등천장으로 마감하여, 한옥 목구조의 아름다움과 원경의 북한산 뷰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예맥당은 삼면이 도로인 관계로 은평한옥마을의 곳곳에서 쉽게 인지가 된다. 계획단계부터 개인주택이지만, 외부경관은 은평한옥을 찾는 모두를 위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했다. 프라이버시를 적절히 보호하면서, 은평한옥마을의 중요한 풍경이 되도록 입면의 비례와 개구부의 위치, 창살 문양, 담장의 높이 및 패턴 등을 전체와 부분이 조화되도록 세심하게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준공 한옥부문 올해의 한옥상

건축공간연구원장상

설계자	(주)건축사사무소오브 전재영
건축주	정원조, 이남숙
시공자	(주)고진티앤시 강석목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대지면적	230㎡
건축면적	98.39㎡
연면적	222.99㎡
구조	일반목구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용도	단독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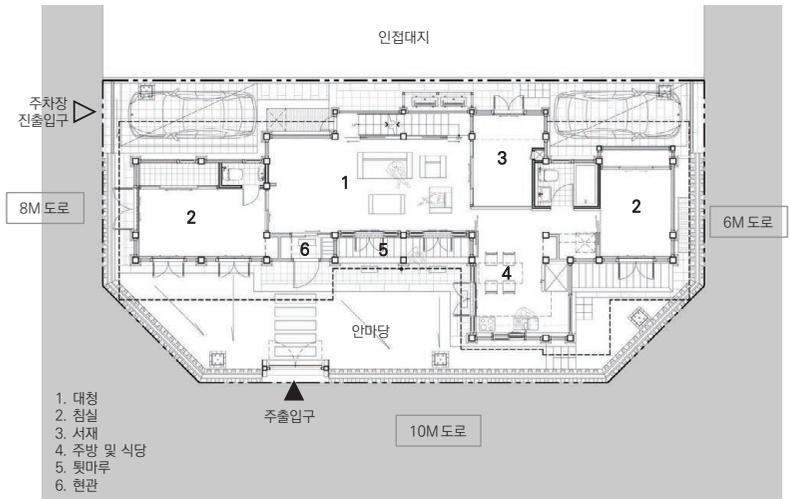
도시형 한옥의 새로운 전형

예맥당은 3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1블럭 끝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다. 출입구와 현관, 마당과 주요 실들을 면밀하게 조정하여 세장하고 모서리가 있는 대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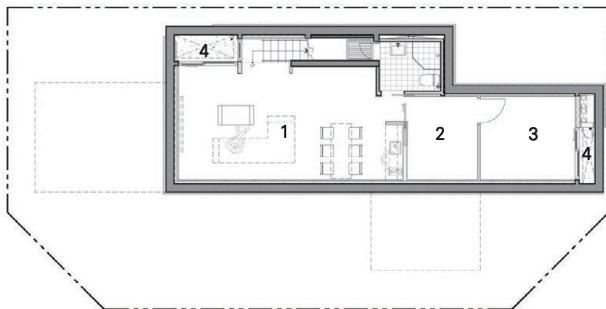
전면으로 마당을 최대한 확보하고, 거실을 중심으로 침실과 주방, 식당 및 서재 등을 순차적으로 배치하였다. 인접대지를 면한 배면에 화장실과 계단실, 주차장 등을 배치하여 전용공간을 서브하도록 하였다.

3대가 사는 한옥인 예맥당은 층별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별 독립성을 확보하고, 1층 대청과 지하 다목적실을 가족구성원의 구심점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지하층을 적극 개발하여 부족한 수납공간 및 홈 시어터, 취미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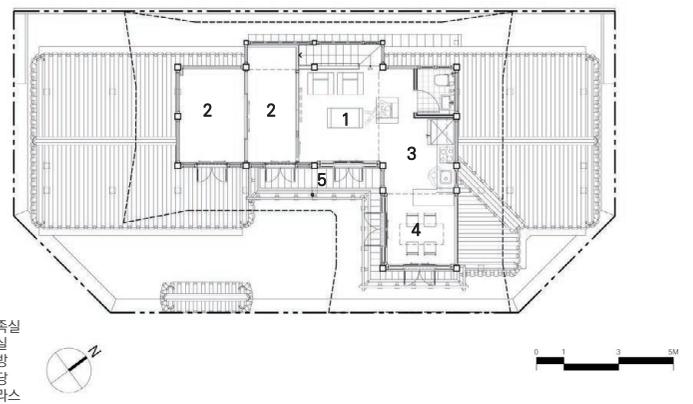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복층한옥의 가능성과 도전

예맥당은 삼면이 도로인 관계로 은평한옥마을의 곳곳에서 쉽게 인지가 된다. 개인주택이지만, 외부경관은 은평한옥마을을 찾는 모두를 위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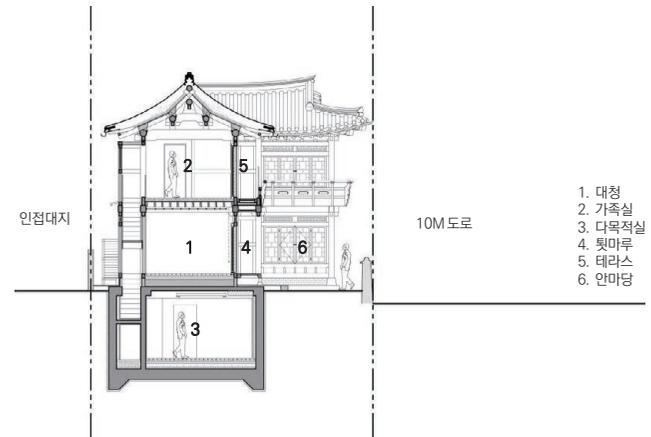
프라이버시를 적절히 보호하면서, 은평한옥마을의 중요한 풍경이 되도록 입면의 비례와 개구부의 위치, 창살, 문양, 담장의 높이 및 패턴 등을 전체와 부분이 조화되도록 세심하게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예맥당은 북한산으로의 아름다운 전망을 가지고 있다. 초기단계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요소 중 하나로, 거실과 식당 등 공용공간에서 북한산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2층 식당은 팔작지붕의 연등천장으로 마감하여, 한옥 목가구조의 아름다움과 원경의 북한산 뷰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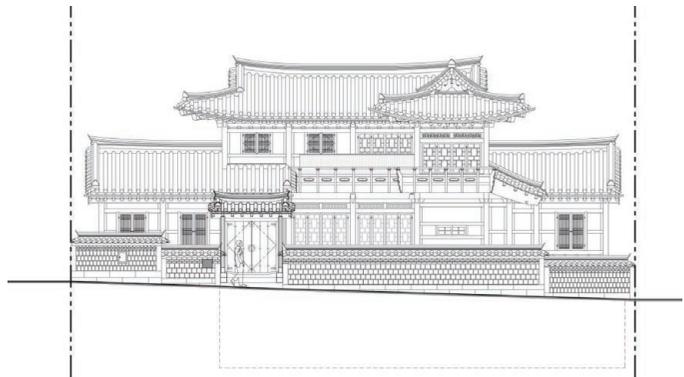
수직 동선은 퇴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북측으로 퇴칸을 두고 동선의 커를 만들어 주요 실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내부 동선을 처리할 수 있었다.

또한 예맥당도 다른 은평한옥과 마찬가지로 복층한옥인데, 2층을 기억자로 배치하였다. 1층과 연결되는 부분은 계자난간을 설치하였고, 1층 툇마루 상부는 테라스로 계획하였다. 계자난간과 테라스의 수평적 요소로 복층한옥의 비례감이 좋아졌고, 아름다운 조형성도 얻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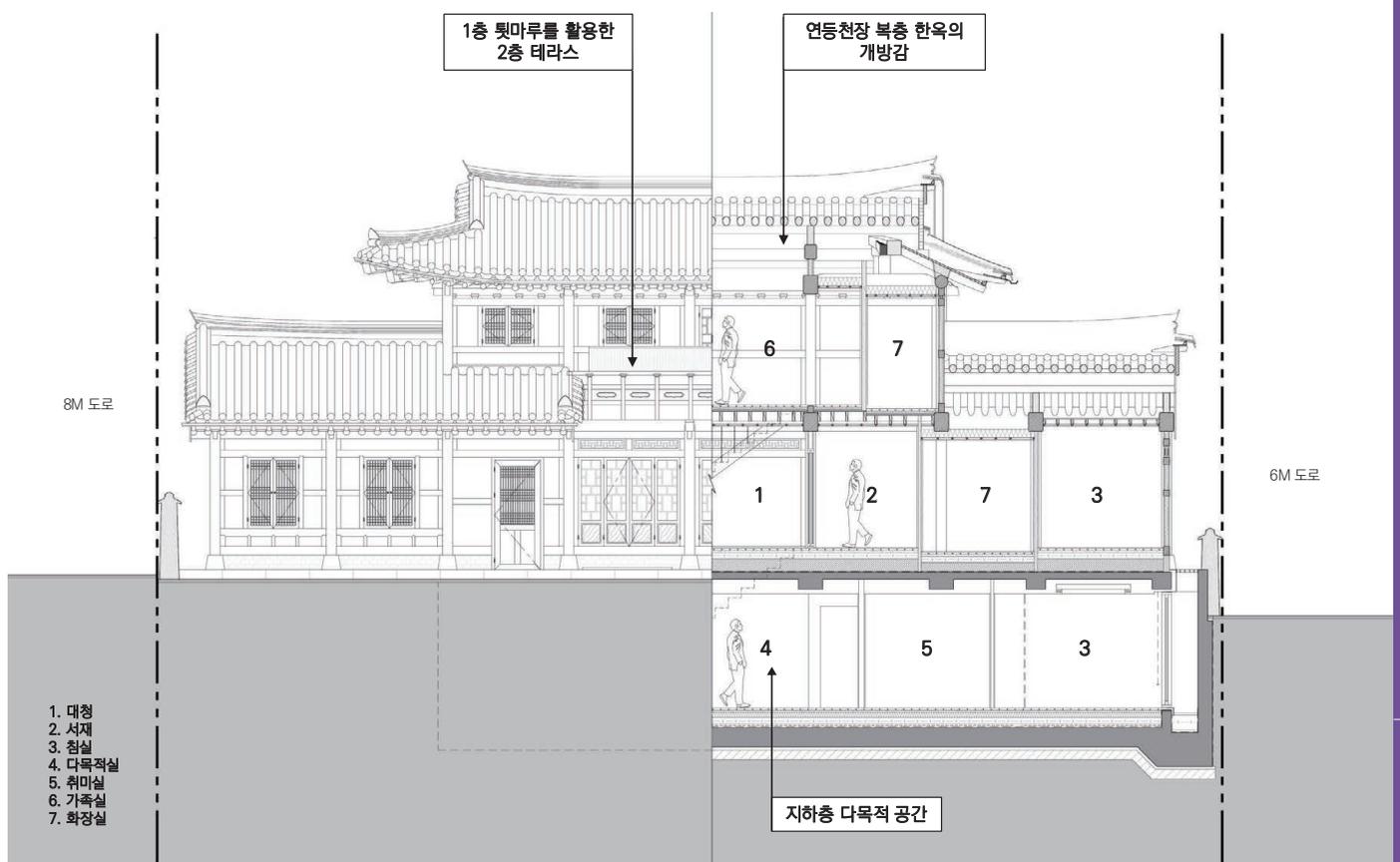
횡단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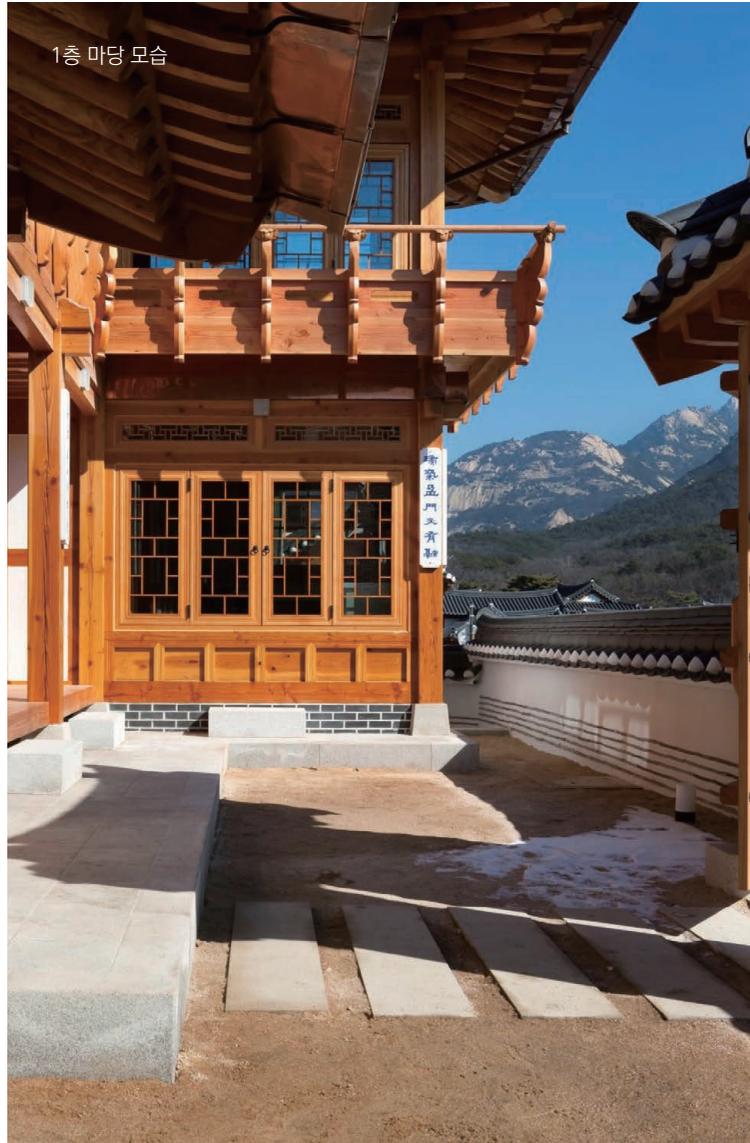
입단면도



2층 식당



1층 마당 모습



1층 거실



주요 전경 모습



진화된 텍토닉 : 한옥의 현대화를 위한 성능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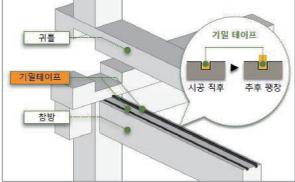
1

[문선+상하인방+머름] 사전 조립
 기둥과 기둥 사이의 [문선+상하인방+머름]은 사전제작 및 조립을 통해 시공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공기를 단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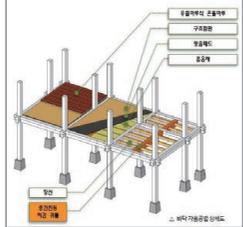
2

1,2층 연결부분 고주 시공
 2층 한옥으로 연결되는 부분의 기둥은 고주(高柱)를 활용하여 복층 한옥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3

목재-목재 간 기밀형 팽창 테이프 시공
 기둥을 파내어 수장재를 끼워 넣고, 그 사이는 팽창형 기밀테이프로 마감하였다. 목재가 수축 팽창하면서 벌어지는 틈을 팽창형 기밀테이프를 통해 최소화하였는데, 이는 곧 단열성능이 개선되는 효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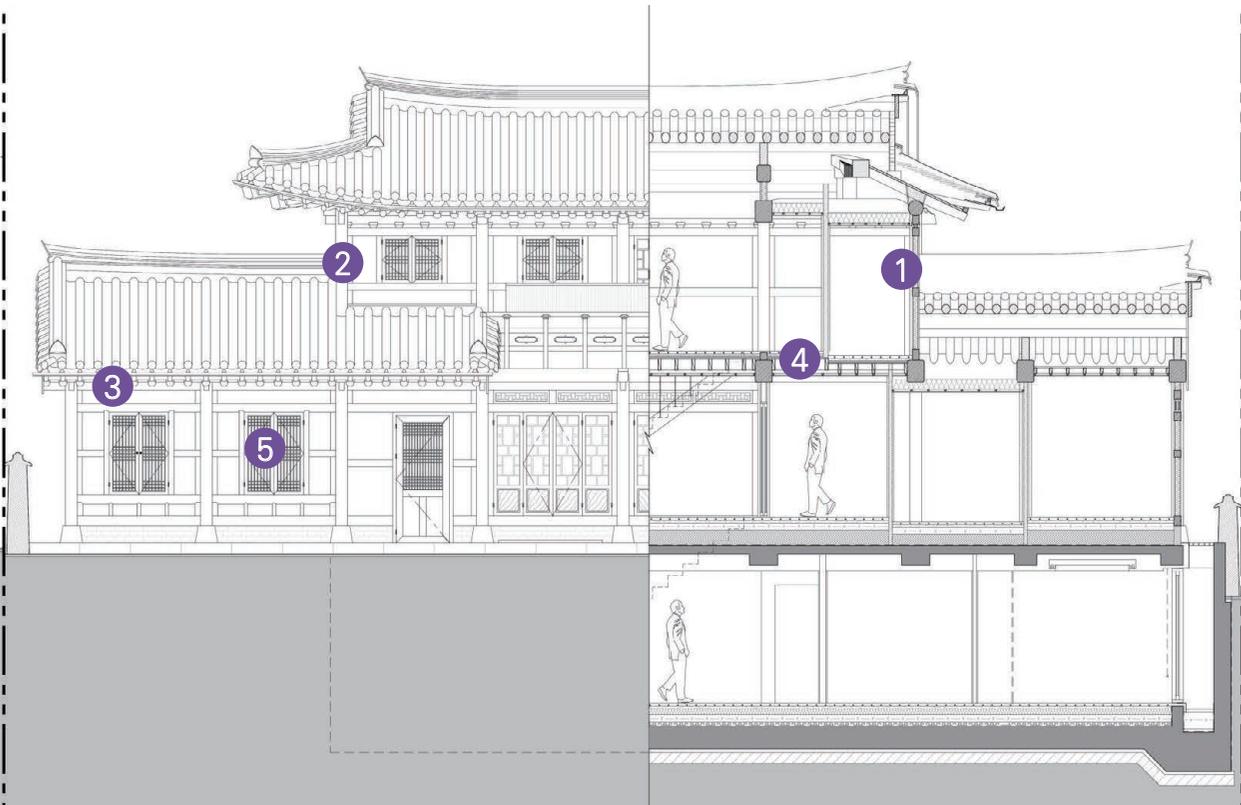
4

2층 바닥 상세도
 2층 바닥은 난방 및 단열, 층간 소음 등 해결하기 위한 흡음재, 완충 패드 및 PE필름 등을 시공하여 거주성을 제고하였다.



5

불투명 폴리카보네이트를 활용한 내창
 침실의 내창은 창호 울거미 틀에 10mm 폴리카보네이트를 끼워 넣고, 내부에서는 창호지로 마감하였다. 폴리카보네이트를 통해 복층 유리에 상응하는 단열성능이 확보됨과 동시에 채광이 가능해져 한옥에서 유리 다음으로 현대적인 재료가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문화재 경관을 거스르지 않는 공공건축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남한산성 경관에 거스르지 않는 공공시설물을 제안하였다.

소방서의 초기 계획안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기와지붕을 씌운 형태였다.

우리는 소방서가 들어설 대지 주변의 맥락과 경관을 고려하여 한옥 소방서를 제안하게 되었다.

한옥이며 동시에 소방서의 기능을 위해 소방서에 필요한 대형차고, 사무공간 등을 한옥이라는 뼈대안에서 적절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통기법에서 나아가 신한옥 기술을 적용하였다.

이에 더해 마당, 마루, 창호 등을 통해 한옥 고유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소방서를 계획하였다.



남한산성 119 안전센터

공간으로서의 한옥

채나눔을 통한 구조의 해결 및 한옥적 공간 요소를 적용해 소방서의 기능이 한옥에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소방서의 출동동선의 집중화 및 단순화를 위해 업무공간은 자연스럽게 생활공간과 분리되어 구성되었다. 기능에 맞게 업무공간은 앞채가 되고 생활공간은 뒤채로 나뉜 것이다. 나누어진 채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안마당이 구성된다. 생활공간인 뒤채는 안마당을 향해 창을 내고 안마당에는 쪽마루를 두어 느슨한 여유공간이 구성된다.

소방서의 기능을 담은 한옥

차고의 기능을 위해 대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글루램 구조를 적용하여 필요 Span과 높이를 확보할 수 있었다. 글루램 방식을 통해 구조해결과 목부재를 사용하는 공간의 통일성을 확보하였다. 소방관이 오랜시간 머무르는 생활공간은 한식 목구조를 적용하였다. 전통적 구법에서 나아가 신한옥의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사용자 중심의 현대적 한옥으로 쓰여지길 바랐다.

전통한옥에서의 소방(消防)의 이미지

한옥이면서 소방서인 건축물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 전통건축의 화방벽 요소를 차용하였다. 전통적으로 화방벽 재료로 사용된 벽돌과 사그석을 입면부에 적용하여 한옥의 건축언어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COVID-19에 대응한 한옥 소방서

위험에 맞서는 소방관들을 위해 편안하고 안정된 공간이 되길 바랐다. 앞채와 뒤채의 채분리를 통해 자연스런 안마당이 구성된다. 창호는 안마당을 향해 열려 외부를 조망할 수 있으며 안마당의 쪽마루에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뒤채인 단층의 ㄷ자형 한옥에는 직원대기실, 체력단련실, 샤워장 등이 계획되어 출동 전 한옥의 편안함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는 한옥공간으로 구성하였다.

본 공모에 참가하기 위하여 준공 후 7년만에 다시 찾았다. 지상 2층에는 PTSD실(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치유실)을 두었는데 COVID-19를 겪으면서 격리된 소방관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였다고 한다. 안온한 한옥의 공간에서 격리기간 동안에 심신을 치유했다고 하니 나름 보람을 느낀다.

준공 한옥부문 올해의 한옥공공 건축물상

건축공간연구원장상

설계자 건축사사무소 강희재
강성원, 남기정

건축주 경기도(광주소방서)

시공자 금세기종합건설(주)
최영구

대지위치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737

대지면적 938㎡

건축면적 436.97㎡

연면적 554.27㎡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한식목구조)

규모 지상 2층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방서)

공간으로서의 한옥



남한산성 119 안전센터 주변 항공사진

STEP 1. 한옥소방서를 위한 설득

외관의 모습만 한옥인 철근콘크리트 조로 계획되었던 초기계획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주처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것은 진정한 한옥적 공간을 구현해야 한다는 부분이었다. 채나눔을 통한 구조의 해결 및 한옥적 공간 요소를 적용해 소방서의 기능이 한옥에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STEP 2. 채나눔을 통한 기능, 구조의 적용

소방서의 출동동선의 집중화 및 단순화를 위해 업무공간은 자연스럽게 생활공간과 분리되어 구성되었다. 기능에 맞게 업무공간은 앞채가 되고 생활공간은 뒤채로 나뉜 것이다. 나누어진 채는 필요공간을 위해 각각 다른 목구조를 적용하였다.

STEP 3. 채 사이의 느슨한 여유공간

나누어진 채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안마당이 구성된다. 생활공간인 뒤채는 안마당을 향해 창을 내고 안마당에는 쪽마루를 두어 느슨한 여유공간이 구성된다.



남한산성 119 안전센터 개념도



소방서로서의 한옥

1. 소방서의 차고

소방서에는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구급차, 펌프차, 물탱크차 등 대형차량이 사용 가능한 차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차고의 최소 Span은 약 7.5m, 높이 3.0m 이상으로 전통적 구법의 한식목구조로는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2. 앞채의 글루램 구조

차고의 기능을 위해 대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글루램 구조를 적용하여 필요 Span과 높이를 확보할 수 있었다. 글루램 방식은 집성목을 가공하여 구성되는 방식으로 구조해결과 목부재를 사용하는 공간의 통일성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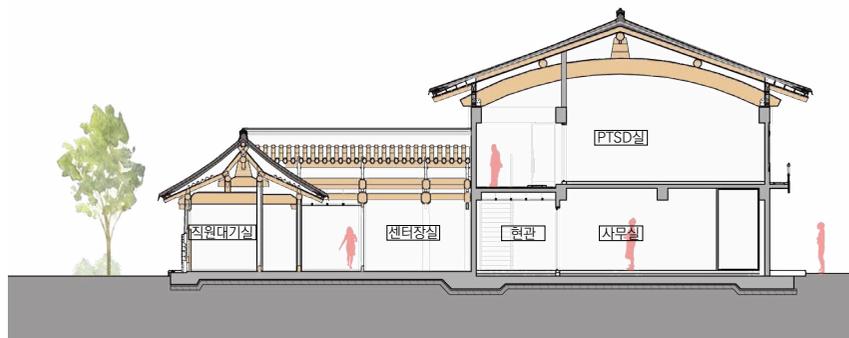
3. 뒤채의 한식목구조

소방관의 대기실 및 체력단련실 등 오랜시간 머무르는 생활공간은 한식 목구조를 적용하였다. 전통적 구법에서 나아가 신한옥의 기술인 경량벽체와 경량지붕을 적용함으로써 사용자 중심의 현대적 한옥으로 쓰여지길 바랐다.

1층 평면 개념도



단면 개념도



모형스튜디오



PTSD실 내부



차고의 글루램 구조

전통한옥에서의 소방(消防)의 이미지

한옥이면서 소방서인 건축물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 전통건축의 화방벽 요소를 차용하였다. 동결도(1820년대)에 나타나는 창덕궁 수방재와 같이 중요 물건을 보관하는 건물에는 벽돌과 같은 방화를 위한 재료가 벽체 입면부에 적용되었다. 임금의 어진이나 승배대상의 초상화를 보관하는 건물도 마찬가지로 화재방지를 위한 화방벽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전통적으로 화방벽 재료로 사용된 벽돌과 사고석을 입면부에 적용하여 한옥의 건축언어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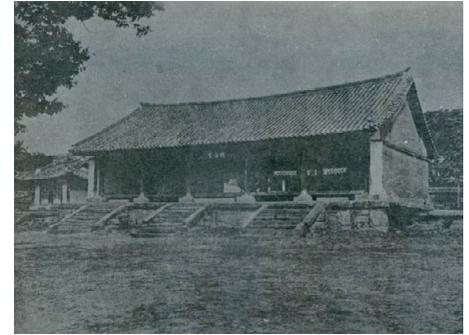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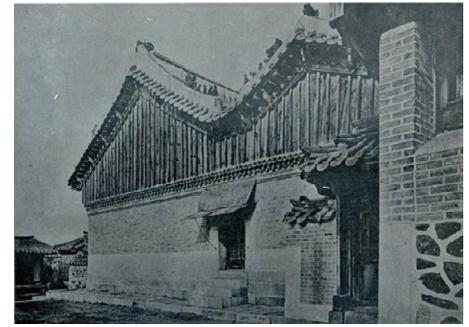
전통적 소방의 이미지를 적용한 우측면



창덕궁 수방재의 측면 벽돌 구성 구조



어진보관장소의 화재를 대비한 구조



남관왕묘의 측면벽

COVID-19에 대응한 한옥 소방서

위험에 맞서는 소방관들을 위해 편안하고 안정된 공간이 되길 바랐다. 앞채와 뒤채의 채분리를 통해 자연스런 안마당이 구성된다.

창호는 안마당을 향해 열려 외부로 조망할 수 있으며 안마당의 쪽마루에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뒤채인 단층의 ㄷ자형 한옥에는 직원대기실, 센터장실, 체력단련실, 샤워장 등의 실이 계획되어 출동 전 한옥의 편안함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는 한옥공간으로 구성하였다.

본 공모에 참가하기 위하여 준공 후 7년만에 다시 찾았다. 지상 2층에는 PTSD실(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치유실)을 두었는데 COVID-19를 겪으면서 격리된

소방관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였다고 한다. 안전한 한옥의 공간에서 격리기간 동안에 심신을 치유했다고 하니 나름 보람을 느낀다.

배면도



좌측면도





사진부문

-일반인



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지붕선의 미학

수상자 박양심
촬영장소 대구 육신사



금 상



심소정의 여름

수상자
촬영장소

이용재
거창 심소정



은 상

선비정신을 배우는 자리

수상자 이영진
촬영장소 대구 도동서원

은상

곡선과 직선의 조화

수상자
촬영장소

최재영
전주 경기전



동상



근암서원의 추억

수상자 송상호
촬영장소 문경 근암서원

동상



소복한 겨울에 한옥의 미

수상자

심성영

촬영장소

서울 경복궁

입 선



한옥은 풍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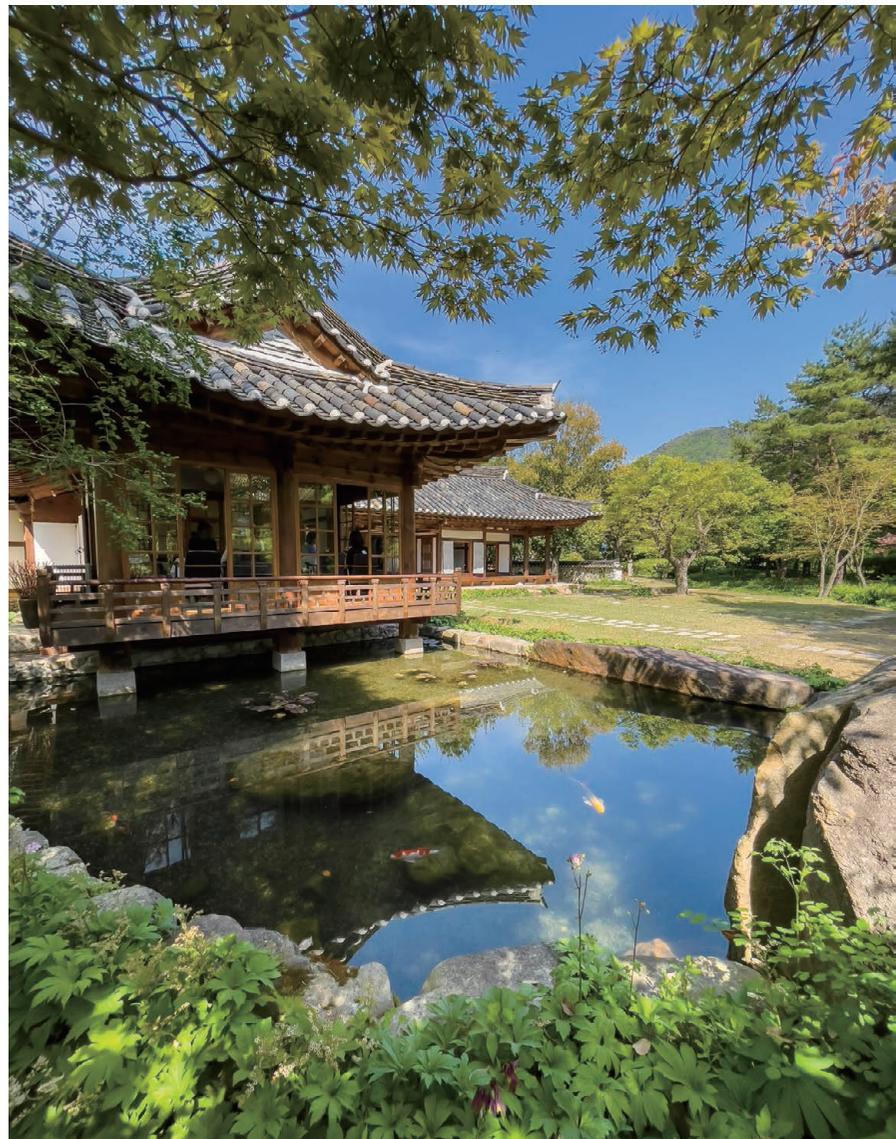
수상자
촬영장소

손목광
밀양 부북면

연못이 있는 정원

수상자
촬영장소

문철진
부산 갤러리에동



입 선

한옥에 별이 흐르고

수상자 심수민
촬영장소 산청 황매산



절벽의 고택

수상자 이영철
촬영장소 고창 두암초당



입 선



대자연 속의 한옥

수상자
촬영장소

김동조
봉화 청량사

전통한옥

수상자
촬영장소

박만녕
대구 옷골마을



입 선

한옥 파출소

수상자 김영수
 촬영장소 익산 금마파출소



막의 미

수상자 이병헌
 촬영장소 서산 개심사



입 선

입춘대길

수상자 김영미
 촬영장소 산청 남사에담촌

월정교 일출

수상자 노명유
 촬영장소 경주 월정교



입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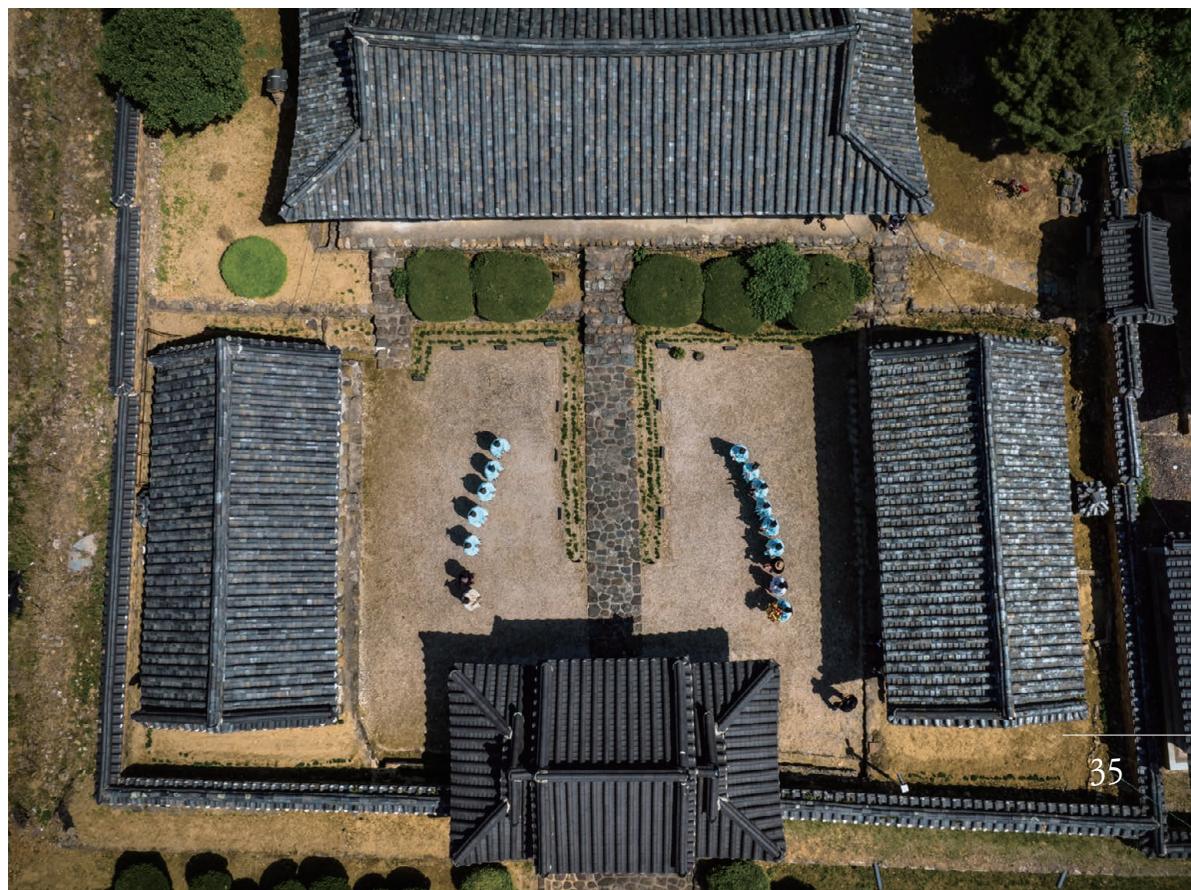
구름도 쉬어가는 곳

수상자 고수경
촬영장소 밀양 향우당



향교의 예식

수상자 권혁만
촬영장소 창녕 영산향교



입 선



사찰의 여름나기

수상자 한보옥
촬영장소 양산 흥룡사

도심 속 한옥

수상자 황선영
촬영장소 서울
 봉은사





사진부문

-청소년



금 상



비 내리는 창덕궁

수상자

김강산

촬영장소

서울 창덕궁

은상



최고의 휴식공간 한옥

수상자

정재혁

촬영장소

울산 은월봉 정상

은상



승례문의 대칭적인 기와

수상자 이예준
촬영장소 서울 승례문



동상

노부부의 여름여행

수상자 정은송
촬영장소 경주 독락당

동상

한옥과 자연

수상자 박예정
촬영장소 안동 도산서원



입 선



자연을 담은 한옥의 아름다움

수상자 박우빈
촬영장소 하동 최참판댁

입 선

조선의 작품

수상자

박시연

촬영장소

서울 창덕궁



양부일구와 한옥

수상자

김아린

촬영장소

서울 창덕궁





학생 공모전
부문



담고, 담다

동네를 담고, 본래 한옥에 담겨있던 마음을 담다.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순라길
지역지구	돈화문로 제 1종 지구단위계획
건축규모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 최고 높이	8,000m
연면적	764m ²
구조	목구조 + 조적조
용도	주얼리 문화 도서관

ANALYSIS

서순라변 주얼리 상업시설과 주거지 분포도

과거 예자동 일대의 공예시장은 오늘날 주얼리 산업 클러스터 단지 형태로 발전하여 지역산업이 되었고, 봉익동 일대까지 확장되어 주얼리 상업시설들이 자리잡았다. 해당 사이트는 기존의 주거단지들과 상업시설들이 섞여가는 중간지점에 위치한다.



한옥과 비한옥의 분포 & 주얼리지원센터

한옥특화거리로 지정된 서순라길은 신축한옥들이 전면 가로변을 채우고 있고, 골목들로 이어지는 순라길 뒤편에는 옛 도시한옥들이 자리하고 있다. 비한옥의 건물과 한옥들이 혼재되어있는 서순라길의 특징은 해당 사이트의 특징이기도 하며 주얼리지원센터 1관과 2관 역시 각각 비한옥과 한옥의 형태로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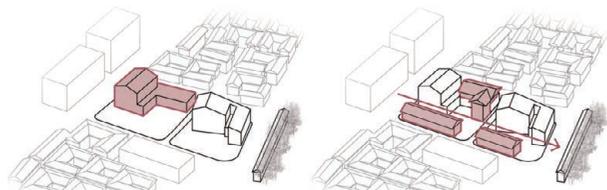


돈화문로와 서순라길

돈화문로와 서순라길을 잇는 사이트 앞 가로에는 낙후된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으나 서순라길을 방문하는 새로운 출입체계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새로운 출입체계의 활성화는 2차적인 골목으로의 유입의 가능성을 높여주며 해당 사이트 내에는 전면가로와 구옥들이 연결될 수 있는 골목길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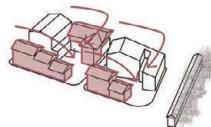


MASS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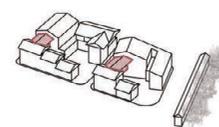


한옥과 비한옥이 혼재하는 서순라길 사이트 이야기를 반영한 비한옥 매스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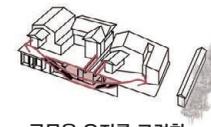
주변 옛 도시한옥 스케일과 종묘까지 연결되는 시야를 고려한 한옥 배치



사적경관에 대한 위계를 존중하는 흐름 배치



한옥과 비한옥을 잇는 브릿지 배치



골목을 유지 고려한 담장 배치 및 지중공간 연결

답고, 담다

(동네를 답고, 본래 한옥에 담겨있던 마음을 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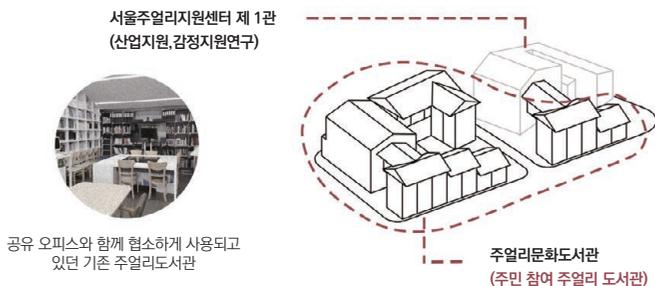
한옥은 부재들이 결합하며 가구구조를 이루고 하나의 건물이 된다. 하나의 채 역시 다른 채들과 관계를 맺으며 공간을 구성한다. 독립적인 오늘날의 건물과는 다른 독특한 공간들이 한옥에는 존재한다. 각 채들은 마당을 공유하고, 서로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이러한 한옥의 공유와 관계의 정신은 수평적이며 경계 없는 공간으로 나타났다. 담장의 높이와 대문의 문지방의 틈은 모두 그 너머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만들어진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장치들이다.

시간이 흘러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주거지는 늘어나고 마당은 줄었다. 그럼에도 한옥의 정신은 줄어든 공간에 맞추어 이어져왔다. 골목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고, 어른들은 골목을 오가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옆집의 손가락이 몇 개인지 까지 알고 있는 정이 오가던 마을들이 많았다. 골목은 새로운 마당이었고, 서로와의 관계는 이어져왔다.

서순라 일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궁궐 내 기술자들이 살던 봉익동 일대는 오늘날까지 그 역사가 이어져 주얼리 산업이 클러스터 형태로 이어져오고 있다. 삶의 터전이자 지역 산업의 중심지였던 이곳은 하나의 동네이자 마을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서순라의 신축 한옥들은 상업 논리에 근거해 만들어지고 있다. 한옥의 조형만을 담은 한옥들은 서순라를 뺄뺄하게 채워가고 이면의 구옥들은 소외되어 간다.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서순라의 옛 동네, 옛 마을을 답고, 옛 마음을 담은 모두를 위한 한옥을 제안한다.

현재 서순라길 일대에는 주얼리산업지원센터 2곳이 있지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다. 주얼리지원센터 1관에 위치한 주얼리 도서관은 협소하고 공유오피스와 촬영스튜디오와 함께 있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1센터의 한계를 보완하는 주얼리문화도서관을 계획했다. 두 대지 사이의 골목길을 유지하며 지중 공간을 통해 연결한다. 기존 골목길은 옛 동네의 모습을 간직한 채 유지된다. 구옥의 마당을 담은 공간은 주민들이 쉬어가는 쉼터이자 소통의 장이 되어 잃어버린 서순라의 '마을'의 모습을 되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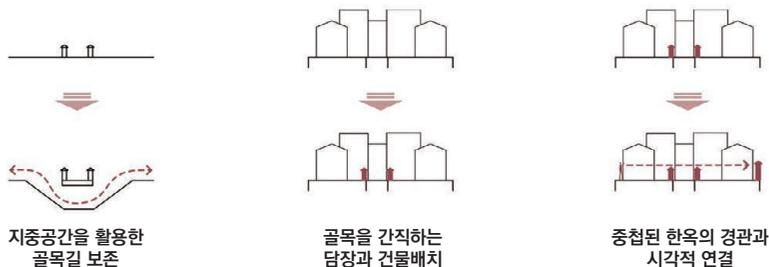
PROGRAM



답사를 통해 사이트 내 서울주얼리지원센터 1관 3층에 위치한 주얼리 도서관은 크기가 협소하고 공유오피스와 촬영스튜디오와 함께 사용되어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온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낙후된 채 소외되어가고 있는 서순라길 뒤편의 옛 도시한옥들과 서순라의 젠트리피케이션 이슈는 서순라길의 장소성을 열어지게 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교류와 유대를 위한 공공문화시설을 제안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주얼리문화도서관은 기존 1센터의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문화시설로써 주얼리 및 주민 참여 도서관을 도입하여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장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주얼리문화도서관은 동네를 답고, 본래 한옥에 담겨있던 마음을 담는다.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동네의 쉼터이자 마당이며, 커뮤니티 공간이 되어 잃어버린 서순라의 '마을'의 모습을 되찾게 한다.

CONCEPT



두 대지 사이의 골목길을 유지 하며 확장된 지중공간을 통해 연결한다. 기존 골목길은 옛 동네의 모습과 스케일을 간직한 채 유지된다.

골목길을 중심으로 건물을 배치 하고, 옛 골목의 모습을 유지 하기 위해 담장을 통해 골목의 밀도감을 준다. 골목은 소외한 이면가로 북쪽의 도시 한옥들과 남쪽의 상업시설들을 잇는다.

주 출입구에서 부터 중요 담장 까지 이어지는 시선이 통하는 길을 만들어 두 사이트와 중요 를 시각적으로 연결한다. 한옥 의 다양한 요소들이 중첩되어 있는 전통적인 경관을 만들어 낸다.

학생 공모전부문 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답고, 담다

(동네를 답고, 본래 한옥에 담겨있던 마음을 담다.)

명지대학교
설윤주
안문석



주 출입구에서 바라본 담장 너머의 풍요



돈화문로 쪽에서 바라본 주얼리문화도서관



밀도감이 높아진 골목길



서순라길 쪽에서 바라본 주얼리문화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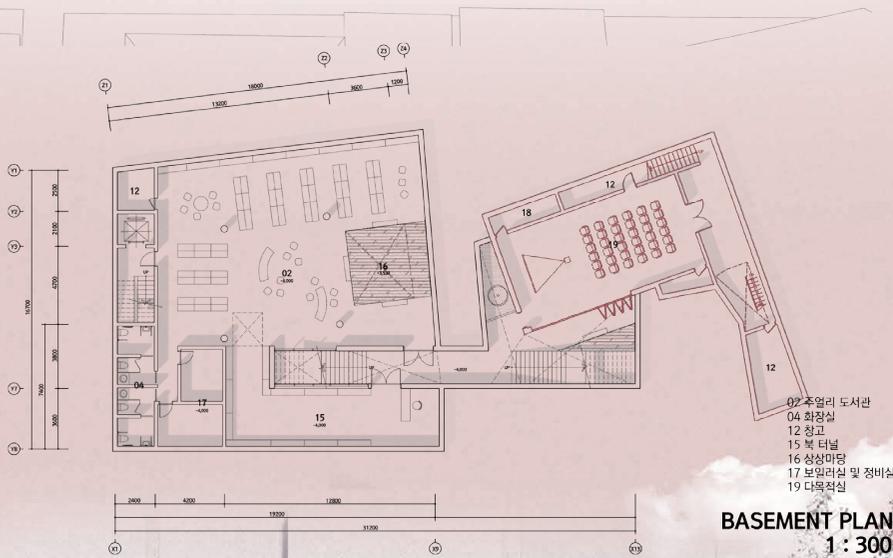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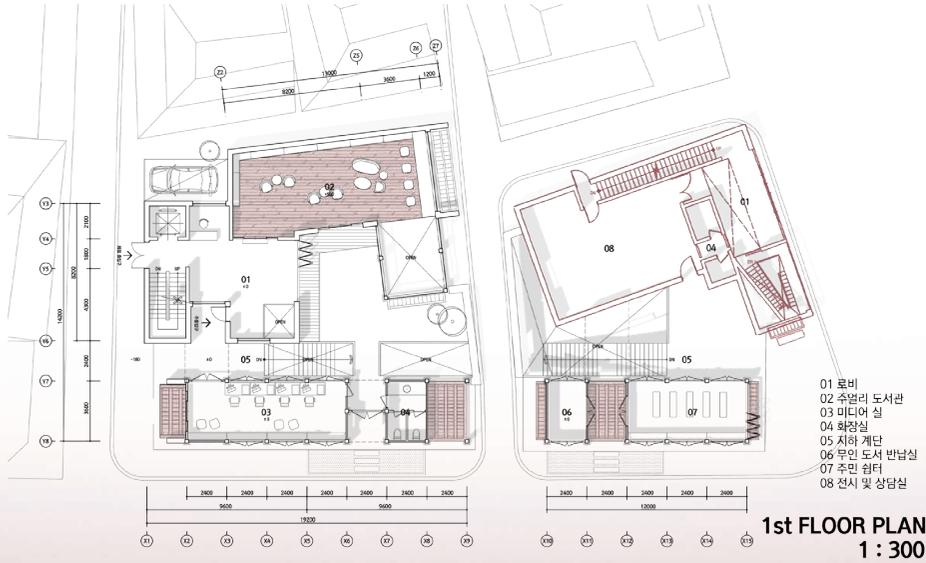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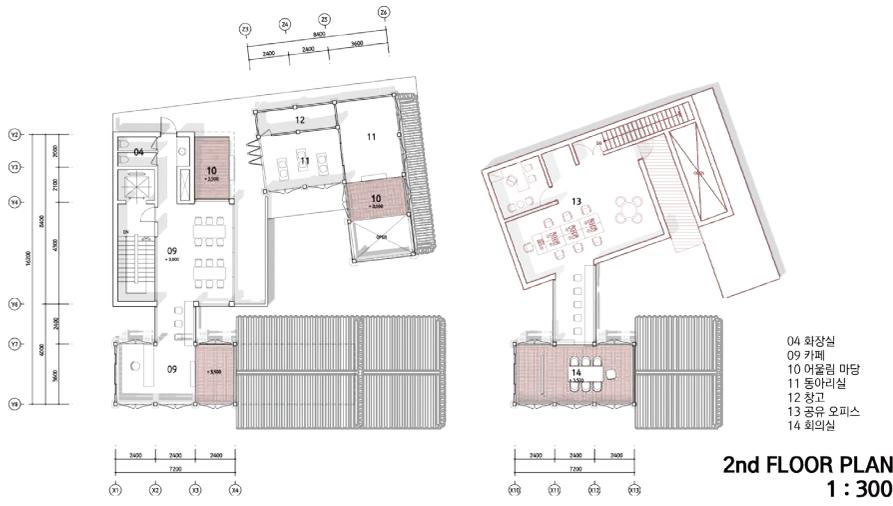
지하 썬큰이 있는 도서관



북 터널 부분 도서관



SECTION PERSPECTIVE



FRONT ELEVATION



“경양방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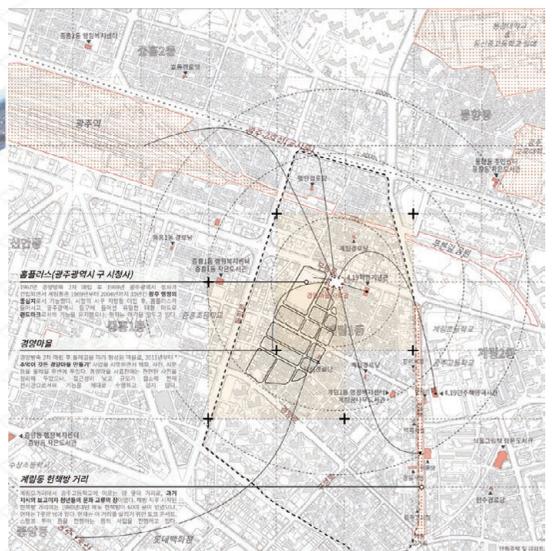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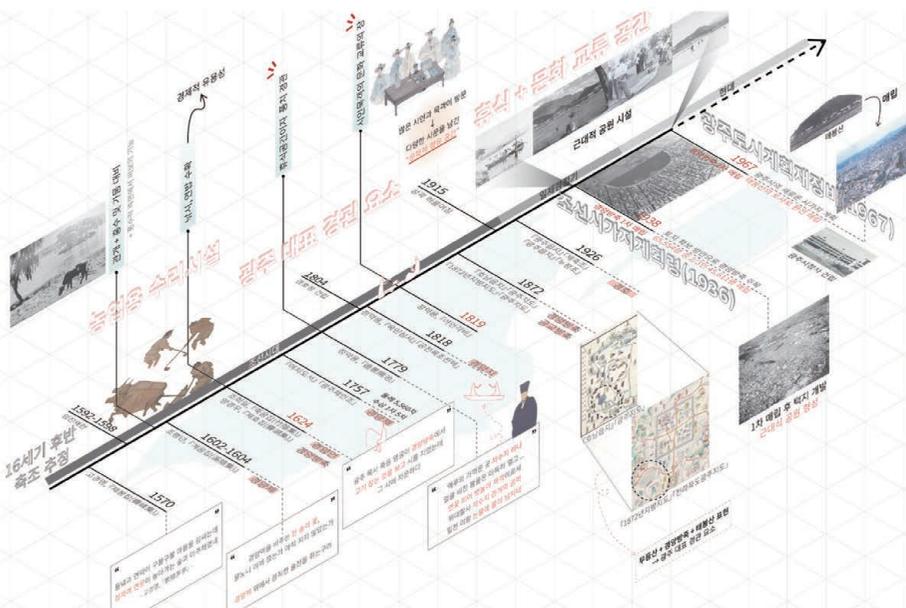
INTRO

광주광역시의 대표 경관을 떠올리면 첫 번째로 무등산을 꼽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축조되어 무등산과 함께 항상 언급되던 또 다른 대표 경관이 있었다.

바로 ‘경양방죽’이다. 경양방죽은 조선시대에 축조되어 긴 역사동안 광주광역시의 대표 도시 경관으로 주목받았다. 조선시대에는 농업용 수리시설이자 많은 시인과 목객이 방문한 문학적 향유 공간, 1967년 완전 매립 전까지는 남녀노소 누구나 휴식하고 소통했던 문화 교류 공간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현재는 완전 매립되어 더이상 과거의 의미를 이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잊혀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의미를 이어갈 수 있을까? 우리의 전통 공간인 마당의 개념을 경양방죽과 이어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경양방죽의 과거 기억을 잇고 계림 1동을 활성화 하고자 한다.

SITE



繼絶 : 조각을 잇다

경양방죽이 위치했던 계림1동은 광주광역시 구시청사가 위치했던 구도심으로, 과거 광주 행정의 중심지였으나 오늘날엔 재개발의 대상이 되었다. 현재 경양마을에는 경양방죽 사료관과 둘레길, 벽화 등을 두어 경양방죽을 알리고자 하지만, 사료관은 전시 콘텐츠가 매우 미흡하고, 접근성이 낮아 방문도가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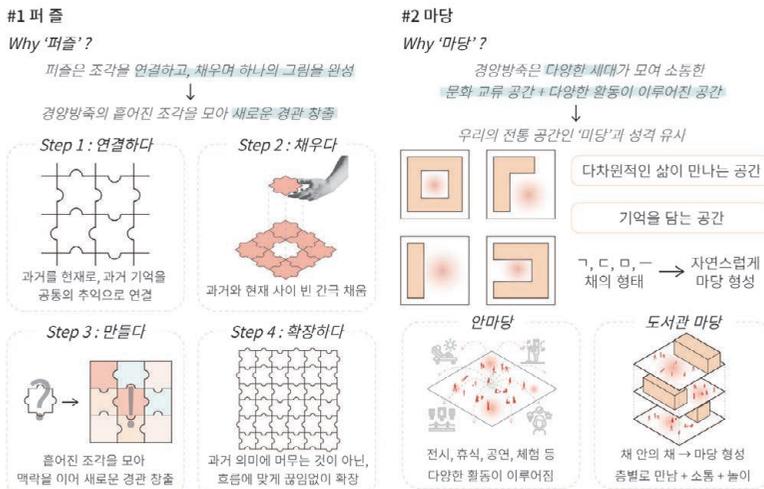
과거 경양방죽의 의미를 가장 잘 이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경양방죽은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진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전통 공간인 '마당'과 성격이 유사하다. 마당은 다차원적인 삶이 만나는 공간이자 기억을 담는 공간이다. 마당은 채의 형태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마당 공간을 가진 공공 커뮤니티 시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경양방죽은 문학적 향유 공간이자, 문화 교류 공간으로 기능했기에 이 특징을 잘 반영한 공공 커뮤니티 시설인 공공도서관과 현재 사료관을 보충한 경양방죽 문화관을 제안해 경양방죽의 기억을 잇고, 계림 1동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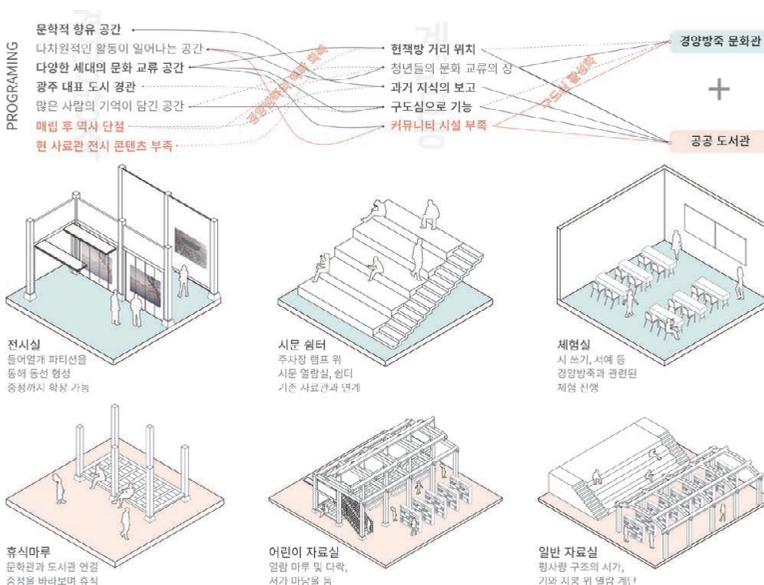
CONCEPT



HOW?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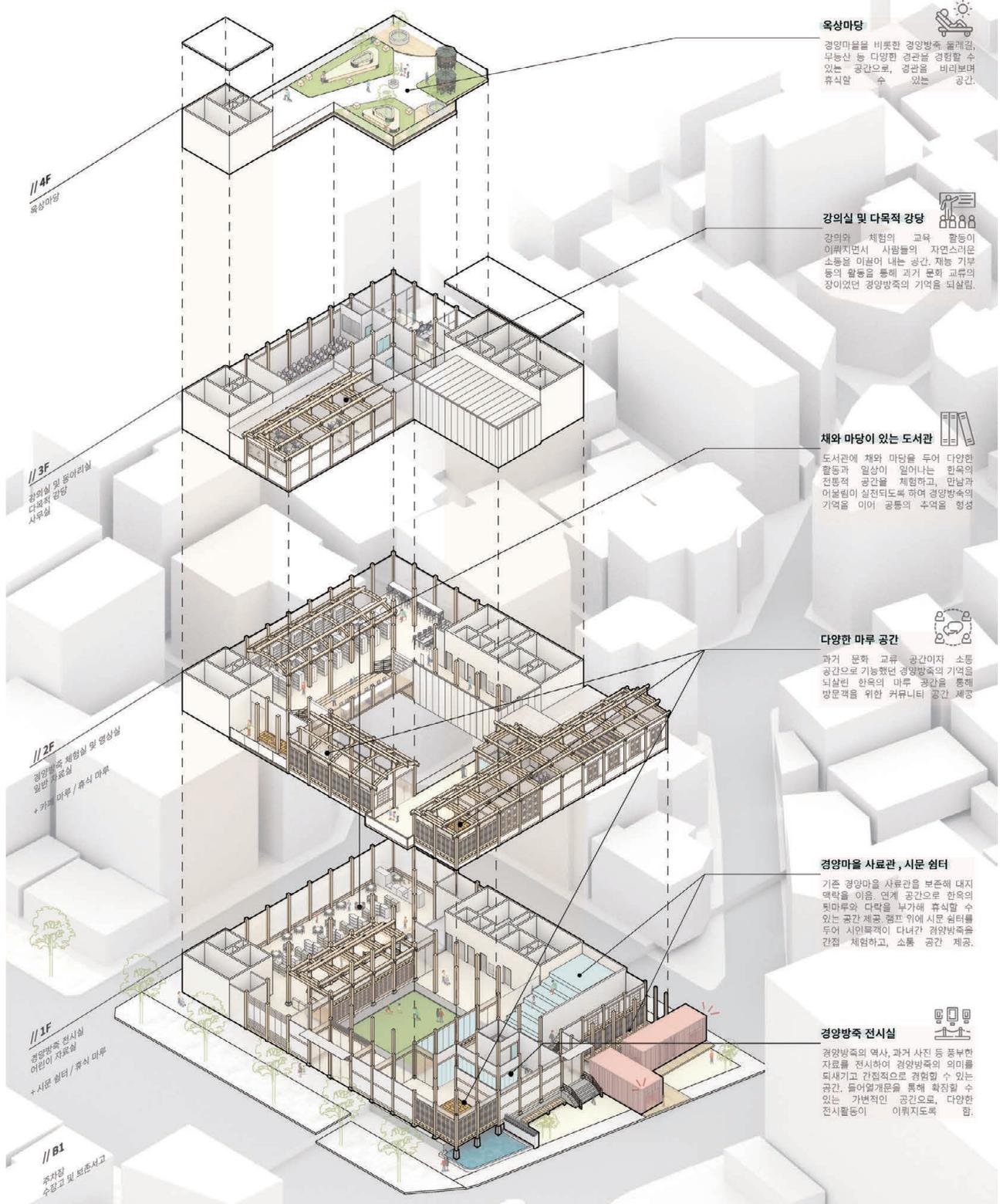


학생 공모전부분 특별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繼絶 : 조각을 잇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유이나



SCENE



경양방죽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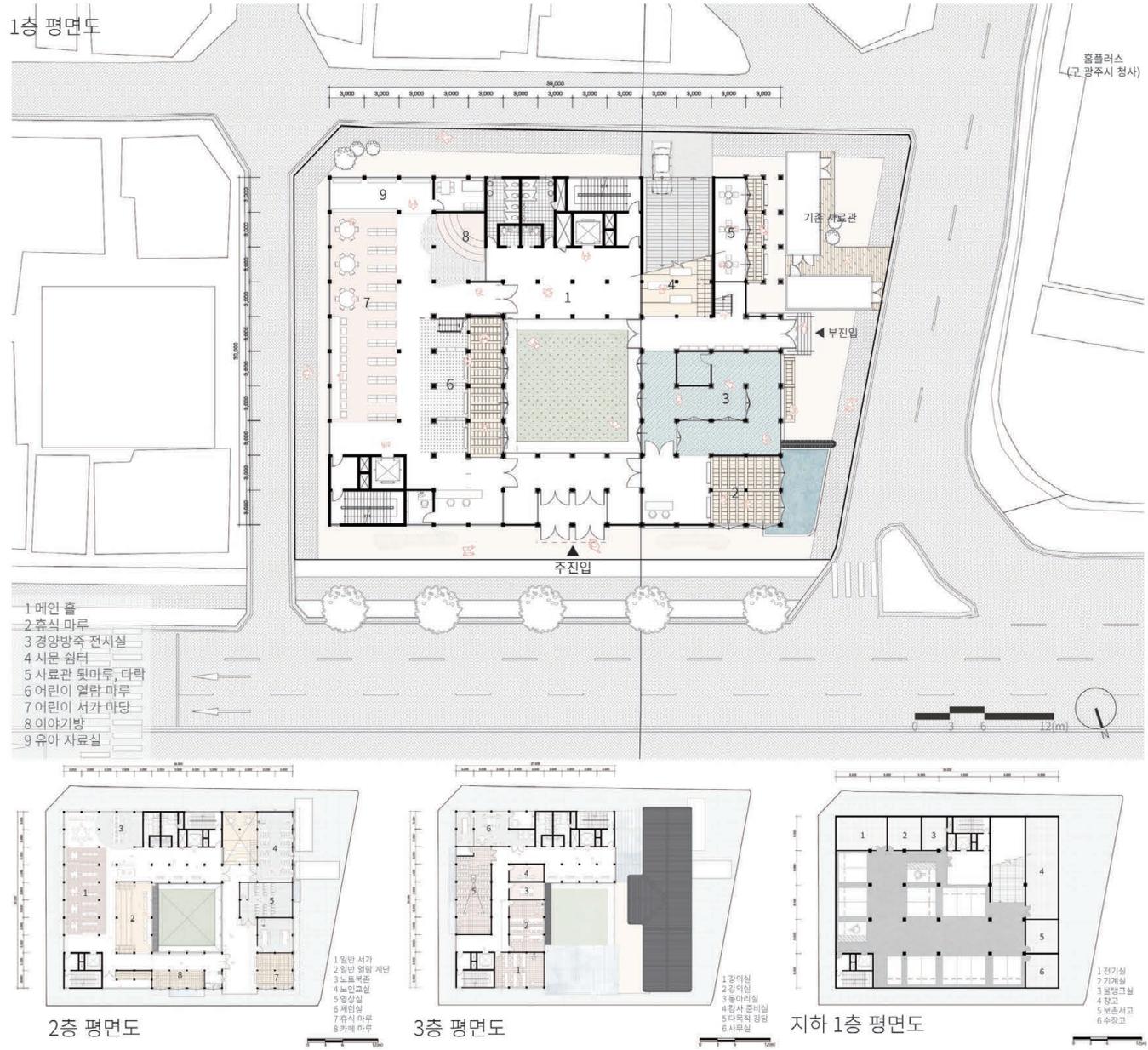
카페 마루



일반 자료실 서가



어린이 서가 마당



SECTION



STRUCTURE

- # 1 현대식 중목구조
 - 글루램(Glulam) 기둥 & 보
 - 철물 결합 → 결손 최소화 + 결속력 증가
 - 구조용 집성판 (CLT) 바닥
- # 2 한식목구조_지붕 경량화
 - 보토와 강회 사용 X → 지붕 경량화
 - 덧서까래 → 지붕 몰래 조절
- # 3 철근 콘크리트 구조
 - 내진 & 횡하중 고려
 - 코어 부분은 콘크리트 사용
- # 4 하이브리드 철물 접합
 - 코어 부분 + 중목구조
 - 콘크리트 + 초석

공공 도서관

도서관은 총 4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1층과 2층에 서고가 위치하여 있고 열람실은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 배치하였고, 곳곳에 빈공간을 만들어 전 층이 시각적으로 연결되며 빛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4층 열람실은 경북공과 청와대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장소로, 사색적인 분위기를 띄고있다.

기존 골목

대지와 접해있는 기존 골목에는 적은 수의 카페와 음식점이 자리하고있다. 이에 반응하여 인접한 부분에 근생시설을 배치하여 서로 활성화 되는 긍정적인 시너지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 중 두 칸정도를 중앙마당과 연결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미술관

미술관은 기존 정역대시랑재가 있던 장소 위에 위치, 아래는 비위 사람들의 통행을 원활하게 만들었다. 미술관 내부의 조도를 조정하기 위해 천장의 장치를 통해 간접등을 만들었다. 이는 한옥에서 마당에 반사된 빛이 들어와 내부를 밝히는 방식을 새롭게 해석한 장치이다. 옥상의 카페는 한옥으로 되어있어 전시관람 후 풍경을 보며 생각을 한기하는 장치로 직통된다.

대로변

대로변에 접해있는 대지에는 근생시설을 배치하여 늘어난 유동인구에 반응하였다. 이는 공공시설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직침출구조로 설계하였다. 곳곳에 트인 통로를 통해 마당과 서순으로 접근가능하게 하여 많은 유동인구를 컨트롤하려 하였다. 1층규모의 근생시설 집단은 반대편의 경북공단장과 반응해 위압감이 적은 스케일의 가로경관을 만들어낸다.

중앙 마당

중앙의 마당은 적극적으로 비워진 공간이다. 평시에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공연, 강의 등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는 실제로 사용이 되는 공간이다. 또한 마당을 통한 통풍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고, 마당에 반사된 빛은 도서관, 카페, 근생시설에 도달하여 내부를 밝힌다.

프롤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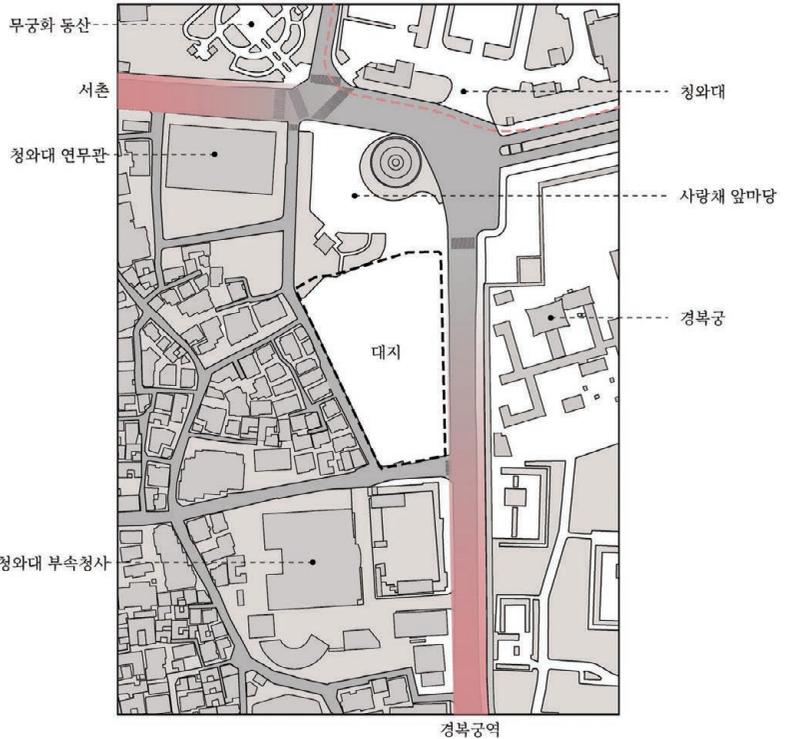
모두의 마음에 기록되는 한옥

몇십년 전만 해도 서울에 그 많던 한옥이 이제는 그 흔적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 근본적인 이유는 한옥보다

아파트 생활이 더 '편리'하기 때문이다. 편리, 수익성과 같은 측정 가능한 요소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한옥은 사라지지 않기 위해 달라져야 한다. 예전의 그 수많은 한옥이 몇백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해서 관리되고 수명이 연장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한 가구당 한옥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사람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논리에서 유지되기 힘든 한옥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공공적 측면에서 한옥을 바라봐야 한다. 이는 한옥이 특정 몇 사람이 아닌 모두에 의해 관리되고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이로써 한옥이라는 한국의 전통은 우리에게 의해 자연스럽게 기억되고 서로의 마음 한편에 자리 잡게 된다.

한옥은 지붕의 건축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한옥의 입면을 보면 지붕이 건물의 1/2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한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하지는 못한다. 본 프로젝트(공공기와)에서 지붕은 사람들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언덕이 되기도, 걸으며 풍경을 보는 전망대가 되기도, 다채로운 인상을 주는 얼굴이 되기도 한다. 이로써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이용되며, 전통 한옥과 다른 모습으로 한옥의 미래를 논의할 기회를 제공한다.

대지분석



청와대 개방으로 뒤바뀐 환경

청와대의 개방으로 인해 서촌은 순식간에 주목받는 동네가 되었다. 폭발적인 유동 인구의 증가에 비해 상점을 비롯한 문화시설, 공공시설의 부족은 방문객들을 떠돌이 신세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접근성에 비해 사용성이 부족한 기존 청와대 사랑채와 주차장 부지에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 플랫폼을 제안한다. 새로운 플랫폼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서촌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공공기와 - 기와로 기억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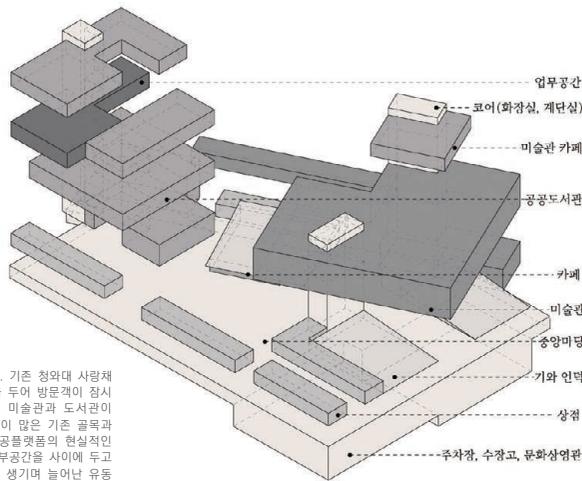
개인의 공간이던 한옥은 현대에선 적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한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시설이어야 한다. 다양한 사람이 기억하는 공간이 곧 오래 남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본 프로젝트는 한옥의 공공성과 기와지붕의 가능성을 실험한다. 한옥은 지붕의 건축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을 지붕이 덮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직접 사람들이 이용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본 프로젝트에서 지붕은 잠시 쉴 수 있는 언덕, 거닐며 풍경을 보는 다리, 다채로운 인상을 주는 얼굴이 된다. 이외에도 한옥의 경험을 담은 새로운 건물의 구성과 디테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한옥에 대해 생각하게 하며, 한옥의 미래를 논의할 기회로 이어질 것이다.

청와대 개방 이후 서촌은 방문객의 증가로 인해 머물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해졌다. 청와대 사랑채 부지는 서촌, 경복궁역에서부터 청와대로 연결되는 길이 만나는 곳으로, 유동 인구가 많아 이에 적합한 공간이다. 이곳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우선, 청와대 관람 후 머물 곳 없는 방문객들에게 열린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청와대 사랑채 앞마당 부분에 기와언덕을 배치해 그늘 밑에서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한다. 또한, 대지와 접해있는 기존 골목의 카페, 음식점 거리와 맞닿는 부분에 근생시설을 배치해 골목을 활성화한다. 대로변에 접해있는 대지에는 공공시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수의 창출이 가능한 근생시설을 배치하고 늘어난 유동 인구를 수용한다. 대로변 1층 규모의 한옥은 마주 보고 있는 경복궁 담장과 호응하여 위압적이지 않은 규모의 가로경관을 만들어낸다. 또한 건물의 중앙에는 적극적으로 비워낸 마당을 배치한다. 이는 한옥의 마당과 같이 실제로 '쓰이는 마당'으로 공연, 강의 등 다양한 행위가 이루어지며 평소에는 만남의 장소로 사용된다. 건물과 대지의 바깥으로 열린 다양한 외부공간은 경계를 흐리고 다양한 동선을 만들어 유동 인구를 분산시킨다. 이로써, 공공기와는 공공의 기억 심기를 통해 현재를 넘어 미래한옥의 모습을 제안한다.

프로그램 구성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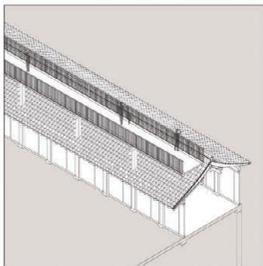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150의 5필지
 대지면적: 7667㎡
 건축면적: 5401㎡
 연면적: 13136㎡
 규모: 지상 4층, 지하 2층
 구조: 중목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열린 공공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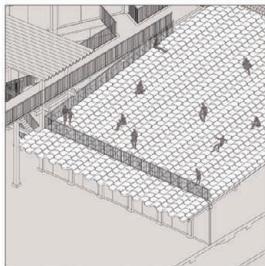
각 프로그램은 기존 도시맥락에 반응하여 배치된다. 기존 청와대 사랑채 마당과 새로운 마당에 접하는 공간에는 기와언덕을 두어 방문객이 잠시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기와언덕에는 미술관과 도서관이 그림자를 드리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통행량이 많은 기존 골목과 대로변에 인접한 부분에는 상점들이 위치하여 공공플랫폼의 현실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은 외부공간들 사이에 두고 입체적으로 만난다. 이로써 다양한 마당과 통로가 생기며 늘어난 유동 인구가 분산되어 쾌적한 가로환경이 형성된다. 또한 도서관, 상점, 카페와 같은 머무르는 공간은 서촌의 방문객들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기와지붕의 색다른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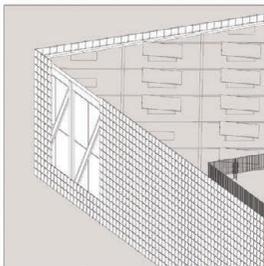
기와 다리

대로변 한옥 기와지붕 위에 놓인 하늘다리는 경복궁, 청와대의 가로경관을 담은 장치로 적용한다. 방문객은 이 다리를 건너면서 풍경을 보며 마치 지붕 위를 걷는 감각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중앙마당에서 행사가 있을 때는 관람석으로도 적용하게 된다. 이는 건물을 통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계단이 존재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게 설계되었다.



기와 언덕

기와언덕은 전통 한옥의 기와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600mm x 600mm 규격의 석재패널로 구성하였다. 이는 완만한 경사로 형성하여 있어 걸터앉아 있을 수 있는 오픈플랫폼이 된다. 방문객들은 마치 기와에 오르고 앉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중앙마당과 인접하여 내부에 설계된 기와언덕은 행사 시에 관람석이 되기도 한다.



기와 파사드

540mmx570mm 규격의 세라믹 패널로 계획된 기와파사드는 마치 전통한옥의 양기와 같은 곡면을 품고 있다. 이는 5' 기울어진 미술관 외벽에 부착하였으며, 기울어진 각도와 본연의 곡면 덕분에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빛의 각도에 의해 다양한 인면을 만들어 낸다. 이는 시간적으로 메스의 거대함을 덜어내 주며 주변과 스케일을 맞추는 장치로 작용하기도 한다. 은 경험을 하게 된다. 중앙마당과 인접하여 내부에 설계된 기와언덕은 행사 시에 관람석이 되기도 한다.

학생 공모전 부문 금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공공기와 - 기와로 기억심기

서울시립대학교 정재훈

한옥적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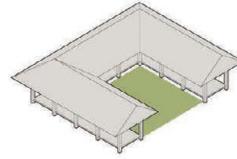
처마

한옥의 처마는 내 외부공간 사이에 전이 공간을 만들어 주며 내부에 들어오는 빛을 조절한다. 본 프로젝트의 도서관의 처마는 직사광선으로부터 책들을 보호해 주며 미술관 전장에 새롭게 해석한 빛 장치는 미술품에 집중할 수 있는 은은한 빛 환경을 만들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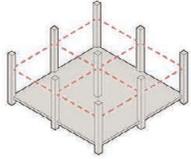
누하진입

누하진입은 별도로 내부 진입 과정 없이 건물을 통과할 수 있게 만들고 도달하는 공간의 이미지를 극적으로 만들어준다. 외부에서 본 프로젝트의 마당으로 진입하는 빛과 출입구는 누하진입의 형태를 띄고 있어 방문자에게 입체적인 진입 경험을 제공한다.



마당

한옥의 마당은 일본의 마당, 서양의 정원과는 다르게 보는 마당이 아닌 '쓰이는 마당'이다. 본 프로젝트 곳곳에 위치한 마당은 행사, 이동, 대기 등을 위한 '실제로 쓰이는 마당'이다. 또한 빛을 건물 내로 퍼트리며 공기를 순환하는 장치로써도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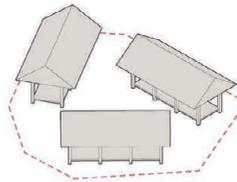
그리드

한옥의 그리드는 합리적 공간구성을 가능하게 하며 정돈되고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본 프로젝트는 6m x 6m 그리드를 기준으로 하여 설계되었고 전통 한옥 부분은 스케일에 맞게 3m x 3m 그리드로 설계되어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통일된 분위기를 만든다.



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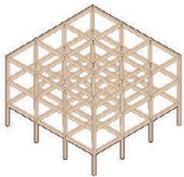
결구 된 구조의 드러냄은 한옥 구조의 진실성을 보여주며 그 자체로 자연스러워 보인다. 본 프로젝트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결구적 이미지는 구조적으로 진실함을 보여주며 그 자체가 일면이 된다.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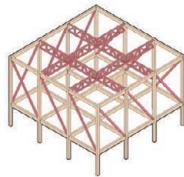
주어진 대지에 순응하여 배치된 한옥은 각 채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다양한 외부 관계를 만들어낸다. 본 프로젝트는 삼각형 형태로 되어있는 대지에 순응하여 프로그램을 배치하였고, 각 프로그램은 입체적으로 만나 다양한 내외부 관계를 만들어 낸다.

구조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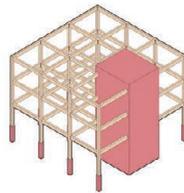
중목구조

한옥의 구축방식인 중목구조를 사용해 구조적 통일감을 주었다. 중목구조는 그 자체로 입면이 될 수 있으며 주변 경복궁과 서촌의 풍경과 잘 어울리진다.



목조 트러스

미술관의 긴 스패를 구현하기 위해 트러스 공법을 사용하였다. 트러스 또한 목조로 하여 전체적으로 목조건축의 이미지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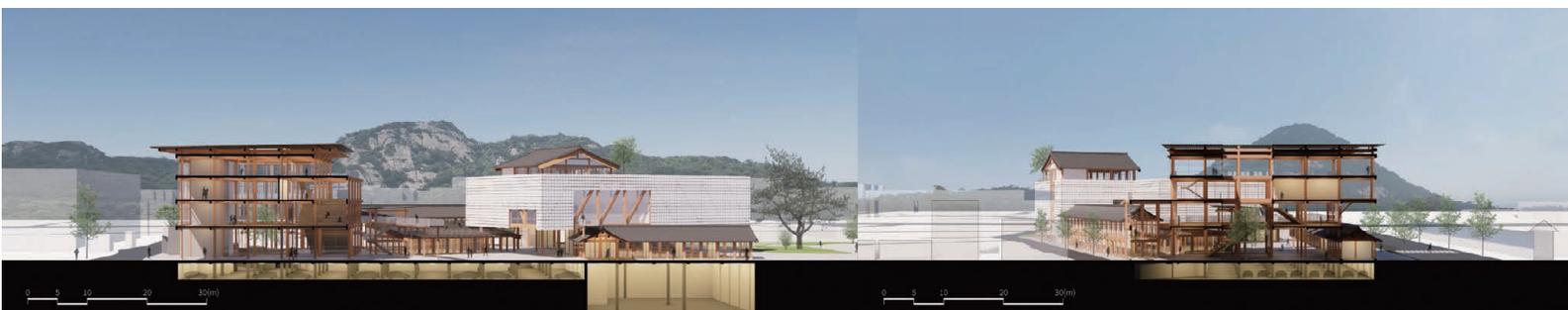
철근 콘크리트

지하 부분을 기반으로 보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해석하였다. 이는 지상의 목구조를 보강하며, 지하 프로그램이 갖는 높은 층고를 구조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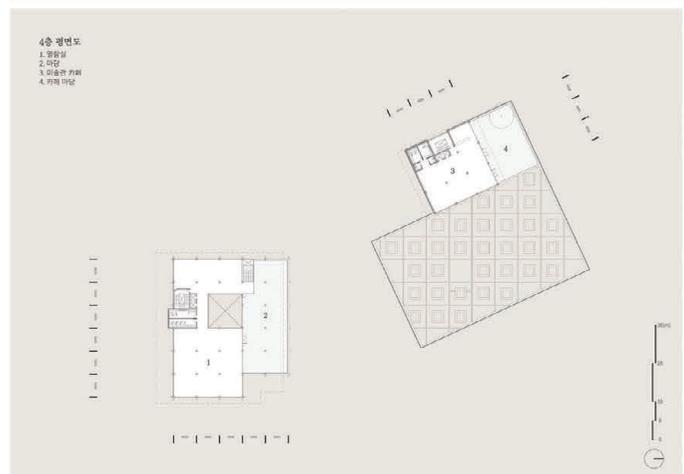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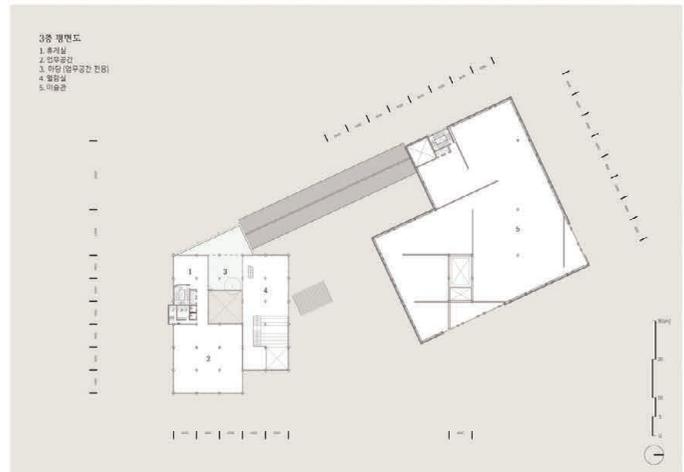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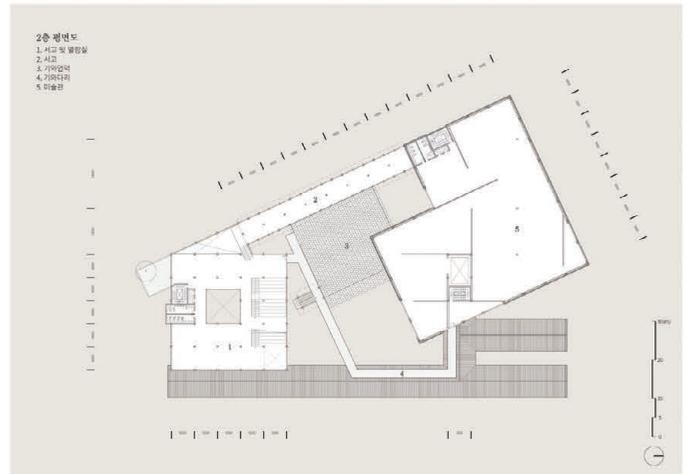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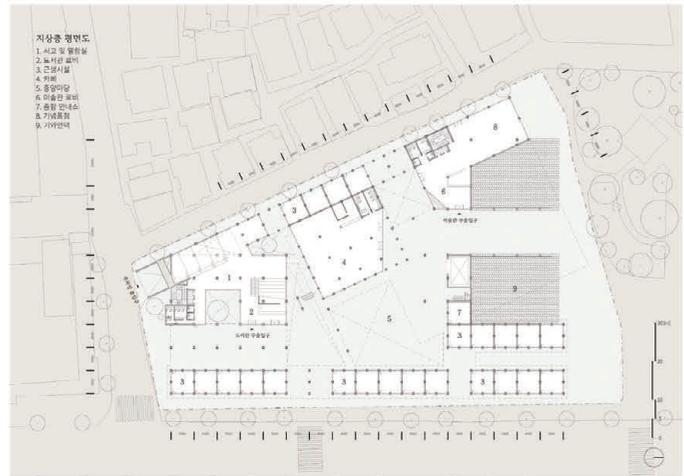
단면도



투시도



평면도



-um

비움 그리고 다시 채움

위 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17-26 외 6필지
 건 폐 율: 37.1%
 용 적 륜: 61.0%
 대지면적: 2,083㎡
 건축면적: 773㎡
 연 면 적: 1,270㎡
 규 모: 지상 2층
 용 도: 제 1종 일반주거지역



프로로그



우리가 살아가는 집은 주거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하나의 집은 거주자의 다양한 감정과 기억을 담고, 여러 집은 모여서 하나의 마을을 형성한다. 그러나 오늘날 소외되는 지역이 생기고 방치되는 주택이 늘어나면서, 마을이 사라지고 사람들 간의 접점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우리는 과거의 기억은 남긴 채 새로운 사람들과 다양한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지분석

대상지 선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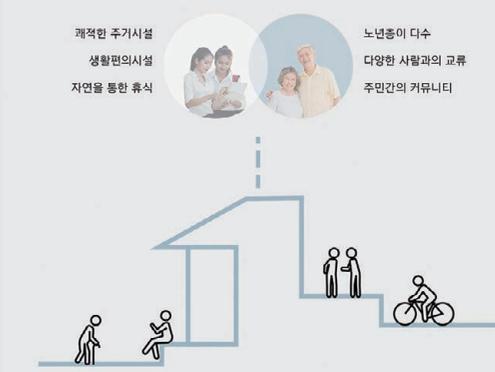
- 1 빈집 밀집 구역 중 빈집 건물 간의 거리가 가까운 곳
- 2 한옥 및 주택이 위치하여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는 곳
- 3 대학생들의 유입이 많고 주거시설이 필요한 곳



컨셉

<p>재료 우드 + 콘크리트 + 유리</p> <p>전통 재료인 기와, 우드와 현대 재료인 콘크리트, 유리를 함께 사용</p>	<p>구조 기와 + 마루 + 기둥 + 창호</p> <p>빈집을 철거하되 한옥의 구조인 마루 처마, 창호를 남겨두어 지역적 특색을 유지</p>	<p>형태 기, 도, -자의 매스</p> <p>한옥의 형태인 기, 도, -를 엮어 매스를 구성. 파사드, 계단을 통해 연결성을 추가</p>	<p>공간구성 공용 공간으로 방과 방이 연결</p> <p>거주자들 간의 식사,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용 공간을 실의 중간에 배치</p>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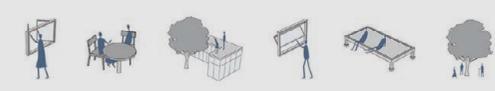
인물 관계도



대학생들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고 마을 주민에게는 다양한 휴식 공간 및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한다. 이 같은 대학생의 유입은 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조성하고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준다. 대학생들은 정형화된 공간을 벗어나 자연을 즐기며, 다양한 사람과 소통한다. 오래된 주택만큼이나 긴 시간 마을에서 생활해온 마을주민은 프로젝트 '-um'의 대청마루, 사랑채, 뒷마루와 같은 한옥의 공간을 통해 다른 세대와의 자연스러운 접점을 늘려가고 새로운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행동 다이어그램

다양한 형태의 공간은 거주자와 마을 주민에게 새롭게 경험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창을 밀거나, 들어 여는 방식, 마루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한옥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행동 양식을 끌어오자 했다. 마루에 모여 앉거나, 종정을 바라보는 행동들 통해 건물의 외 내부에서 충분히 자연을 감상하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즐길 수 있다.



형태 발전과정



-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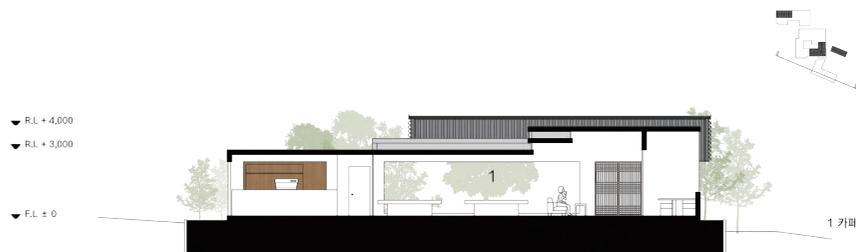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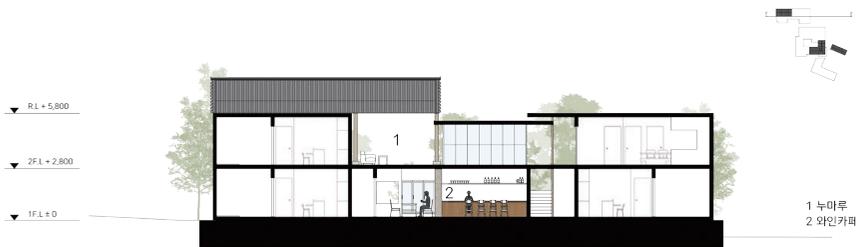
집은 외부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고 생활할 공간의 의미를 넘어 사람을 연결하고 삶을 기록한다. 그러나 지역 과소화로 인해 농촌 지역 빈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빈집이 방치되고 있다.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분위기에 영향을 주며, 사람 간의 거리를 감소시킨다. 이에 집에 담긴 과거를 기억하고 그 위에 새롭게 감정을 담기 위한 방안으로서 노후화 주택 재생 및 한옥의 재해석 방안을 제안하였다. 프로젝트 '-um'을 통해 노후화 주택을 철거 및 개선하여 대학생을 위한 공동체 주택을 계획했다. 이 과정에서 한옥과 현대 건축을 결합하여 한옥의 지속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지는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17-26 외 6필지로, 노후화 주택이 밀집된 지역 중 하나이다. 노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고, 인근 전북대학교를 통한 대학생들의 유입이 많은 지역으로 한옥의 재해석을 통해 전주라는 지역 특색을 활용하고자 한다.

설계의 기초는 과거의 기억을 남긴 채 새로운 가치를 채움으로써 전통을 재해석하고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한옥의 요소인 재료, 구조, 형태, 공간 구성에 이르기까지 건축에 적용함으로써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보여주고자 한다.

프로젝트 '-um'은 경사진 대지를 따라 c, m, r동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주거시설과 공유시설로 구성되어 거주자에게는 쾌적한 거주환경을, 마을 주민에게는 다양한 휴식 및 커뮤니티를 제공한다. 건물 외 내부에서 충분히 자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공간 및 경관을 계획하고 피트니스, 사랑채와 같이 공간을 정의하여 각 특색에 맞게 내부를 구성하였다. 각 공간은 마루, 계단, 공유공간을 통해 연결되고 엮이게 된다.

단면도



학생
공모전부분
은상

건축공간연구원장상

-um

경희대학교
신현지
손은우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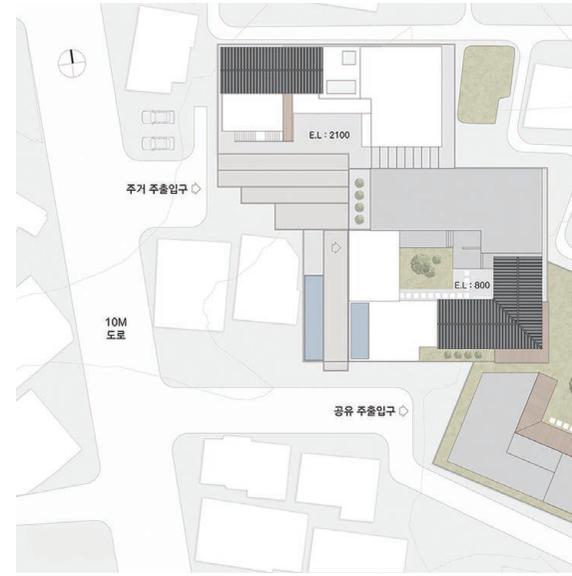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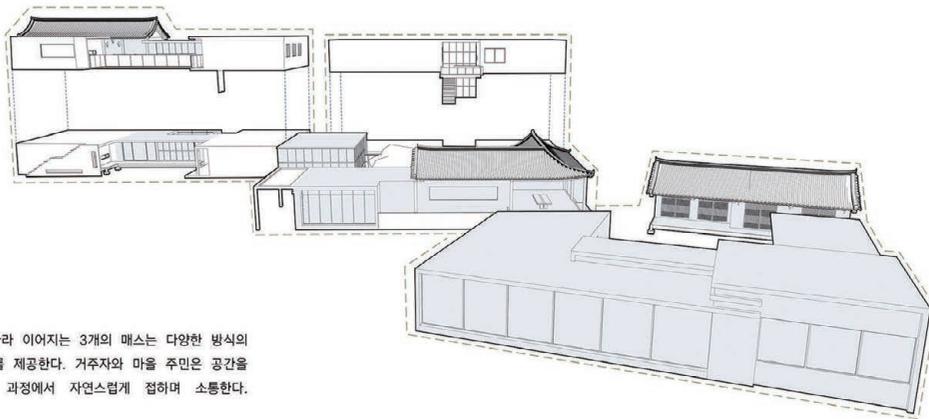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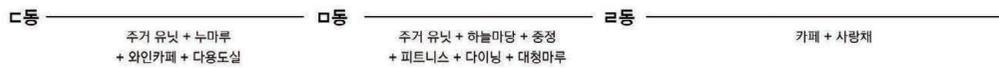
2층 평면도



배치도



공간 프로필



경사를 따라 이어지는 3개의 매스는 다양한 방식의 커뮤니티를 제공한다. 거주자와 마을 주민은 공간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며 소통한다.

주거 유닛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거 유닛으로 크게 2인, 3인 유닛으로 구분된다. 실내 인테리어는 한옥에서 착안한 좌식 형태의 주방이 위치해 있으며, 각 방은 양여닫이 문을 통해 주변의 자연과 한옥을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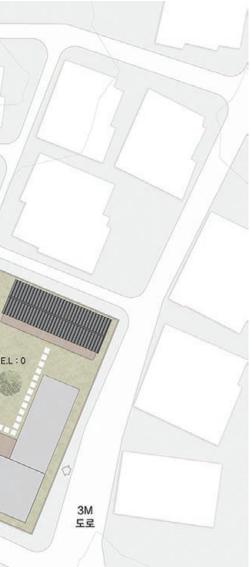
2인 유닛



3인 유닛



입면도



ㄷ동

누마루
ㄷ동 2층에 위치한
오픈된 휴식 공간



와인카페
와인과 책을 즐기는
커뮤니티 공간



ㄹ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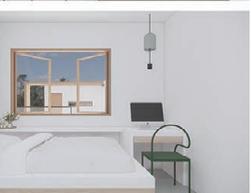
하늘마당
층정을 내려다보며
사색할 수 있는 공간



피트니스 및 다이닝
대청마루에서 확장된
형태의 공간들



대청마루
자연과 계절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전이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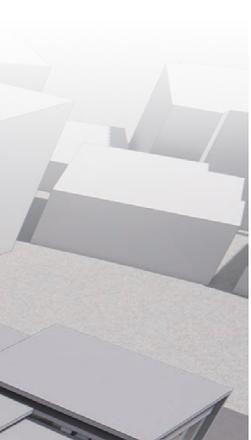


ㄹ동

카페
창을 통해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ㄷ자 형태의 공간



사랑채
좌식과 입식,
두 가지 형태의
소통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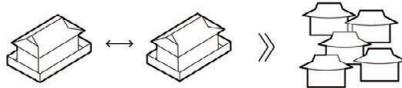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 우리 전통 한옥은 단위 세대 혹은 동질 세대 거주 공간으로써 단위 주택 형식으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짐.
- 시화라는 시대 흐름에 공동 주거 형식의 등장이 필연적일 수 있으나 서구에서 직수입된 주거 개념, 공간 구성과 경제 논리에 편승해 현재 지어지고 있는 주거 형태들은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우리의 전통 건축의 장점과 서구 공동 주택의 장점들을 융합시켜 본다면 시장 논리에 의해 사라져가는 한옥을 지켜내고, 최신기술들을 적극 도입하여 한옥 주거 환경이 개선된, 한옥의 정체성이 간직된 우리만의 공동 주택을 제안하고자 함.

1. 다같이 모여 사는 한옥

-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단독 주택
-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회복



2. 자연과 어울리는 한옥

- 지역정체성을 간직한 고유한 마을
- 한옥의 정체성을 간직한 고유한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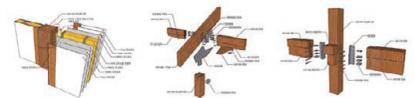
3. 별 좋고 전망 좋은 한옥

- 기존 경사지 한옥: 채광, 조망, 통풍에 불리
- 테라스 한옥: 충분한 채광, 조망, 통풍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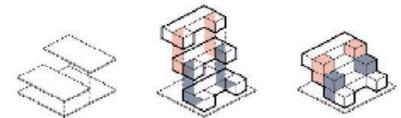
4. 튼튼하고 쾌적한 한옥

- 신한옥 공법을 도입해 주거 성능 강화
- 주요 구조부 구조 성능 강화



5. 경제적인 한옥

- 경사지 적응을 통한 용적률 증가
- 최상층 증층 한옥 도입해 경제성 확보



6. 사시사철 보기 좋은 한옥

- 기존 구릉지 개발 방식 탈피
- 자연 지형과 어울리는 한옥마을 창출



泰 · 掬 · 所 · 한옥

泰(아름다울 태) · 掬(쏟아올릴 라) · 所(바 소) - 경사지한옥 보존과 주거개선을 위한 제안

한옥 테라스 하우스 계획안

한국의 '전통 건축'은 일제 시대 '전통성 말살 정책'과 이어진 '한국 전쟁' 등으로 인해 점차 축소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있던 한옥은 1960년대 이후 수입된 서양 문물과 주택의 서구화로 인해 그 '전통성'을 잃어갔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좁은 땅에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의 형태가 구축되어 갔고 점차 '우리의 것'을 잃고 우리만의 주거 양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또한 빼앗아 갔다. 만약 우리가 외부영향없이 자생적으로 한옥을 발전시켰다면 단독주택 위주의 한옥이 아닌, 이웃과 정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들만의 독특한 한옥공동주택이 지어져 있지 않을까 다함께 살고 싶은 마음을 품은 그런 한옥이...

우리 전통한옥은 단위 세대 혹은 동질 세대 거주공간으로, 즉 단위 주택 형식으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산업화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 팽창화에 따른 폭발적인 주택 수요를 공동주택이라는 주거 형식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고, 기술의 발달 등으로 주거 환경 개선과 편리성 증대, 유지관리 용이성 등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65% 이상이 거주하는 주거형태가 되었다. 도시화라는 시대 흐름에 공동 주거 형식의 등장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으나 서구에서 직수입된 주거 개념, 공간 구성과 경제 논리에 편승해 현재까지 지어지고 있는 주거 형태들은 재고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전통 건축의 장점과 서구 공동주택의 장점들을 융합시켜본다면, 시장 논리에 의해 지금도 사라져 가는 한옥을 지켜내고, 최신 기술들을 적극 도입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된 한옥의 정체성이 간직된 우리만의 공동주택은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구릉지에 위치한 한옥들이 고층 아파트로 대체되고 산허리가 깎여나가는 개발 방식으로 더 이상 사라지지 않고 최대한 자연 환경을 보존하며, 햇볕과 바람이 가득한 전망 좋은 마당이 있는, 산세를 담은 지붕들이 가득한 경사지 공동 한옥을 제안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 선조들의 더불어 사는 정이 흐르고 우리 정서와 멋이 깃든 한옥이 자리 잡은 사람을 품고, 이웃을 품고, 다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을 품은 사직동 27-4번지 예쁜 구릉지에 위치한 한국형 테라스 하우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마당을 품은 한옥 / 한옥의 정체성을 담은 공간들



대문채



대청



1층마당



학생 공모전부문 은상

건축공간연구원장상

泰(태) · 掬(라) · 所(소) · 한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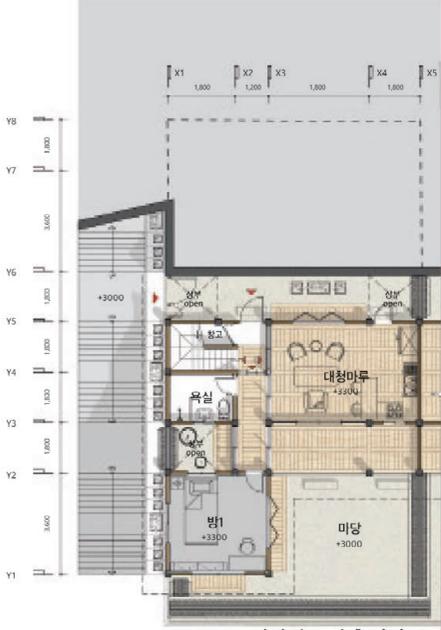
- 경사지한옥 보존과
주거개선을 위한 제안

명지대학교
황혜선
정민하
채윤서

가족, 삶을 품은 한옥 / 성장 가능한 융통형 한옥

- 가족의 생애 주기에 따라 최소형 2인 주거에서 완성형 3세대(6인)주거가 가능한 성장형 한옥
- 자녀의 결혼 등으로 인한 가족 수 변화에 따라 부분임대 가능한 융통형 한옥
- 주인세대, 임차세대 어느 곳에서나 마당, 대청 처마 등 한국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한옥

단위주호 평면도 / 1개 필지개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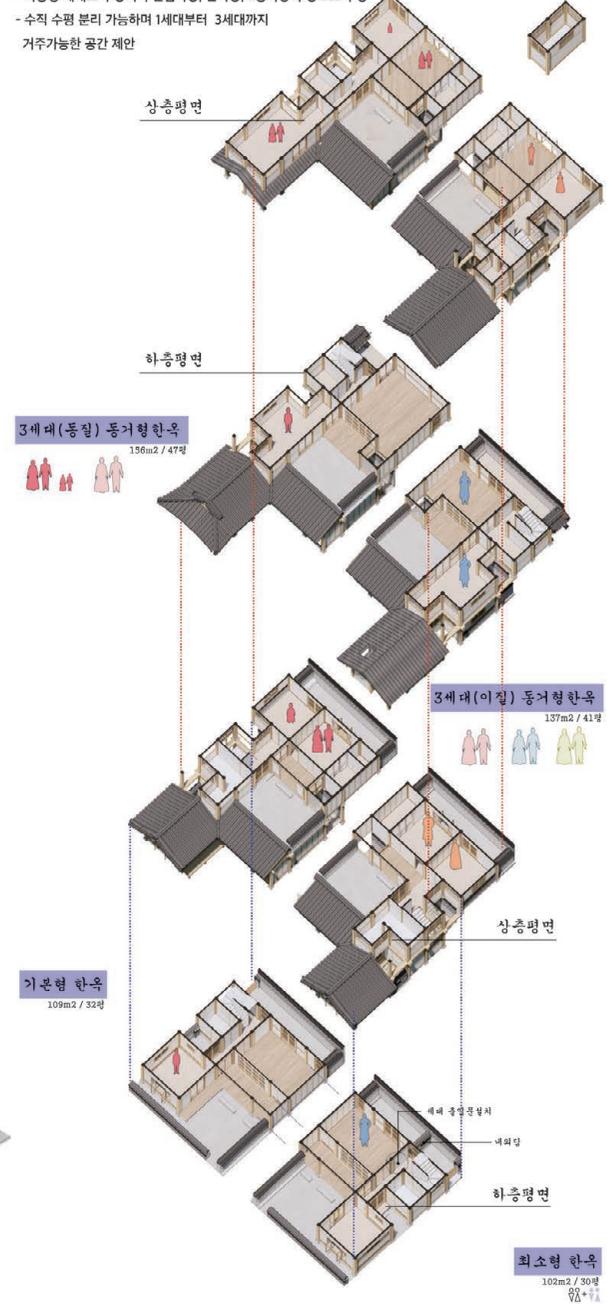
단위주호 하층 평면도
면적: 54m² / 축척: 1/120



단위주호 상층 평면도
면적: 56m² / 축척: 1/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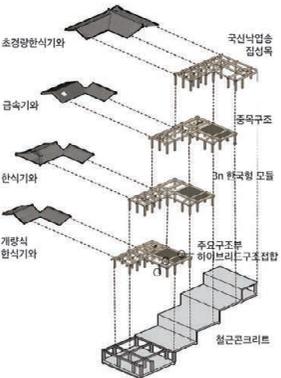
공간구성개념도

- 모든 세대는 마당, 대청, 뒷마루를 가지는 개별세가 골목길로 이어지는 공간 구성
- 복층형 세대로 구성되며 진입마당, 안마당, 2층마당 후정으로 구성
- 수직 수평 분리 가능하며 1세대부터 3세대까지 거주가능한 공간 제안



하이브리드 구조개념도

- 주요 구조부, 하이브리드 접합
- 철근콘크리트+종목구조 구조 안전성 증대



주동 구성도 / 4세대혼합형 / 2개 필지공동개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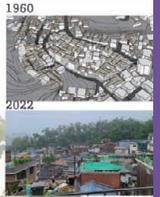


산세에 따라 적용 길이 조절, 단위 주호 길이 조절 가능

우리, 마을을 품은 한옥 / 구릉지 보존이 가능한 자연순응형 한옥단지

- 구릉지에 위치한 한옥들이 고층아파트로 대체되고 산허리가 깎여나가는 개방방식 지양
- 최대한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햇빛과 바람이 가득한 전망좋은 마당이 있는 단지
- 산세를 담은 지붕들의 가득한 경사지 공동한옥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체 단지 조감도 / 34개 필지 공동 개방식



서울시 동부구 사직동 27-4번지 외 33필지 일대



단지 입, 단면도



우리, 마을을 품은 한옥 / 구릉지 보존이 가능한 자연순응형 한옥단지

- 구릉지에 위치한 한옥들이 고층아파트로 대체되고 산허리가 깎여나가는 개방방식 지양
- 최대한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햇빛과 바람이 가득한 전망좋은 마당이 있는 단지
- 산세를 담은 지붕들의 가득한 경사지 공동한옥을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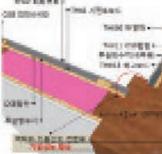
초경량 한식기와



당골막이 기밀성 확보



벽체부 기밀성 확보



구조부 기밀성 확보



국산 낙엽송 집성목



遇(우) 櫻(영) 宇(우) 만나서 어우러지는 지붕



한옥의 현 상황



한 서울 경관은 종교 높은 현대 건축물과 거북목 간 전통건축물이 수적으로 만나 있다. 이는 본과 반이 부딪히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여기서 본과 반이 만나 낚는 순간, 기뻐하고 남는다. '물방울' 프로젝트는 현대 건축이 그 속에서 생기는 물방울처럼, 슬로우 리빙 새로운 모습을 통해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고자 한다.

설계 개념



기둥의 문화 사이 충돌은 요소적으로 이동을 주장했다. 때문에, 전통 건축물과 현대 건축물이 만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가지고 현대에서 접목되어 두 가지는 뒤섞이고 더 단결을 높여가야 한다. 그 속에서 한국건축의 정체성이 정의될 것이다. 그 노력의 일부로 '물방울'을 제안한다.

한옥 배치의 과정



한옥의 구조



한옥의 지붕



대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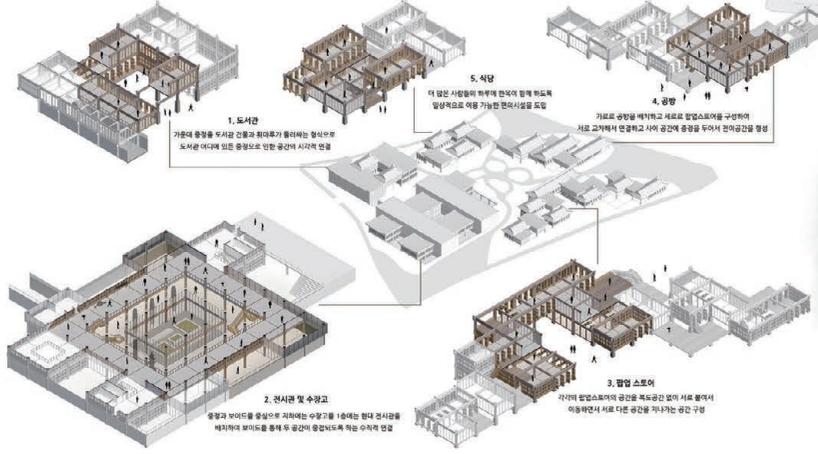
사이트 남쪽에 울리브를 기준으로 남쪽으로 보아도 필딩스톤과 적목으로의 연결과 한옥이 위치해 있다. 그래서 사이트 내에서는 전통적인 모습과 현대적인 모습의 대립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주변으로는 저층, 목조 주택지역과 인사동 및 종로구 주택지역과 연결해 있어서 일대에서 접근성이 우수하다.



한옥의 공간 구성



한옥의 프로그램



단면도



학생 공모전부분 동상

건축공간연구원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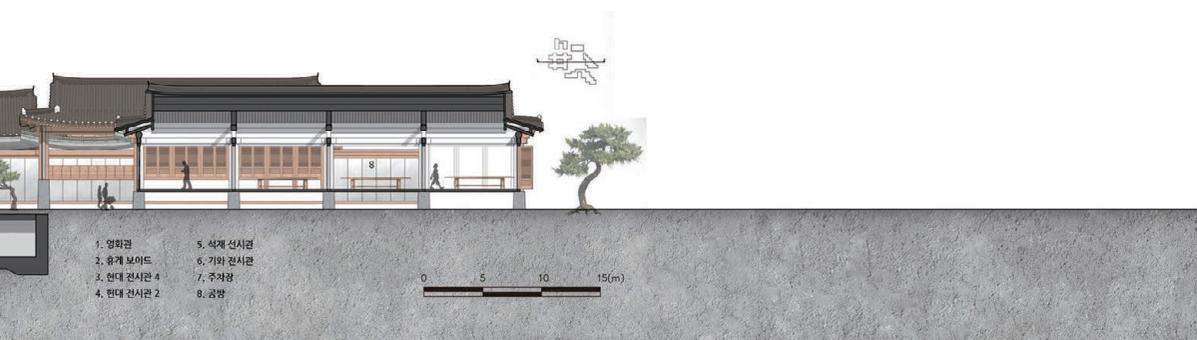
『遇(우) 櫻(영) 宇(우)』 ; 만나서 어우러지는 지붕

현 서울 경관은 좁고 높은 현대 건축물과 가로로 긴 전통건축물이 수직으로 만난다. 이는 판이 부딪히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역사는 판들이 만나는 순간, 기록되고 남는다. '遇 櫻 宇' 프로젝트는 판의 층돌 속에서 생겨나는 틈과 어우러짐, 층돌로 인한 새로운 형상으로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고자 한다.

한옥의 생명력인, 애착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한옥 거주자가 아닌, 시민 전체이다. 따라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택했다. 현대적 건물과 문화재의 대비가 잘 나타나는 경복궁 옆 공터를 대지로 선정했다. 이곳은 서울의 5대 궁의 중심이자 인사동과 삼청동을 잇는 문화벨트의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다. 자연스럽게 한옥이 스며들 수 있도록 대지 내 그리드 밀도를 조절해 길을 형성하였다. 길을 지나는 사용자의 발걸음을 통해 오피스, 관광지, 문화재를 연결하고 심적 거리를 좁힌다. 또 판이 부딪히는 모습을 지붕의 재료로 표현했다. 두 지붕의 층돌은 한옥의 기와선이 만나는 모습과도 닮았다. 전통건축물과 현대 건축물의 가로, 세로관계를 공간배치로 재해석하여 계획했다. 마지막으로 복도를 제거하고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곳에 '마루'개념을 도입했다. 이곳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동시에 실제 공간을 연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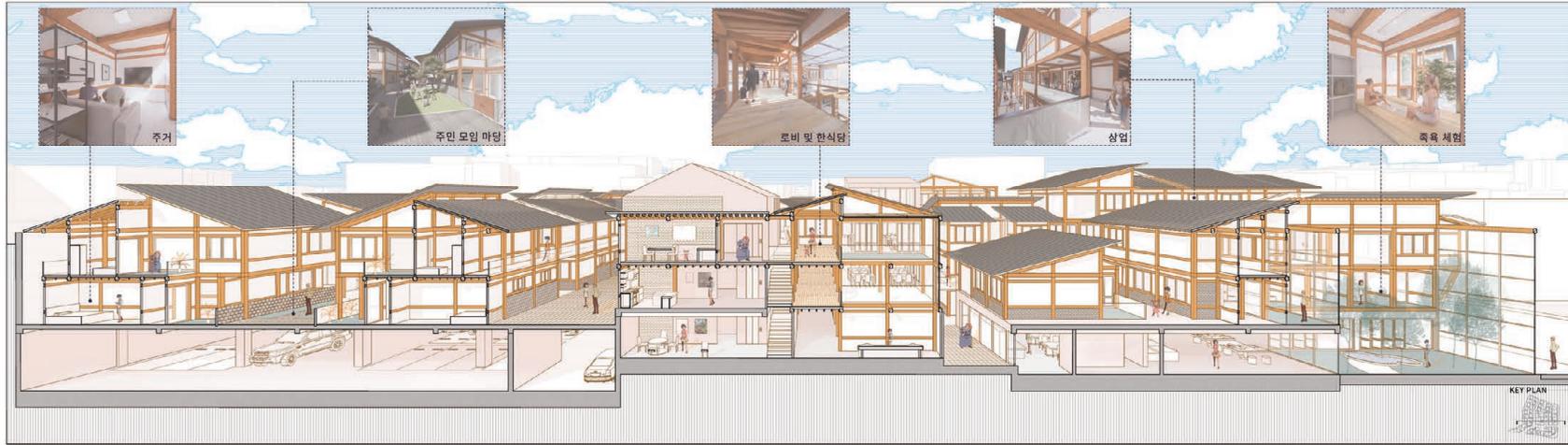
과거와 현재의 연결을 위해 수장고를 전시장으로 사용한다. 문화재 복원 또는 실제 한옥이 될 자재를 공개하여, 전시품이 현재와 미래로 이어짐을 느끼게 한다. 이는 한옥을 지키고자 분투하는 이들의 진심을 공유하는 공간이다. 각 건물의 보이드는 공간을 겹쳐 보이게 해, 전통과 현대를 시각으로 연결한다. 전통과 현대적 공예를 함께 경험 가능한 공방, 한옥에서 트렌디한 제품을 만나는 팝업스토어로 한옥의 현대적 면모를 경험한다.

가치의 층돌은 모순적으로 이들을 연결한다. 때문에, 전통과 현대의 건축물이 만나는 모습이 이질적일지라도,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 가치들은 끊임없이 부딪히고 어울려야 한다. 그 속에서 한국건축의 정체성이 정의될 것이다. 이 노력의 일부로 '遇 櫻 宇'를 제안한다.



『遇(우) 櫻(영) 宇(우)』 ; 만나서 어우러지는 지붕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변지영
전재엽
남가근



북촌잇길

井 배치구성

북촌의 흐름이 시작되는 곳
북촌의 옛 길인 골목을 유지하며
도시형 한옥의 환경을 개선하여
새로운 북촌의 흐름을 만든다. 이어주며 북촌의 시작점이 되어준다.

井 여는 말

1930년대 시대 흐름에 맞춰
보급된 북촌의 도시형 한옥으로
이루어진 북촌 한옥마을은 작은
안마당을 끼고 있는 협소한 주택
이다. 도시형 한옥이 가진 단점을
개선하는 방향을 통해 도시형
한옥의 새로운 형태를 제안한다.
개선의 시작은 기존 땅이 가지고
있던 길의 흐름을 존중 하고
새롭게 제안되며 쌓이는 한옥의
형태는 북촌한옥의 특징을 재해석
하여 북촌 흐름의 시작을 알린다.

(1940년대 이전의 지적도와 옛길)

井 공간구성 一

기존의 도시형한옥 도시형한옥의 확장 확장+마당변형 확장된 채와 채의
결합을 통한 마당확장

井 공간구성 二

기존 북촌의 거주지로의 진입은
골목을 통해 이루어 졌다. 골목들을 한 대 모아 마당을
형성하고 남겨진 채들을
수직으로 쌓아 공간을 확장한다.

井 공간구성 三

기존 밀집되어 지어진 도시형 한옥은
버려지던 채와 채 사이 틈을
채와 채 사이 조밀한 틈이 있다. 이용한 작은
공간들을 재사용한다. 이 틈은 채들을
연결하여 공간을
연장하거나 층선이
되여주기도 하며
작은 마당이 되어주기도 한다.

井 동산



북촌 잇-길

1. 과거와 현재를 잇다.

북촌은 1930년대 이후 행정구역 확장과 도시구조가 근대적으로 변형되며 인구 수용을 위해 대형 필지와 임야를 나누어 중소 규모의 도시형 한옥을 지으며 형성되었다. 대상지는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 주택, 노후화가 되어버린 30년대의 한옥 등 여러 시대의 것들이 섞여버려 이제껏 쌓여온 북촌의 색을 잃어버리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한 켠을 옛것 위에 쌓아 북촌의 흐름을 다시 이어주며 북촌의 시작을 알린다.

2. 사람과 사람을 잇다.

오래전부터 북촌에서 지내는 주민들은 삶의 터전인 북촌을 관광객과 노후화된 도시형 한옥으로 인해 때문에 떠나는 추세이며 그로 인해 사람으로서 만들어지는 '마을'이라는 진정한 의미를 잃고 있다. 때문에 주민들과 관광객이 이어주는 기존 주민들의 주거시설과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체험, 상업, 숙박시설 등의 내부 프로그램, 커뮤니티가 일어나는 마당 같은 외부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이 프로그램들을 옛길(골목)을 위에 각각의 프로그램을 갖는 클러스터들로 배치한다.

3. 채와 채를 잇다.

그 시절 도시형 한옥의 작은 마당과 둘러싼 방의 구성은 숨 쉴 틈 없이 협소하다. 때문에 도시형 한옥이 가진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들을 개선하고자 한다.

- 1) 기존의 도시형 한옥의 모듈화를 통해 채를 덧붙이거나 마당의 위치 변경 수직 확장 등을 통해 내부공간을 더 넓게 사용하고 뿐만 아니라 채와 채를 연결하여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한다.
- 2) 기존의 주거의 진입 방식인 골목들을 한곳에 모아 하나의 넓은 마당을 형성하고 마당에서는 주민들끼리의 커뮤니티가 형성되며 골목을 따라 수평적으로 넓게 퍼져있던 집들은 수직으로 쌓여져 재탄생된다.
- 3) 넓게 펼쳐져 있던 도시형 한옥의 건물과 건물 사이의 버려지던 틈들은 또다른 동선이나 텃밭 또는 채와 채를 이어주며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새로운 형태의 지붕은 채들을 연결함으로써 큰 덩어리의 형태를 갖게 된 것을 기존의 북촌의 흐름처럼 작은 필지 위 작은 한옥들의 군집 형태로 보이게 한다.

학생 공모전부분 동상

건축공간연구원장상

북촌 잇-길

명지대학교
김성훈



“어 서 오 계”

어제의 슬기로운 계승하다

한옥의 시작은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하기 시작했다. 처마와 기단을 통해 온도를 조절하고, 낮은 담장을 통해 공간의 위계성을 가진다. 이러한 한옥은 어떠한 개인의 건축이 아닌 기후와 토지의 형태에 따른 시대적 생존의 결과물로서 보여진다.

가령 제주도의 한옥과 전주의 한옥의 차이가 다른 것처럼 같은 한옥이라는 범주안에 있는 건축이지만 신분에 따른 재료의 차이점은 '생존'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변화함을 알 수 있다.

한옥은 우리의 생활양식을 품고 있다. 낮은 담장을 통한 이웃과의 소통은 현재 오지랖으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전쟁과 급속한 경제성장은 한옥과 현대의 간극을 크게 만들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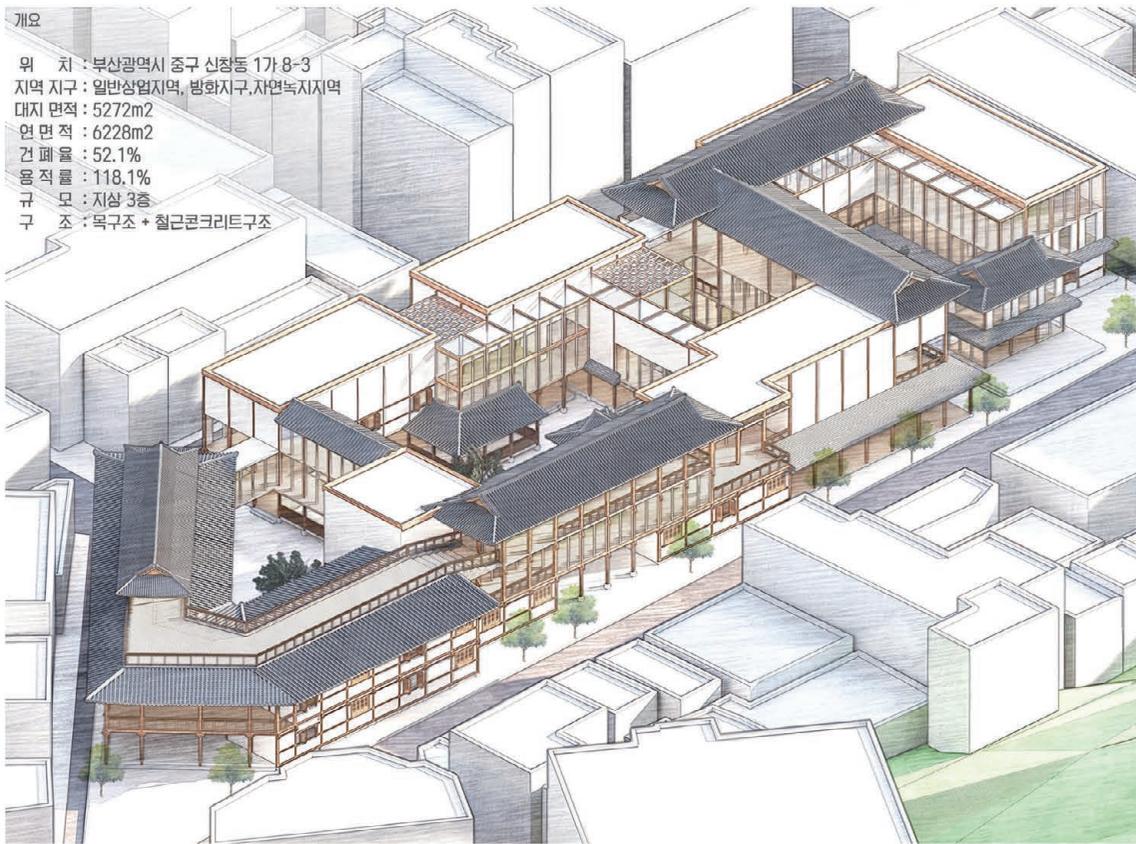
현대의 한옥은 주변과 대비되는 디자인적 요소를 통해 생존하고 있지만, 한옥이 가진 공간적 기능(생존으로서의 수단)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와 동떨어진 느낌을 가져다 준다.

이러한 도태되어진 것은 건물뿐만 아니라 역사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에게도 포함되어진다. 도매공, 시메가들은 우리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현대사회와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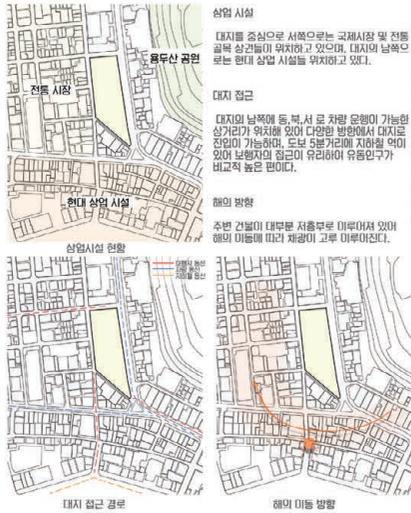
우리는 생존을 위한 공간을 함께 어울리는 공간, 즉 한옥이 보여주듯 하는 공간을 통해 우리의 것들을 체험하고 현대사회와 공생하는 상황을 연출하고자 한다.

개요

위 치 :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1가 8-3
 지역 지구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 면적 : 5272m²
 연 면적 : 6228m²
 건 폐율 : 52.1%
 용 적률 : 118.1%
 규 모 : 지상 3층
 구 조 : 목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대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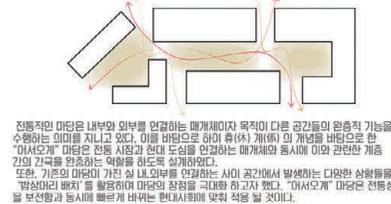
골목 상권의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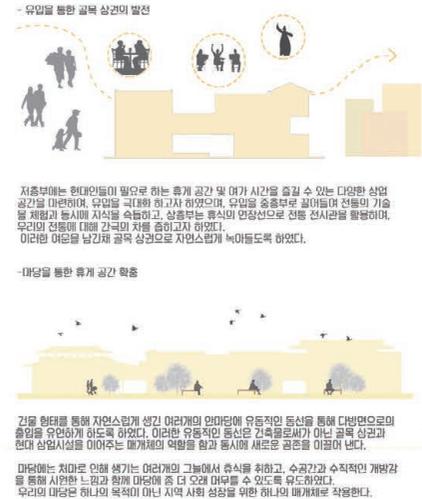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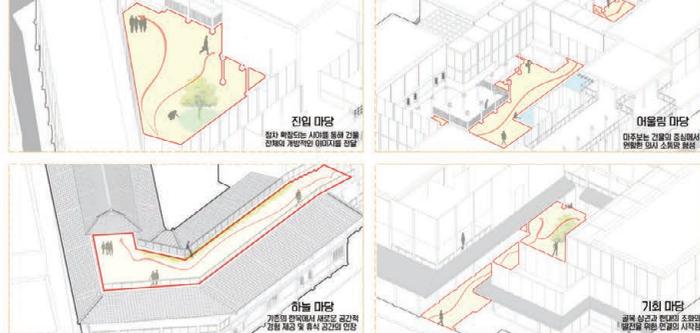
공간 및 동선 계획



해결 방안



오늘의 마당



내일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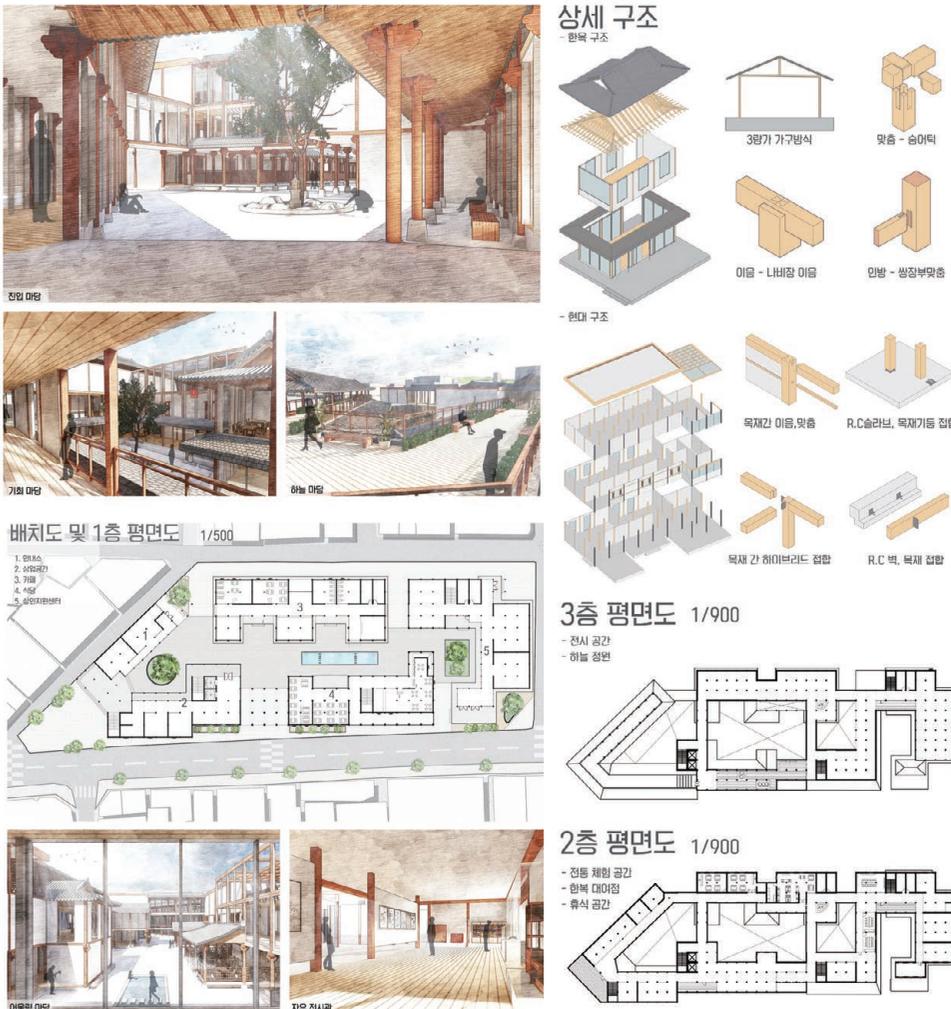
어서(誚)오계(繼)

한옥의 시작은 생존의 필요성으로서 시작되었다.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 현대에 발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한옥이 생존하려는 마음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사회는 가속화를 통해 점차 변화하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전통을 간직하려는 마음과 이를 품고 있는 공간은 현대사회에서 소외 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골목상권의 축소, 계층 간의 분화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어서(誚) 오계(繼)'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기회로 삼아 현대 상업시설과 전통시장이 위치한 남포동에서 이야기를 만들고자 한다. 남포동은 전통을 지키는 공간, 즉 '자갈치 시장', '국제시장'이 대로를 중심으로 하여 현대 상업시설과 공존하고 있다. 인구의 밀집도는 매우 높으나 '계층 간의 간극'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계층 간의 간극은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소통의 부재를 만들고 있으며 이는 골목상권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어서(誚) 오계(繼)'의 주안점은 이러한 골목상권과 현대 상업시설을 이어주는 하나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자처하고자 한다. 이러한 매개체의 중심은 전통마당의 유기적인 소통이라는 장점을 활용하였으며, 이는 수직적으로 분리된 공간에서 유동적인 소통을 이끌어낸다. 우리의 현대 한옥은 다방면의 출입구를 통해 현대와 골목상권을 연결하고 있다. 우리가 가진 네 개의 마당은 기회로서의 마당, 소통으로서의 마당, 휴식으로서의 마당, 연결로서의 마당 이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서 존재하며, 이를 관통하는 하나의 동선이 각자 마당을 연결하고 있다. 각각의 마당에는 골목상권의 발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시설, 마주 보는 공간을 통한 전통 프로그램과 현대 휴식시설의 연계, 유희공간을 활용한 휴식공간을 연장을 통해 대지가 가진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우리의 문제 해결을 통하여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현대의 교류, 현대인들의 휴식 연장선으로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을 만들어 낼 것이다.



학생 공모전부분 동상

건축공간연구원장상

어서(誚)오계(繼)

동서대학교
박보석
이성범
전광호
이소정

작·家

작가의 집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컨벤시아대로 274번길
 지역지구 : 인천경제자유구역 (IFEZ)
 대지면적 : 5,336㎡
 연 면 적 : 5,000㎡
 규모 : 지상 4층 + 5층
 구조 : 콘크리트+목구조
 용도 : 작업공간 / 주거공간 / 전시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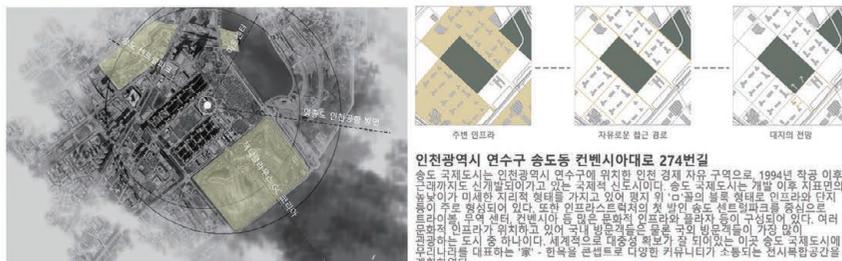
투시도



프롤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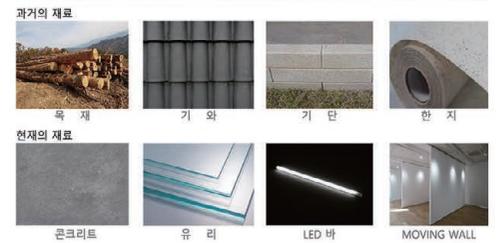
사이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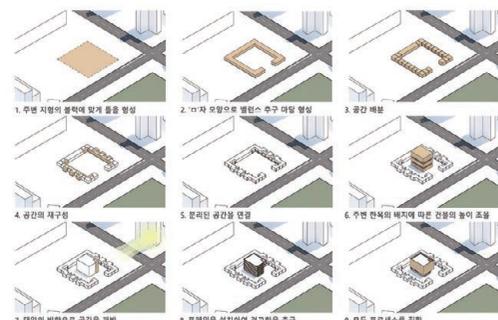
단면도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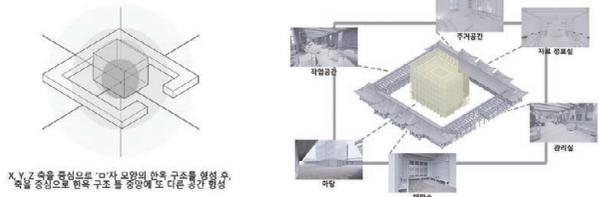
한옥의 재료



디자인 프로세스



컨셉



X, Y, Z 축을 중심으로 '오자' 모양의 건축 구조를 형성 후, 축을 중심으로 한쪽 구조를 중앙에 또 다른 공간 형성

공간과 구조의 이름과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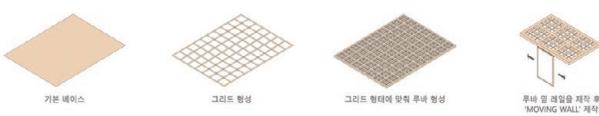
한옥의 구조 이름과 특징



전통적 현대적 구조의 구조로 한옥의 아름다움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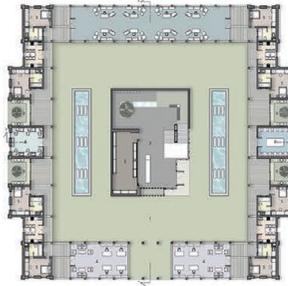
전통 기능 계획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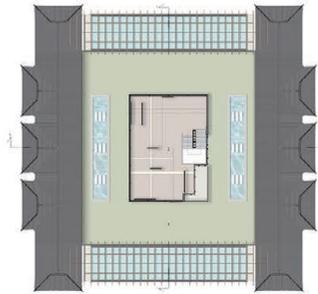
1ST FLOOR PLAN

1. GARDEN
2. MAIN HALL
3. WARE HOUSE
4. OFFICE SPACE
5. RESIDENTIAL SPACE
6. KITCHEN
7. LAUNDRY ROOM
8. PRINT ROOM
9. TERR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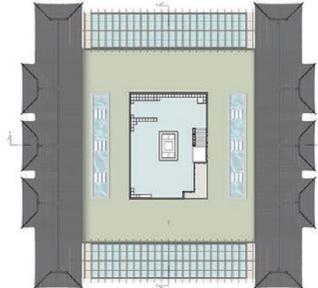
2ND FLOOR PLAN

1. GARDEN
2. EXHIBITION



3RD FLOOR PLAN

1. GARDEN
2. EXHIBITION



아이소메트릭 · 다이어그램

ROOF PLAN

지붕을 마감하지 않고 오픈함으로써, 작품의 의미, 그 해석과 가치가 하늘로 더 높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

3RD EXHIBITION PLAN

자연광으로 작품을 전시가 가능하며 루바 프레임에 부착시켜 전통적 분위기 형성

2ND EXHIBITION PLAN

무빙워를 설치하여 작품을 전시 때에 따른 공간 변형 가능

1ST FLOOR PLAN

작가들의 오피스 및 작업공간 형성

- 업무실
- 주거공간
- 주방
- 작업실
- 전시공간 로비
- 전시공간 2층
- 전시공간 3층

학생
공모전부분
입선

건축공간연구원장상

작가의 집,
作(작)·家(가)

한서대학교
강지웅
이 건



▼ ELEVATION

경주행 한옥칸

한옥을 활용한 행정 문화 복합 클러스터 만들기



들어가며: 사라진 경주역, 지키고자 하는 마음

경주역은 103년의 시간동안 경주의 첫 관문의 역할을 해왔다. 현재 경주역은 폐역 되었으며, 앞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침묵해 나가질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잊혀지지는 않은 공간들을 지니고 시민들의 기억이 있다. 경주역은 기억을 지키기 위한 공간이 갖춰져 있는 장소이다. 이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한옥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같다. 경주역과 한옥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세대를 하고자 한다.

대지분석



경주역과 한옥 기억하기



컨셉: 경주를 품은 행랑, 기억을 담은 칸



프로그램



공간전략

#1 남기고 기억하다

기존 선로 형상에 대응하는 계획과 선로를 지사용하는 공간 및 트램 계획을 통하여 과거 경주역에 대한 기억을 남긴다.

#2 문을 통해 마당을 이어준다

북문 교통을 잇다

서문 시민을 잇다

동문 문화를 잇다

남문 행랑을 잇다

#3 행랑을 따라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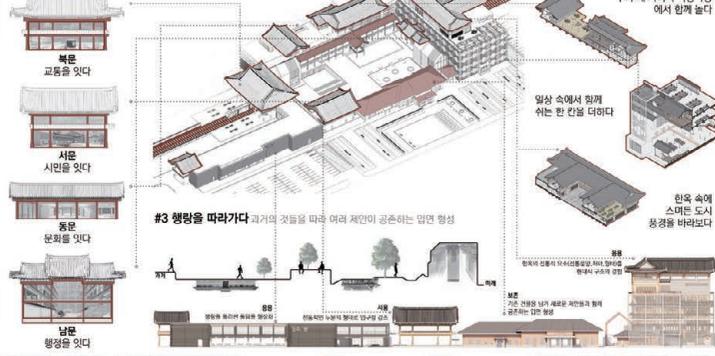
기차의 것들을 따라 여러 제안이 공존하는 밀접한 형성

#4 한옥을 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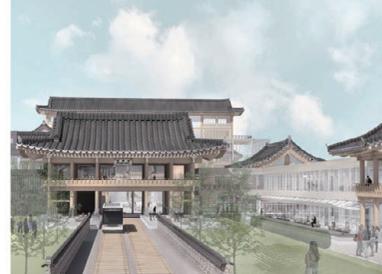
상할수록 한옥이 녹아들다

누와 채 사이의 옥심마당에서 함께 놀다

한옥 속에 스며든 도시 풍경을 바라보다



특별 순경장과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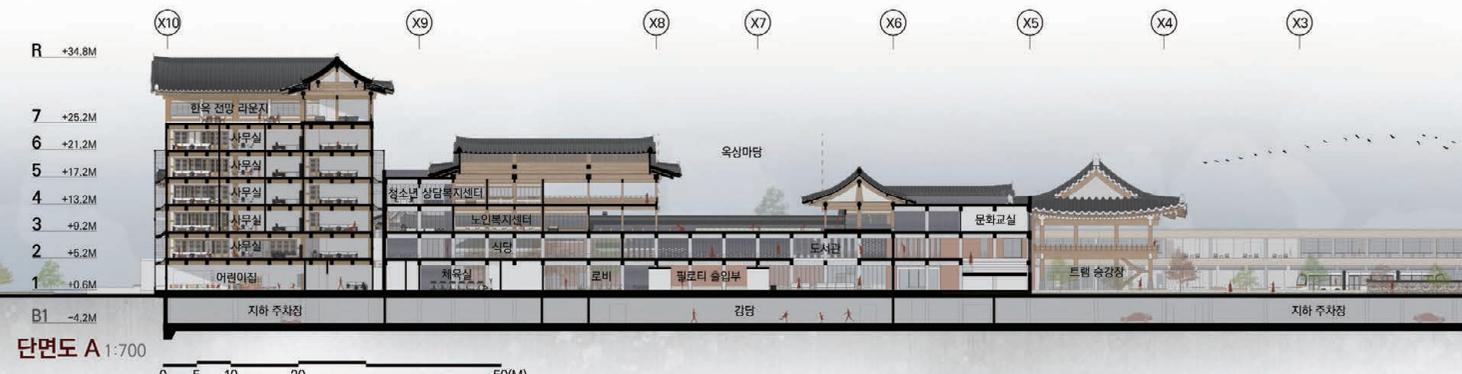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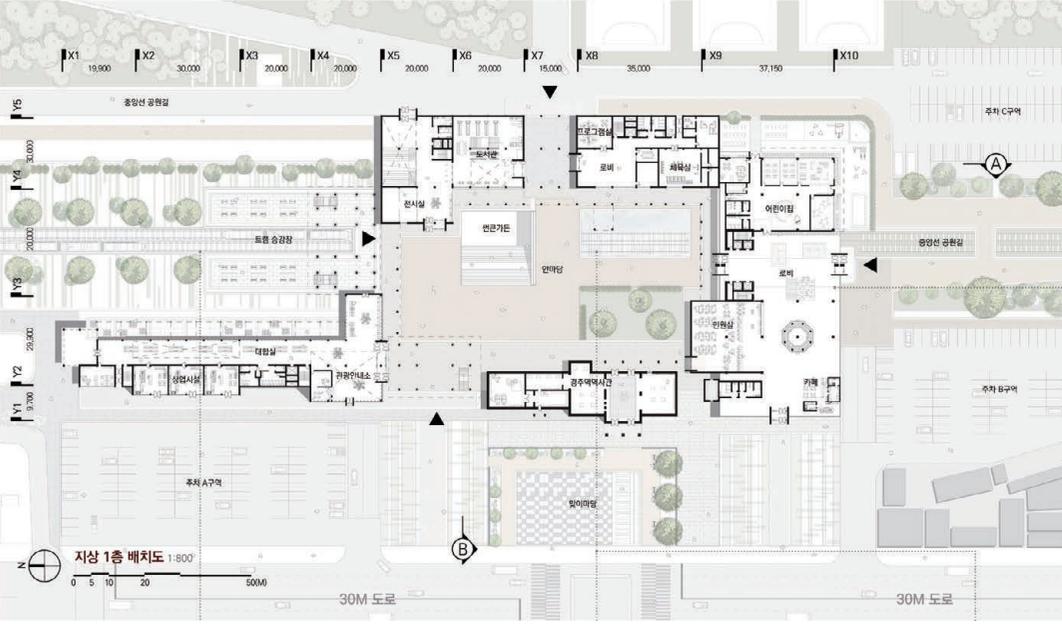
누와 채사이 옥심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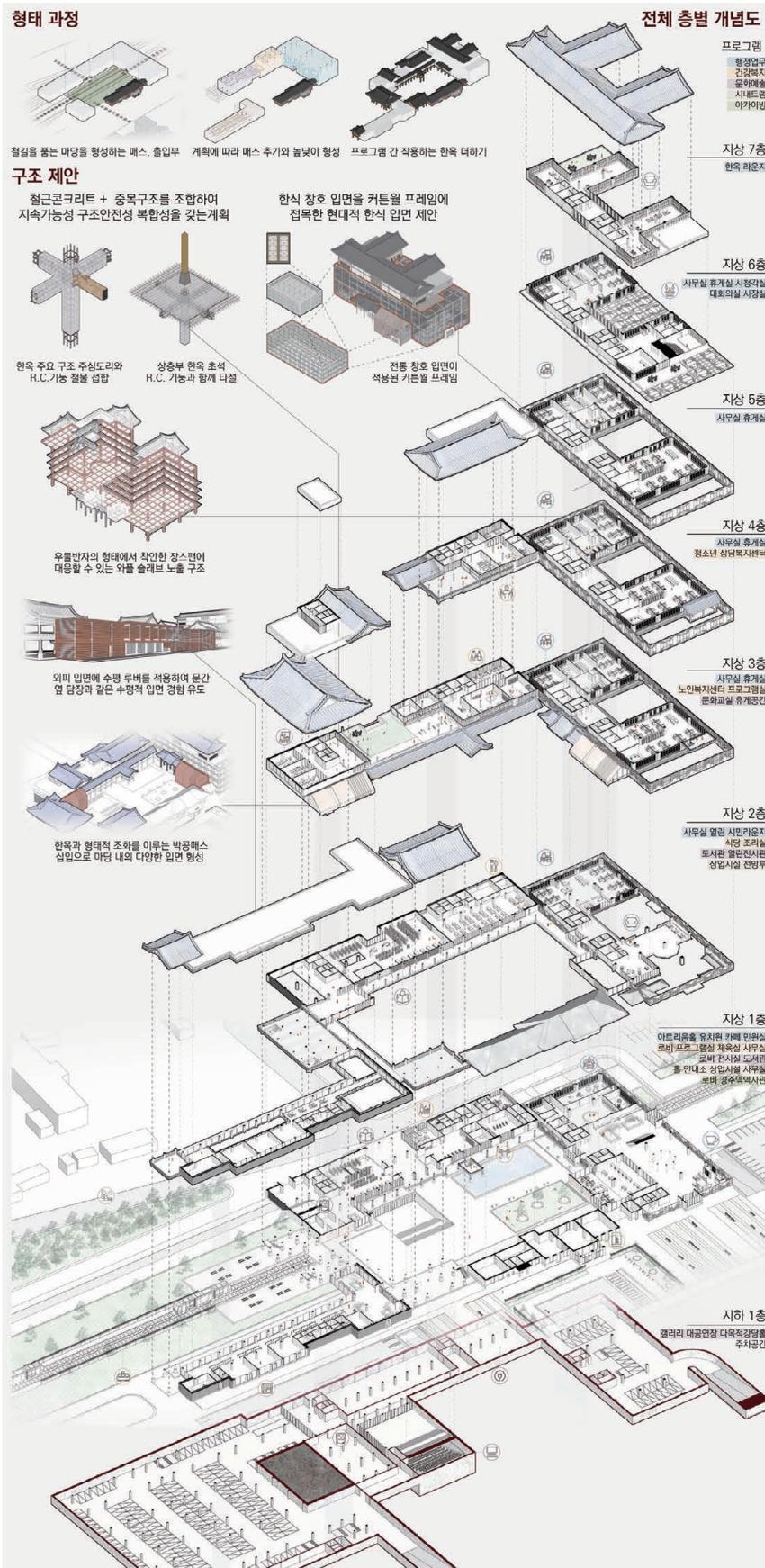


인마당



지하 아트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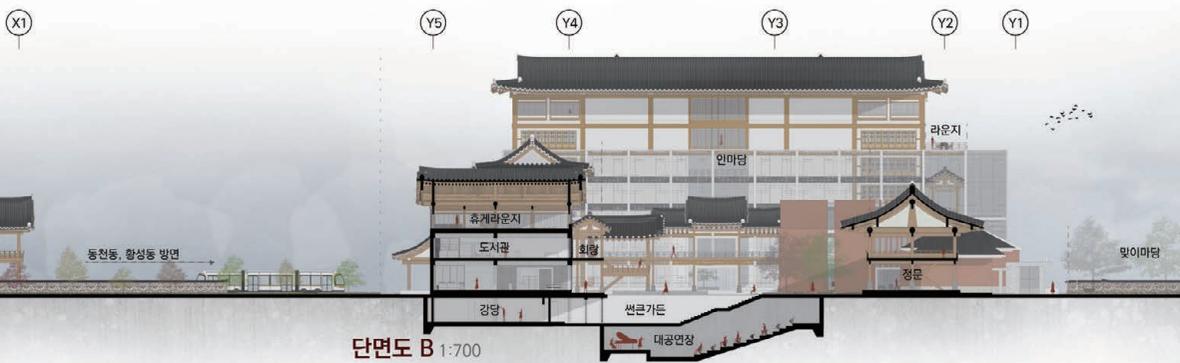


학생 공모전부분 입선

건축공간연구원장상

경주행 한옥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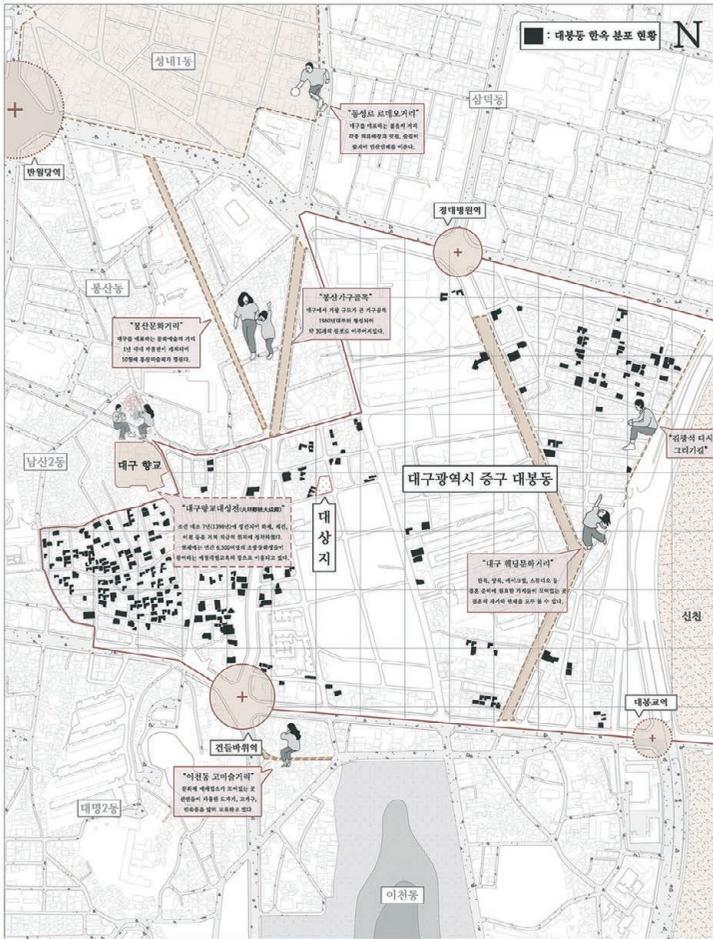
울산대학교
이동희
허수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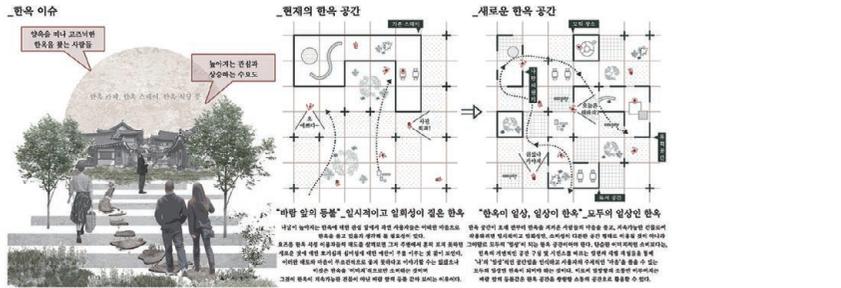
사심(謝心) : 감사하는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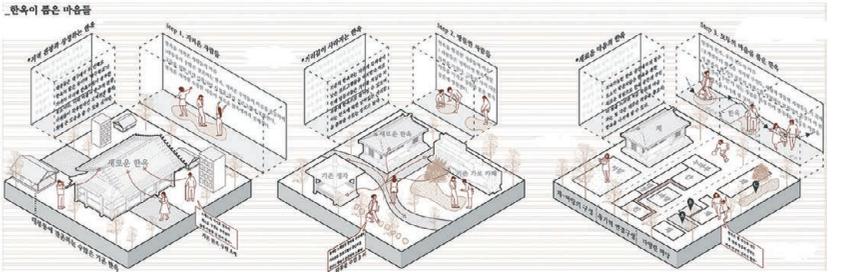
대상지 분석



설계 개념



공간 개념



한옥 공간 경험 단계



학생 공모전부분 입선

건축공간연구원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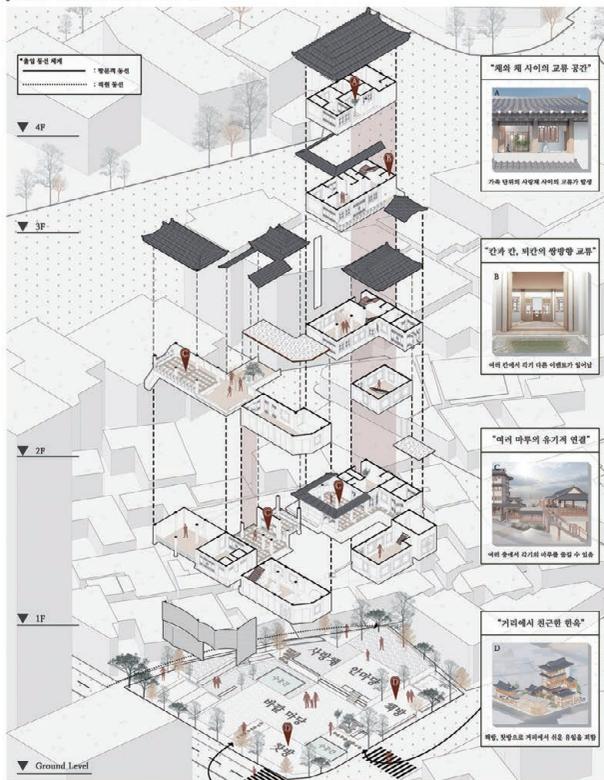
사심(謝心)

경북대학교
손유진
강신영

세부 공간 이미지



공간별 프로그램 전개도, 아이소 메트릭



평면도 축척: 1/250



평면도_사당재 축척: 1/120



단면도 축척: 1/100



북촌이음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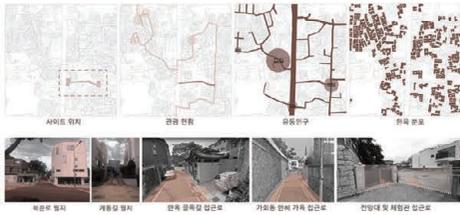
주민 정주성을 위한 북촌로8길 활성화 방안

대지는 도심 속 조선의 역사를 품고 있는 북촌 한옥마을의 북촌로와 계동길에 위치한다. 사리저가한 한옥을 지금까지 지켜올 수 있었던 건, 북촌을 비롯한 한옥이 남아있는 터에서 삶을 살며 그 자리를 지켜온 주민들의 역할이 크다. 그러나 역사를 품은 관광지로서 북촌은 '투어리즘화' (Tourification) 관광객이 불러들여는 오버투어리즘 현상으로 인해 주민들의 디저가 관광지가 되고,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위협받는 현상에 의한 피해가 적지 않다. 따라서 오버투어리즘 현상으로 인해 2순위가 되어버린 주민들의 삶을 우선시하면서도, 동시에 관광객을 주거 중심의 지역에서 상업 중심의 지역으로도 유도하고, 관광객을 또한 북촌 내의 다양한 공간들을 모두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계획안을 제안한다.



가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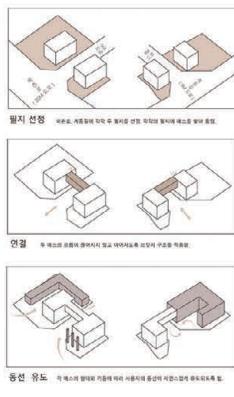
북촌로 부근에는 비교적 주거 중심의 한옥이 가깝게 밀집되어 있고, 계동길은 상업 중심의 건물과 밀집했다. 북촌로와 계동길을 이어 관광객을 계동길로 유도함으로써 주거 중심지인 북촌로의 유동인구 밀집을 완화시키고자 북촌로, 계동길에 각각 두 길지를 선정했다. 북촌로의 계동길에 이어지는 사이의 북촌로 8길은 가의동 한옥 마을의 민속민화제와 각종 민속 체험관, 갤러리 등이 모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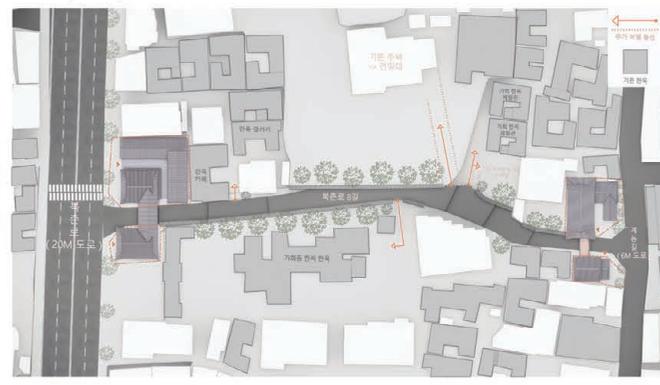
프로그램 설정



디자인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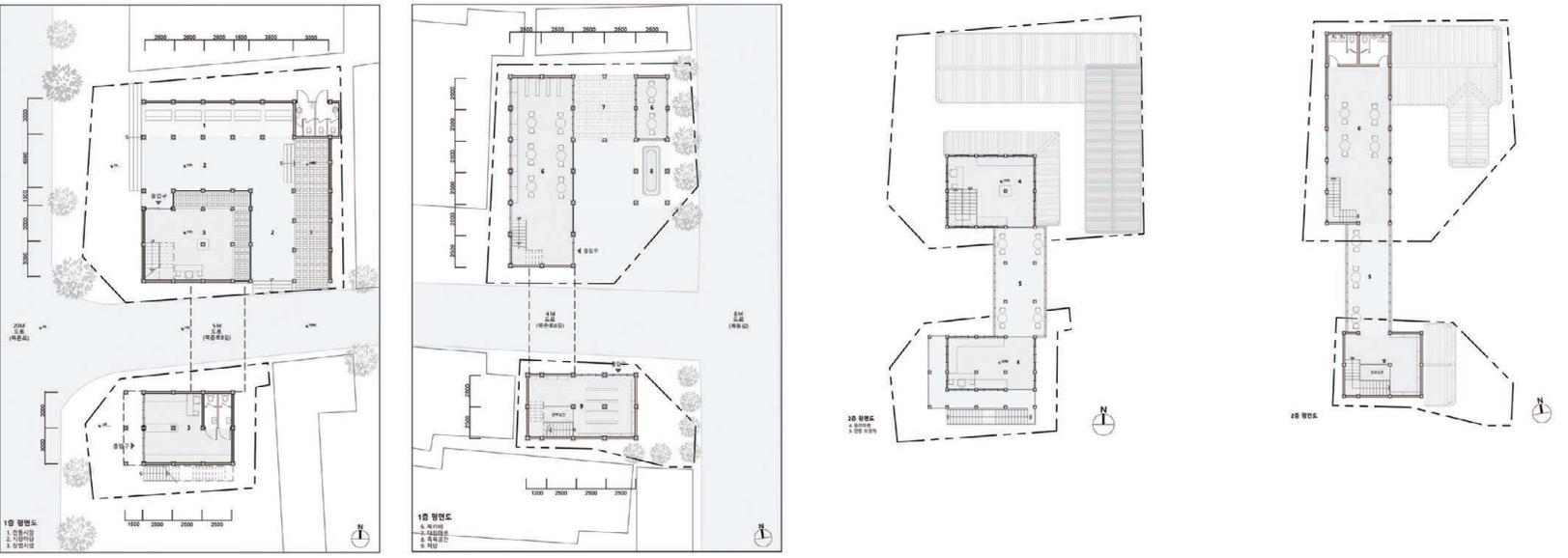
배치도(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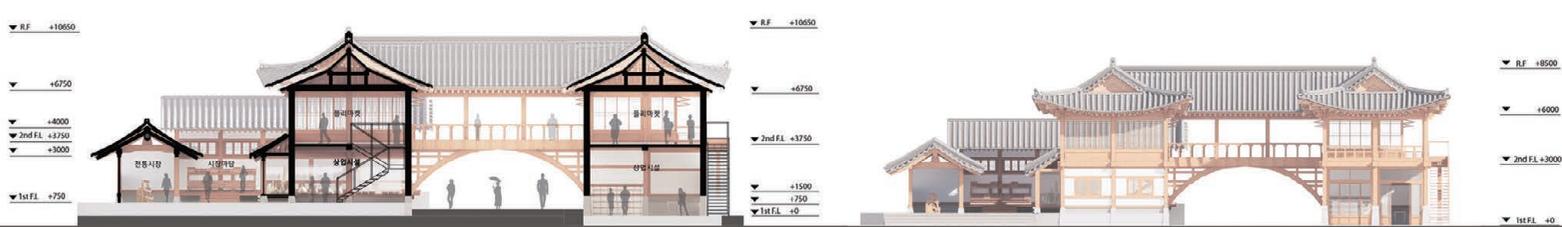
계획공간 요소



평면도



단면도 및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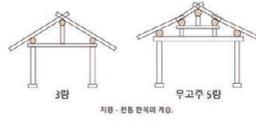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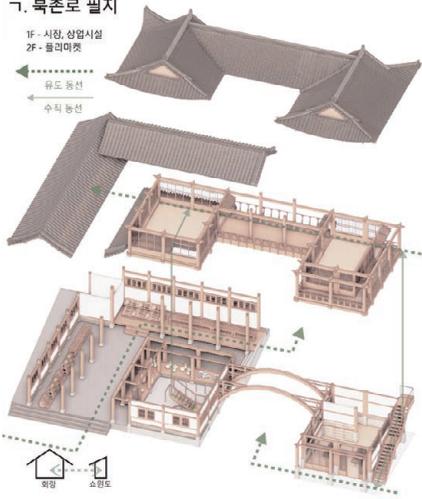
학생 공모전부분 입선

건축공간연구원장상

한옥요소와 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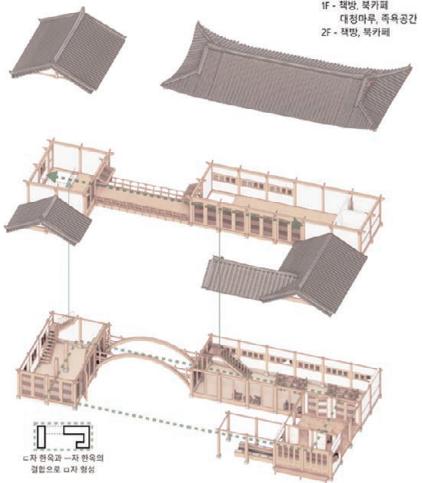
㉠. 북촌로 필지

1F - 서당, 상암서실
2F - 돌리마루
유도 동선
수익 동선



㉡. 계동길 필지

1F - 책방, 복귀패
대청마루, 즉석공간
2F - 책방, 복귀패



다차 원옥길 -과 현옥의
결합으로 다차 형성



북촌이음길

성균관대학교
이현민
최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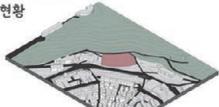


도담도담 : 아이가 아픔없이 잘 자라는 곳



주변 현황

도로 현황



대치 남동쪽에는 4M 양방향 도로가 있고 대중교통이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치 북동쪽에는 산으로 대치를 둘러 싸고 있다.

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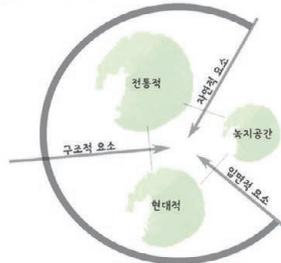
주변에 높은 건물이 많지 않아 일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남동쪽으로 주거단지가 위치하고 있다.

설계 개념 1



마음에 상처가 있는 아이들의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공간을 각 영역별로 나누어 담아내고자 했다. 희망, 만남, 안식처 등의 역할을 하는 공간을 통해 최종적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돌어주고 치유해주는 보육원으로 선정했다.

설계 개념 2



한옥의 전통적인 요소들과 현대의 구조적인 장점과 모던함, 그린존의 적절한 융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이를 구조적, 입면적, 야외공간에서의 그린존 구성을 통해 현대와 과거의 공존을 나타내고자 한다.

프롤로그



한옥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한옥이 가지는 전통적인 요소들이 현재의 우리에게 따뜻한 친근함, 편안함을 전달하며 이는 하나의 힐링의 공간이라 생각한다.

힐링은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치유'라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상처가 깊은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한옥과 현대적인 건축을 통해 아픈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자 한다.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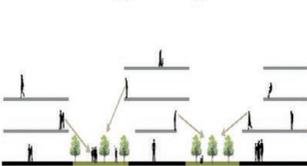


부산은 6.25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피난민들이 피난을 온 곳이다. 특히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은 피난민들이 전쟁을 피해 고지대 주거(산복 도로)를 형성했던 곳이다. 영주동은 부산 피난 길에 가족을 잃은 이들이 모여든 장소이며 헤어짐의 장소이자 만남의 장소가 된 것이다. 전쟁으로 부모와의 이별한 아이들이 영주동 일대에 많이 모여있으며 이들은 삶의 터전과 가족의 잃은 슬픔으로 상처가 깊은 아이들이 많다.

이러한 아이들의 삶의 터전을 확보하고자 고아원을 설립하였으나 인원에 비해 장소는 턱무니없이 협소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과거의 아픔이 깊은 영주동 대지에 한옥 고아원을 설계하여 과거의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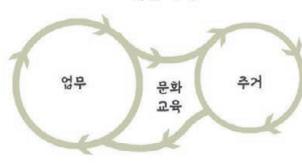
프로그램

외부 프로그램



건물과 건물 사이에 마당을 배치 함으로써 넓은 시선에서의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공간 구성



업무와 주거, 그리고 문화 및 교육공간이 유기적으로 공유되어 하나의 공간안에서 상호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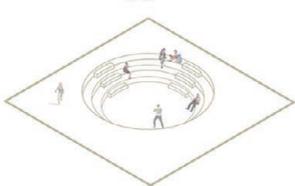
실내 프로그램



아이들의 위한 필수적인 프로그램과 외부에서의 필요한 프로그램을 내부에서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해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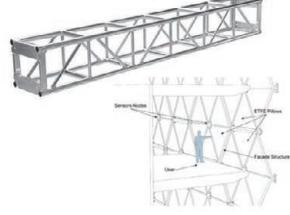
현대와의 접목

선근



단순한 구성의 야외공간이 아닌 선근을 사용하여 놀이공간을 형성해 야외에서의 '소통과 교류'가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을 형성하고자 한다.

트러스



'트러스 구조'를 사용해 구조적 기둥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야외공간에서의 오픈감을 주고 동선상으로도 막힘이 없어 편리함을 추구자 한다.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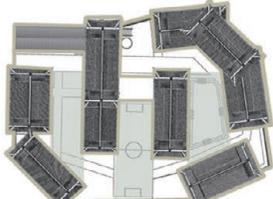


목재간의 접합과 이음, 맞출과 RC 슬래브와 RC벽과의 접합을 사용하여 현대 한옥의 구조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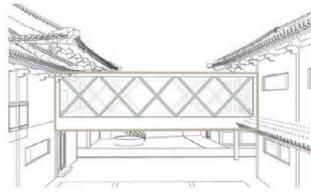
디자인 컨셉

품어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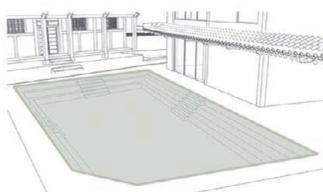
매스를 대지형상에 맞춰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품어 주는 느낌을 주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야외공간을 두어 부분적으로 품어주는 느낌을 준다.

이어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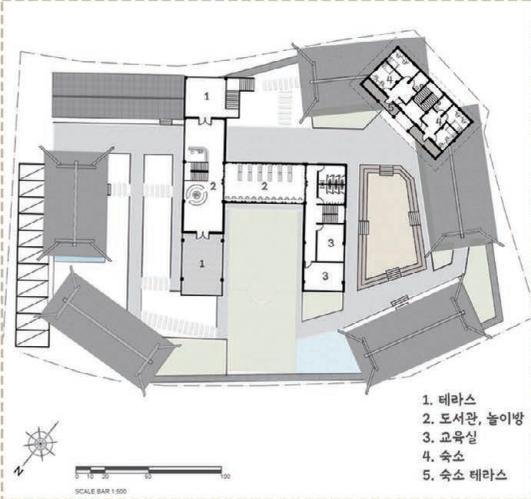
건물과 건물을 잇는 매스를 현대식 구조인 트러스 구조를 사용하여 입면적 디자인을 하고 1층에서의 개방감을 주었다.

소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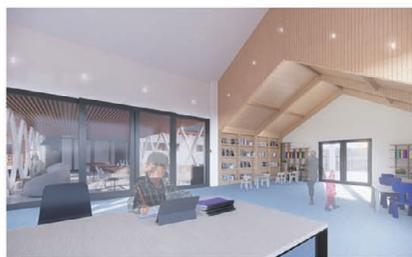
교육공간과 기숙사, 식당 사이에 선릉을 활용한 놀이공간을 주어 아이들이 야외에서 자유롭게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주었다.

2층 평면도 축척 1/500



1. 테라스
2. 도서관, 놀이방
3. 교육실
4. 숙소
5. 숙소 테라스

투시도



1층 평면도 축척 1/500



1. 사무실
2. 마루
3. 상담실
4. 기숙사 홀
5. 남 기숙사
6. 여 기숙사
7. 식당
8. 컴퓨터실
9. 교육실
10. 교육동 홀
11. 강당
12. 운동장
13. 놀이터

단면도 축척 1/250



학생 공모전부문 입선

건축공간연구원장상

도담도담:
아이가 아프없이
잘 자라는 곳

동서대학교

김수빈

김찬민

최형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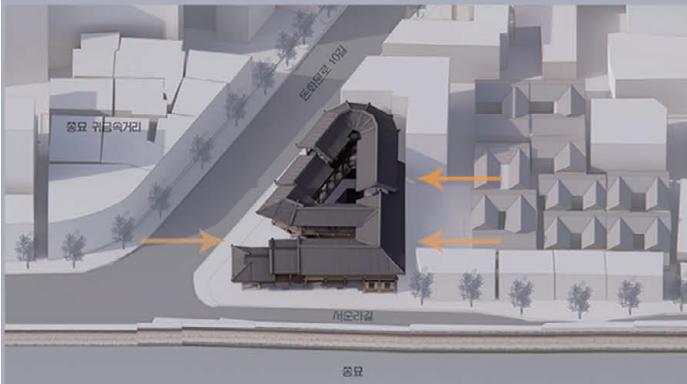
윤현찬



낙후되었던 서순라길을 띄우다, 무지주 공간에 건물을 띄우다.

서순라길 근린생활시설 설계 프로젝트로 이용자의 빈도가 낮은 서순라길을 관광지로써 띄웠다. 하이테크 목구조 양식을 활용하여 건물을 지상으로 띄우고 무지주 공간을 확보해 공간의 가용성을 높였다. 보편적 허브는 무지주 공간과 현관이 연결되어 대공간을 형성하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느낌을 주어 이용자들의 한우로 끌어들이었다. 현대 기술과 전통 한옥을 결합하는 독특하고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며 현대 기술을 도입한 앞으로의 한옥 방향성을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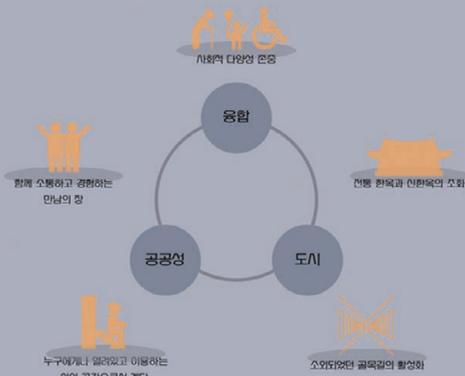
배치도, 사이트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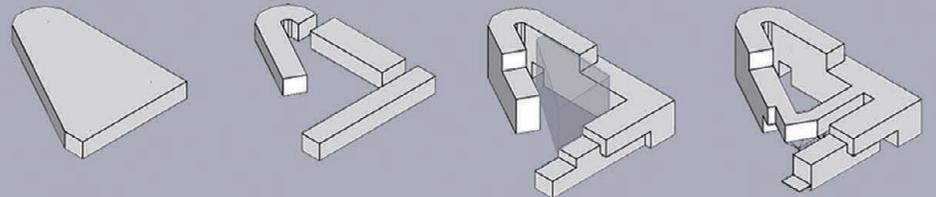
SITE 2번은 중요 담장을 따라 서순라길에 입구에 위치하였고, 중요3구역에서부터 오는 동화문로 10길과도 이어져있다. 서순라길은 주민들이 함께 집회할 공간이 부족하고 관광객들이 방문했을 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시설이 부족하다. 내부 골목길은 가로변에 있던 건물에 가로막혀 단절되어 있고 폐쇄된 느낌을 주어 주민들이 천고처럼 골목길을 이용하고 있었다. 기존에 있던 데해볼카페(정예인 근로사업장)는 2층에 위치해있지만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좁은 계단을 통해 올라가야해 접근성이 떨어졌다. 서순라길을 맞이하는 얼굴 역할을 하는 코너부에는 주민들의 휴게공간의 부족으로 노인들이 간이의자를 두어 임시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골목길의 축을 매스 계획에서 비워내어 이용자들이 한옥과 골목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순환되는 골목의 느낌을 한옥에 끌어들이며 내부에 순환하는 동선을 계획하였고 이것이 배치 계획에서 드러낸다. 비정형 대지의 특성을 살려 곡형 꺾음부를 계획하여 옆 건물과의 관계를 흥미롭게 계획하였다. 곡형으로 꺾이고 순환하는 동선을 위해 주요 매스를 보릿지로 연결하고 컨셉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이테크 목구조 양식을 활용하여 무지주 공간을 계획해 허브에 현관과 연결되는 대공간을 형성하였고, 구조적 역할을 하는 트러스를 임의로 풀어내었다. 중요3구역 부분 한옥은 모던한 느낌을 주는 현대 방식으로, 서순라길은 온전한 전통 방식으로 해석하였다.

조닝 다이어그램



매스 다이어그램



비정형 대지 형태로부터 매스 틀을 형성. 옆 건물과 관계를 고려하여 곡형 꺾음부로 계획

기존 단절된 골목길을 활성화 시키고 한옥 내부로 이어지는 동선 계획을 위한 매스 배치

주변 건물 현황에 따른 층 구성. 외부 동선에 따른 중앙 현관 광장 형성

2층 매스의 연결 보릿지로 내부 순환 동선 형성. 하이테크 목구조를 활용한 허브 무지주 공간 형성

내부 프로그램 이미지



내부 도입 프로그램, 기대효과

바라볼마루
서순라길 가로변의 연속성을 계단에 끌어들이어 공공성을 띤 공간으로, 주민들과 이용자들이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2층의 카페와 연결되어 있는 열린 공간

바라볼마루에서 이용자들은 사회적 다양성에 관계 없이 같은 시선으로, 가로변에 이동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주변과 중요 담장, 한옥 내부를 바라볼

층대에 위치한 '정순마루'를 모티브

계단 하부 공간을 통한 지하 공간의 빛의 유입

프리마켓, 현관 계단
오프리마켓을 방지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프리마켓 외부 자본의 유입으로 심권 활성화, 경제 순환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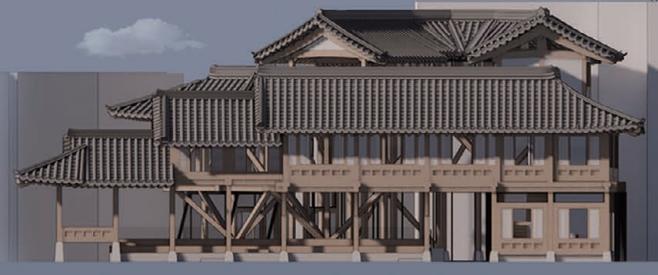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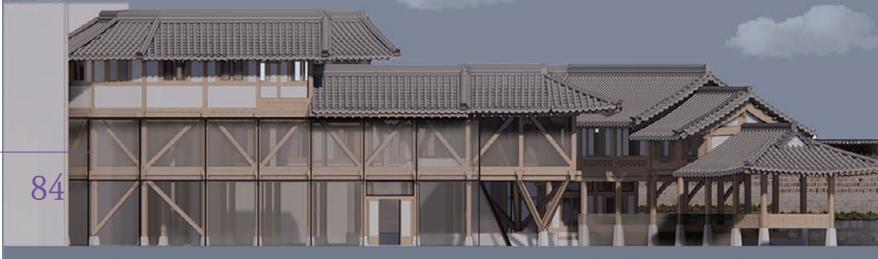
바라볼마루의 연장선인 현관 계단은 이용자들의 휴식 공간 제공하며 무지주 대공간을 경량하게 함

외부를 통한 지하 수직 동선 계획을 해결하였고, 비정형 대지의 특성을 살려 시각형의 형태를 띤 현관을 계획하여 이용자들의 시선을 모아 지하 공간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한옥 도서관
순환하는 동선 속 도서관을 배치해 이용자들이 하이테크 목구조 공간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유도

지하 현관, 중요 담장, 하이테크 목구조가 내부 이용자의 한 시야속에 확보하기 위해 유리 사용

적층 한옥의 취약점인 빛을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커튼월 방식의 입면에 트러스 구조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더하고 입면의 장식적 요소로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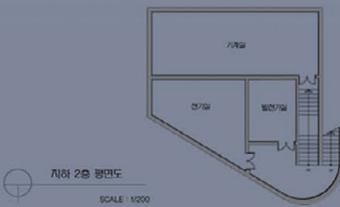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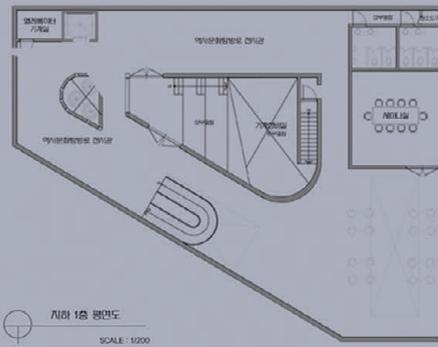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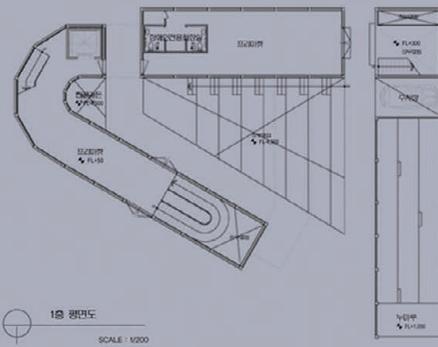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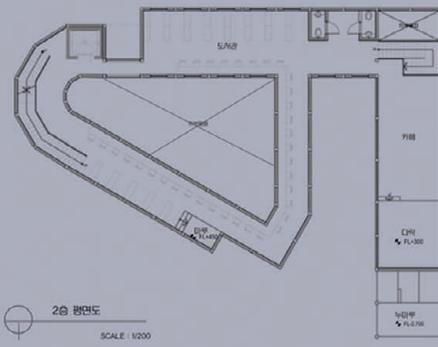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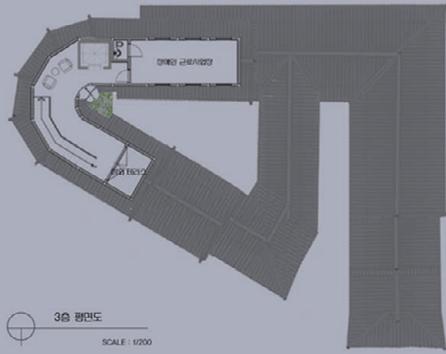
학생 공모전부분 입선

건축공간연구원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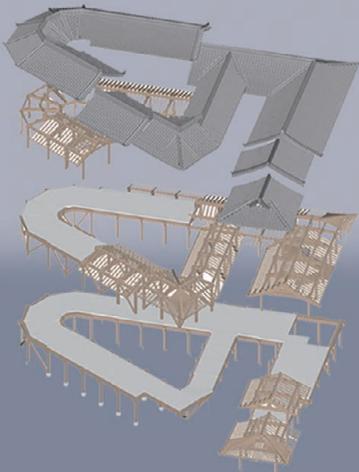
뛰우다, 순라

명지대학교
조해원

평면도



목구조 다이어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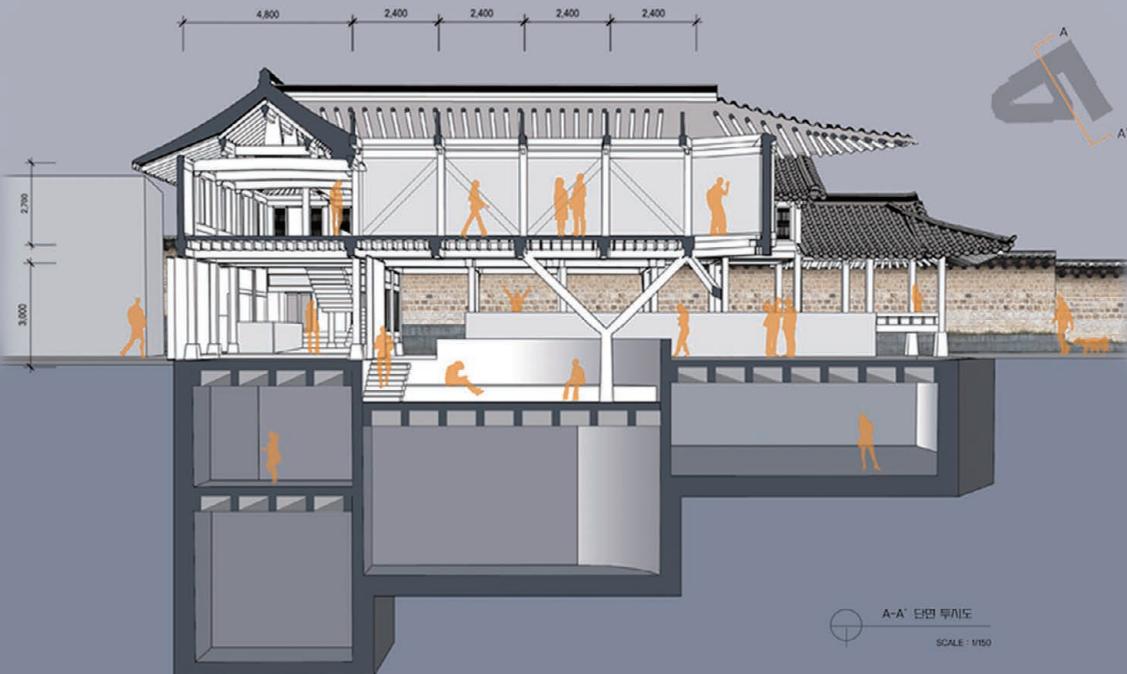


연간부에 활기찬 사용
주된 건물 형태를 고려한 승승기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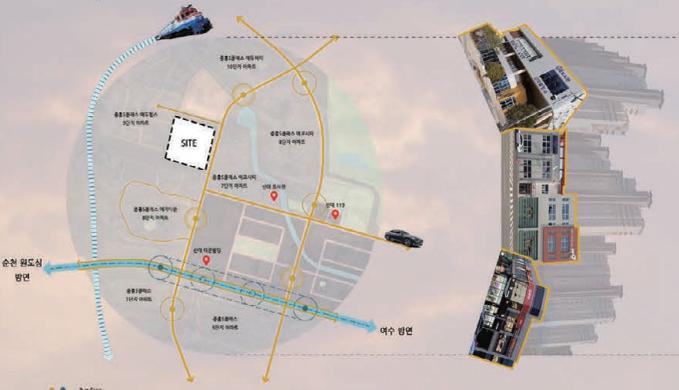
하이테크 목구조를 활용하여 구조적 안전성 확보
승고기 낮은 단락을 배제하여 뒤와 시련의 다양성

공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부지수 공간을 계획
반려동물이 거단 하우를 이용하여 지어 재원 유원

단면 투시도



Site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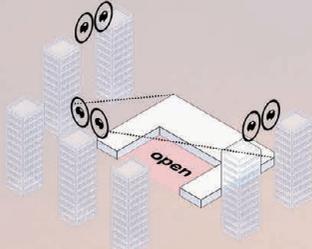
Summary

Address : 151 Jwa-ya-ro, Haeryong-myeon, Suncheon-si, Jeollanam-do
 Structure : Wood structure, concrete
 Use : Kindergarten
 Large Area : 600M2
 Building Coverage Ratio : 50%
 Floor Area ratio : 71%
 Building Area : 300M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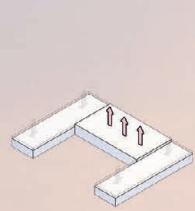
Mass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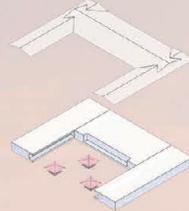
용적률에 맞춘 매스



아파트 단지속 보호받는 다자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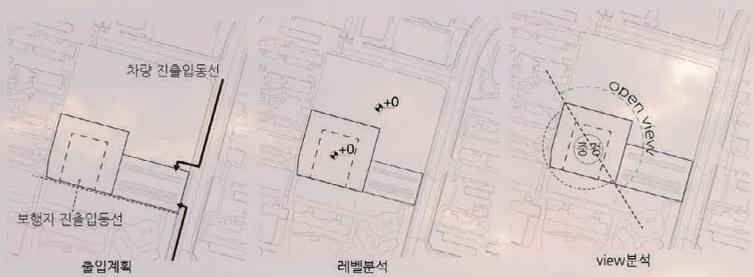


용도에 따른 위계



+어린이아지드 형성

Plan Concept



Concept



Play Ground



Sub-View



Ele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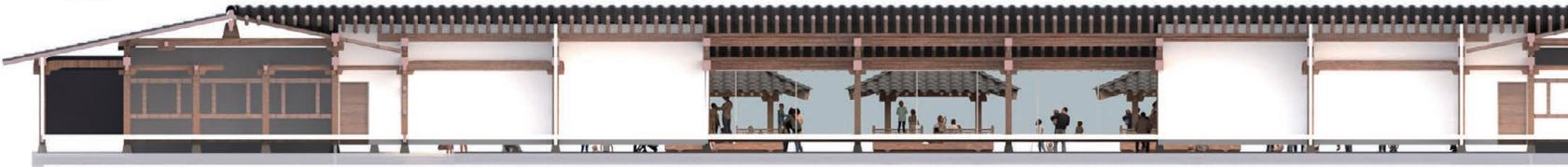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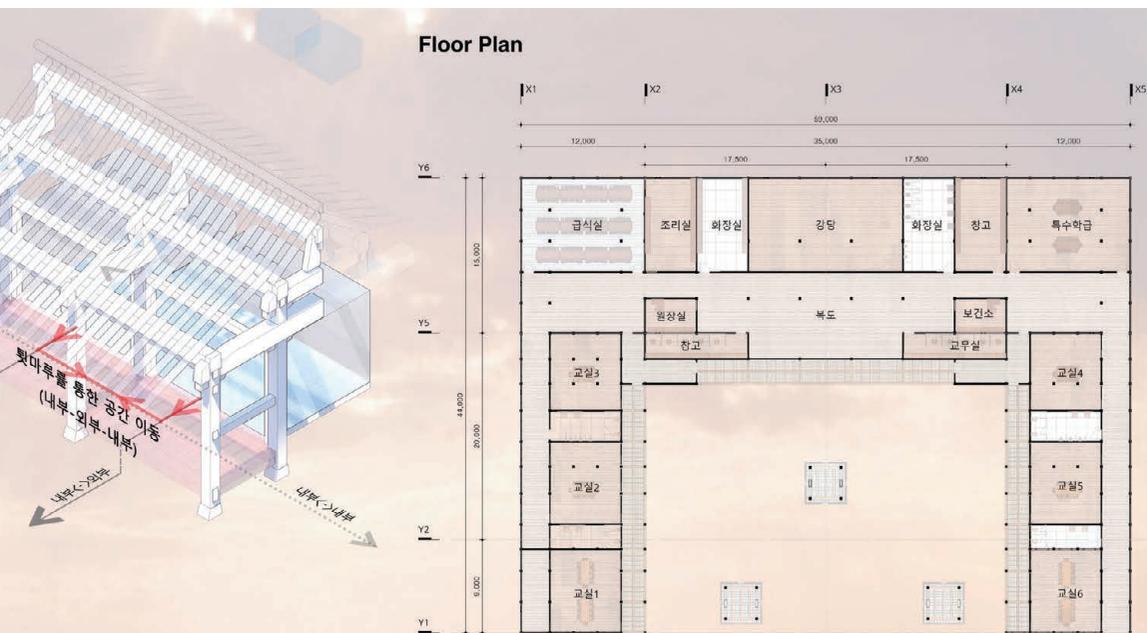
Concept Plan

신대지구의 유치원은아파트 단지속 부모들의 관심아래 놀이를 주된 목적으로 설계된 유치원이다
 특성화 계획으로 어린이들만을 위한 아지드, 정자가 난배치로 연결되어 외부조경과 어울려진것이 특징적이다

The kindergarten in the new district is designed mainly for the purpose of playing under the interests of parents in the apartment complex
 It is characterized by the specialization plan, which is connected to the layout of the shelter and pavilion for children only and harmonized with the exterior landscapermonized with the exterior landscape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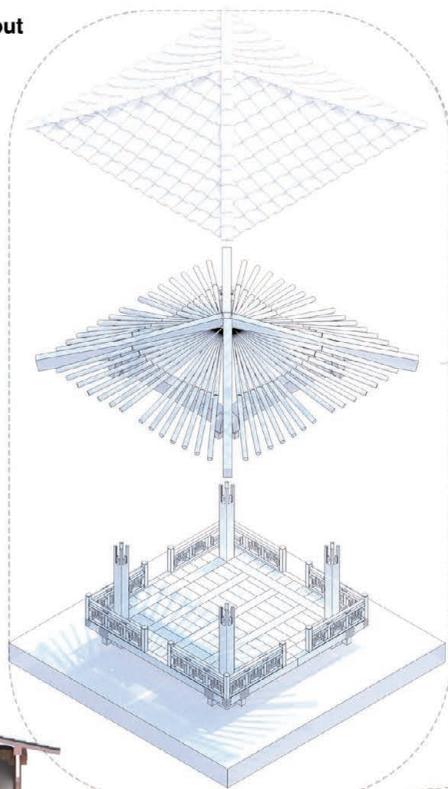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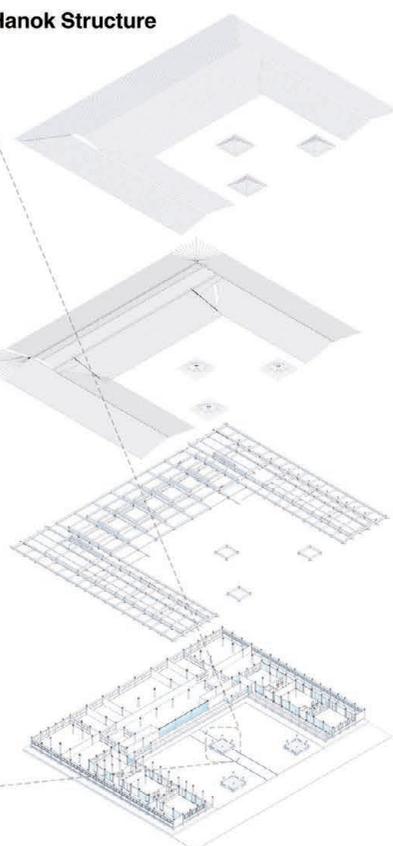
Children's Hideout

어린이 아지트는 아이들의 스케일에 맞춰서 계획된 한옥공간이다. 유치원에서 아이들만의 공간을 갖게하며 야외공간에서 한 유닛들이 놀이터가 될수 있도록 계획하고 배치하였다.

Children's hideout is a hanok space planned for children's scale. In kindergarten, children have their own space, and one unit is planned and arranged to become a playground in an outdoor space.



Hanok Structure



학생
공모전부분
입선

건축공간연구원장상

Play Ground

순천대학교
배상준

학생 공모전부분 입선

건축공간연구원장상

공혼재
-사람을 품다

동서대학교
권희준
정가은
박민지

프롤로그

#1. 사회현상

도심지에 살고자 하는 1인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비싼 임대료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상권 발달 지역일수록 겐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한 주거난이 극심하다. 지금의 2030세대는 도심지에 살 기회조차 갖기 어려워지게 현실이다.

#2.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

MZ세대는 소유 자체보다 경험을 더욱 중시하고, 사용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싶어하는 것이 최근의 변화한 라이프스타일이다. 이것은 비단 물건뿐만이 아니라 공간의 영역으로 까지 활발하게 확대되고 있다.

#3. 제안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는 문화에 익숙한 2030 세대의 삶의 방식과, 살아보고 싶은 지역이지만 비싼 임대비용 때문에 거주하기 어려운 1인가구의 현실을 고려하여 소유와 공유가 결합된 양의적 공간인 한옥형 'CO-LIVING HOUSE'를 제안하고자 한다. 변화하는 세대의 다양한 삶을 수용 할 수 있는 주거공간과 한옥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공간을 통해 주거민들간의 자유로운 소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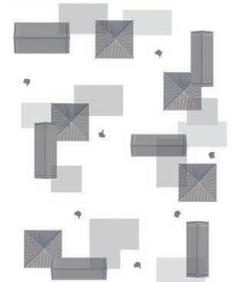
사이트 선정



-남포역과 연결된 기존 지하상가 출구 바로 앞에 위치

사이트는 남포동 중구 동광동 일대 지역으로 부산의 구도심인 상업 중심지이다. 예전 부산의 중심지는 남포동과 광복동이었다. 하지만 교통상의 문제로 점차 인적이 끊어지면서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국제시장, 광복시장 등 6.25 시절의 피난민의 산재가 그대로 남아 있는 역사적인 산물이라는 점에서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아픈 역사의 잔재를 가지고 있는 남포동에 한옥이라는 경치를 이용하여 잊혀져가는 공간에 현대의 경향을 고려한 공간을 제시하여 남포동을 다시 떠오르는 공간으로 만들어보고자 한다.

컨셉 공백



한옥이 모여있음으로서 생기는 골목길은 곧 한옥의 정체성이다. 매스적으로 굽어진 골목길을 표현하고 자유로운 동선을 구성하였다.

채 주거유닛 뒷마루 골목 산책길



누마루



하늘마루



대청마루



사이 마당



하늘마루



대청마루



사이 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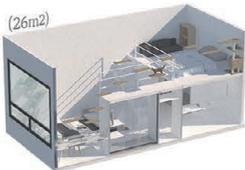


사이 마당

CO-LIVING HOUSE | 다양한 모습의 사람을 품다

유형 ㄱ.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주자를 위한 주거. 캐타워와 캐워크 역할을 하는 다양한 선반들과 복층구조를 이용하여 위아래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음



유형 ㄴ.

큰창 바로 옆에 침대가 위치해있어 햇살을 받기 좋으며 드레스룸이 따로 위치해 있어 공간분리에 유용함



유형 ㄷ.

작은 테라스를 두어 개방감을 확보 하였으며, 복층 구조를 활용하여 침실과 생활공간을 분리 함



유형 ㄹ.

복층구조의 가장 넓은 주거 유형 테라스 또한 넓게 사용 할 수 있으며 각 층 4개로 한정적인 유형의 주거



입면도 SCALE: 1/600

단면도 SCALE: 1/600





영상
부문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며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한옥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습니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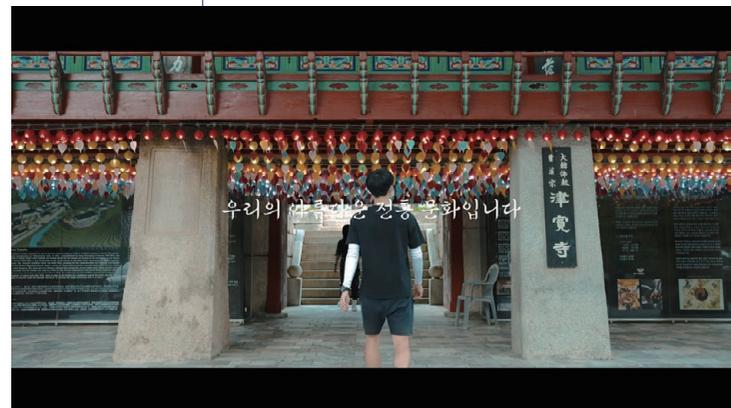
국토교통부 장관상

우리의 한옥

수상자 서영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하루





금 상

건축공간연구원장상

나의 하루, 나만의 한옥에서

수상자	계원예술대학교
	정재현
	고나예
	이명학
	신승호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한옥을
초들다

은상

한옥을 초들다

수상자 부산대학교
최지우
유다영
최종원
김서연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나뭇잎도 머물게 하든 '양간한' 기와



비와 눈으로부터 우리를 '그느르고',



우리 곁에 '또바기' 있을 한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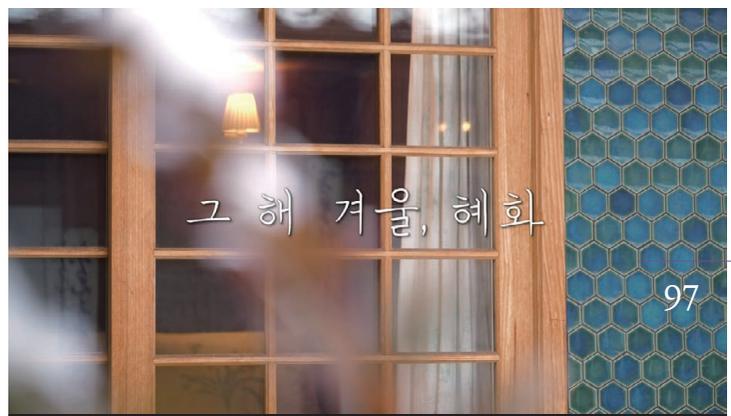
은상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해 겨울, 혜화

수상자 스튜디오 문문
 김영문
 김영일





한국의 아름다움을 도서관에 담다.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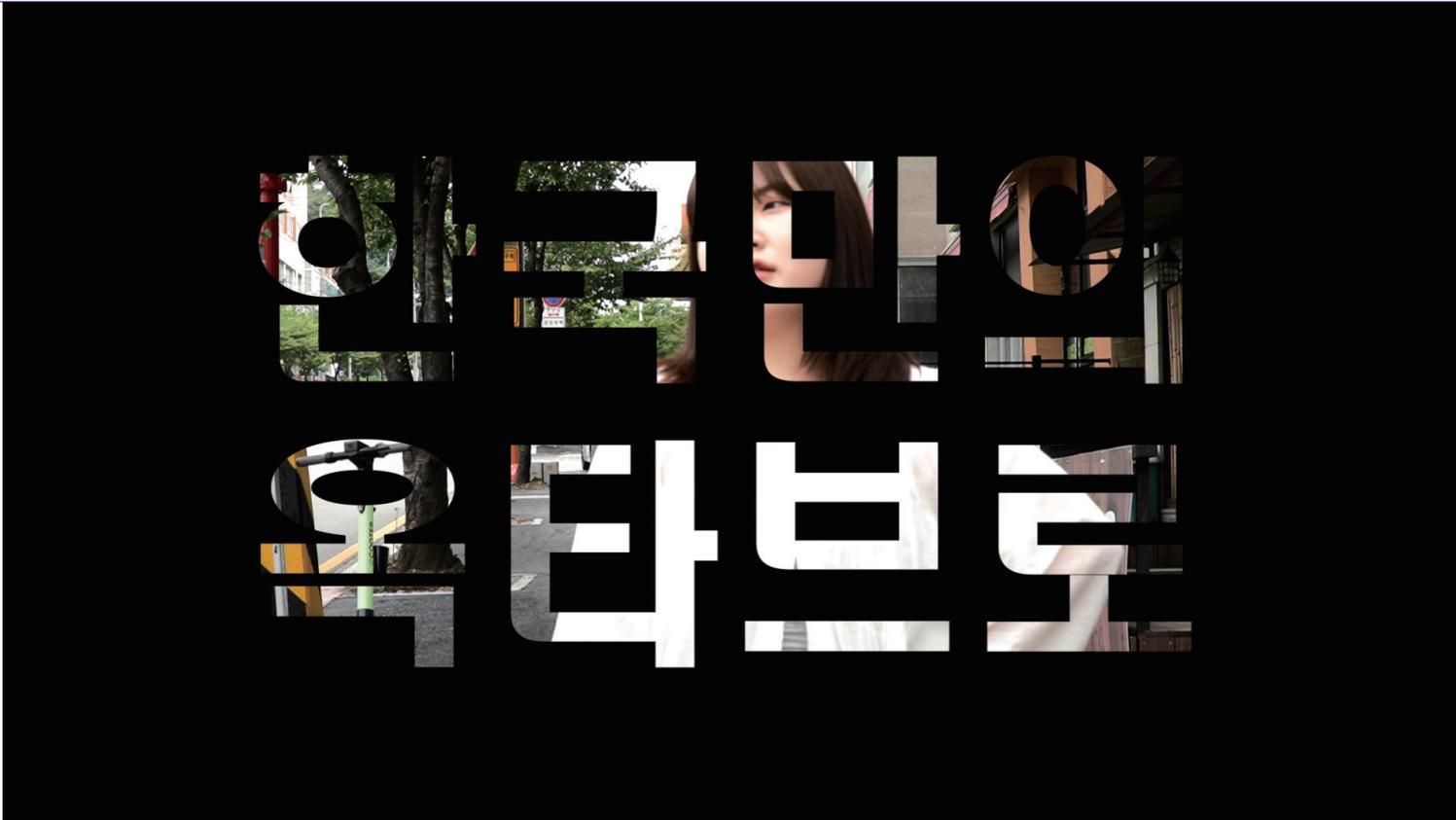
한옥의 아름다움을 담다

수상자 이종열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동상

한옥만의 옥타브,
한옥

수상자 대전대학교
 이동민
 홍재화
 김윤기
 김민영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한옥,
우리를 그리다

입선

한옥, 우리를 그리다

수상자 상지대학교
박채희
이승규
이지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100

“우리처럼 서로를 지탱해 주는 거지”



“저마가 비를 막아주면 추녀는 비가 햇빛에 잘 마르도록 해줘”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삶을 경험하는 것

입 선

한옥여행 떠나요

수상자 김영민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한옥 체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옥 여행 떠나 보는 건 어떨까요?

2022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작품집

발행처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전 화 | 044.201.3783

팩 스 | 044.201.5574

인쇄일 | 2022년 12월 20일

발행일 | 2022년 12월 20일

기 획 | 건축공간연구원 국가한옥센터 (044.417.9600)

편집·인쇄 |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02.2269.9917)

2022©국토교통부

이 책은 수상자들의 동의하에 국토교통부가 편집한 출판물로 각 작품의 저작권은 수상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